

기억의 정치공간

박물관을 통해 본 동아시아의 역사 교육과 민족주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억의 정치공간

박물관을 통해 본 동아시아의 역사 교육과 민족주의

김정현 · 김지훈 · 신규환 · 하세봉 지음

SPACE

OF MEMORY

한·중·일의 근대사는 제국주의 침략과 저항이라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중·일 삼국 사이에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 깊어지는 것과 상반되게 민족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외교적 갈등은 실질적인 국제적 파워게임 이상으로 여론을 뒤에 업은 국내 정치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대중들의 민족주의적 여론은 역사 인식과 역사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박물관·기념관은 대중이 역사를 집단적으로 기억해 내고 재구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민족주의·애국주의·사회주의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박물관·기념관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의 박물관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각종 연구 사업과 기획연구 등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이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재단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기획한 연구 결과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기억의 정치공간’인 박물관이 역사교육과 민족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박물관이 담고 있는 역사 기억을 국가 정체성과 민족주의 확대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중국국가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부흥의 길>은 ‘대국굴기(大國崛起,

대국으로 우뚝 선다)’의 자신감을 보여 줍니다. 이 전시는 기존의 중국 역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근대사를 열강의 침략과 저항의 역사로 묘사하면서도, 근대 중국의 ‘부흥’과 관련된 지식인들의 모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길> 전시에 대한 분석은 민족주의 고양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조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중국은 또한 일본의 중국 침략 시기에 이루어진 난징대학살, 종군 ‘위안부’, 731세균전 관련 역사 기록을 공개하였고, 난징대학살과 ‘위안부’ 관련 문서의 세계 기록 유산과 731부대 진열관의 세계 문화 유산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책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논쟁으로 시작된 난징대학살기념관(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의 건립과 애국주의 교육, 그리고 731부대(侵華日軍第731部隊 罪證陳列館)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일본 침략 시기 ‘만행의 기억’과 중국 동북 지역의 민족주의 교육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 이념을 강조하기보다 애국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국가 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난징대학살기념관과 731부대진열관은 피해자만이 기억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가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역사 문화’임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와 피해자로서 중국을 부각시키는 전시는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 한국이 일제 침략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신청하면서 대일 공동 투쟁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징대학살 등 일제 침략을 둘러싼 역사 인식의 이견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역사 체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는 평화 연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념관은 외형적 확대나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평화의 개념을 담아내는 이론적·실천적 교

육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에 대해 ‘승리의 기억’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抗美援朝紀念館)과 인민지원군열사능원에서 이루어지는 애국주의 교육을 통해 선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중국에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를 송환하였으며, 서울의 전쟁기념관에도 유해 송환 관련 내용을 전시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이 변화된 국가 위상과 한·중 간 협력 관계에 걸맞게 냉전기 이항 대립의 기억이 아닌 다양한 전쟁 기억들의 차이를 포용하고, 한국전쟁 관련 여러 나라의 박물관과 교류·소통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은 ‘타자 속의 자아 배치’를 주제로 일본 규슈국립박물관을 통해 박물관에서의 동아시아사 전시도 분석하였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임진왜란이나 제국주의 시대의 전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문화 교류임에도, ‘문화 교류’를 내세우는 박물관의 전시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의 동아시아사 전시 내용 분석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 박물관이 타자(동아시아)를 어떻게 전시해야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는 다수의 전쟁 관련 기념관·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어 ‘기억과 기념의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들 박물관·기념관의 역할은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예지를 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전쟁 기억의 전시와 교육은 피해자인 국가와 민족뿐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국가, 더 나아가 전 인류에게 폭넓은 각성과 교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거의 피해 사실만이 아닌 미래 평화를 위한 기념관·박물관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중·일의 시민과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기억과 교육을 통해 서로 이해

하고 진정한 선린으로 교류·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번에 옥고를 집필해 주신 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책머리에	11		
현대 중국의 ‘부흥의 길’ 탐색 김지훈 중국국가박물관의 중국 근대사 전시를 중심으로			세균전의 기억과 중국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의 새 방향 신규환 침화일군 제731부대 최종진열관을 중심으로
I. 머리말	25	I. 머리말	119
II. 중국국가박물관과 <부흥의 길> 전시	28	II. 731부대진열관 건립 과정	124
1. 국립역사박물관 준비처에서 중국국가박물관의 설립까지	28	III. 731개발관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130
2. ‘부흥의 길’의 전시	31	IV. 애국주의 내러티브와 진열관 콘텐츠의 구성	133
III. <부흥의 길> 제1부분 근대 중국 전시	38	1. 세균전 전시실	137
1. 아편전쟁 전의 세계와 중국	38	2. 화학전 전시실	145
2. 열강의 중국 침략	44	3. 중앙 회랑	149
3. 중국의 각성	60	4. 일본인 고아를 돌본 중국인 어머니 전시실	150
IV. 맺음말	67	V. 맺음말	151
난징대학살기념관의 건립과 애국주의·평화 교육 김정현		중국의 ‘항미원조전쟁’ 기억과 기념 김정현 항미원조기념관과 열사능원을 중심으로	
I. 머리말	77	I. 머리말	159
II. 난징대학살 논쟁과 기념관 건립	79	II. 항미원조기념관의 전시와 서술	163
1. 난징대학살 논쟁	79	1. 기념관 건립과 전시 원칙	163
2. 난징대학살기념관의 건립과 발전	85	2. 공식 기억으로서의 항미원조전쟁 서술	170
III. 난징대학살기념관의 확대와 애국주의·평화 교육	89	III. 항미원조운동과 기념 활동	184
1. 난징대학살 부정론의 전개와 확대된 신관	89	1. 항미원조운동과 애국주의	184
2. 기념관의 애국주의 교육	101	2. 열사능원과 영웅주의	187
3. 기념관의 평화 활동과 평화 교육	105	IV. 맺음말	193
IV. 맺음말	109		



박물관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전시 | 하세봉

규슈국립박물관의 경우

I. 국립박물관과 분석의 시각	203
II. 국가사, 지방사, 지역사와 박물관	207
III. 문화 교류 전시실 - '바다의 길, 아시아의 통로'	214
IV. 부재와 결락	232
V. 맺음말	241

찾아보기



24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4년 갑오년은 청·일전쟁 120주년이 되는 해다. 중국은 근대 중·일 관계를 사실상 일본의 침략사로 규정한다. 1894년 청·일전쟁부터 1953년까지의 60년은 동아시아가 제국주의 침략과 냉전으로 인해 전쟁이 계속된 시기다. 중국에 120년 전 갑오년은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된 해고, 60년 전 갑오년은 한국전쟁 정전 협정을 체결한 해다. 동아시아에서 19세기 후반 이래 일본의 팽창은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면서 끝나고, 이후 60년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현재 중국 지도자들은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이 1990년대 이후 정체된 반면, 중국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여 일본을 초월하여 중·일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자신감은 2014년 3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베를린에서 일본의 중국 침략을 비판하면서 난징대학살 당시 일본군이 30여 만 명의 중국인들을 학살했으며, 비참했던 당시의 역사를 중국인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한 데서도 볼 수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일본이 극구 부인하면서 계속 논쟁해 온 난징대학살 30만 명을 거론하며 일본의 과거사를 비난한 것은 중국이 대외정책 노선으로 내건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롭게 일어나다)'보다는 '대국굴기(大國崛起, 대국으로 우뚝 선다)' 쪽에 더욱 가까워보인다는 평가가 적지 않으며, '역사굴기'라 지적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지린성당안국이 일본의 중국 침략 시기에 남겨 놓은 난징대학살, 종군 위안부, 731세균전 등 전범 관련 역사

기록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중국과 외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하얼빈의 정치 지도자들은 731부대의 범죄를 역사 교과서에 포함시켜 일본 군국주의 전쟁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린대학은 일본의 중국 침략사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일본의 중국 침략 기록의 사료 연구 정리 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얼빈시는 731부대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중·일 삼국 사이에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 깊어지는 것과 상반되게 정치·외교적으로 일본의 우경화가 거세지면서 동아시아의 민족주의 갈등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대중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고조되면서 충돌할 때, 한국은 어떤 시각과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정치·외교적 갈등은 실질적인 국제적 파워게임 이상으로 대중들의 여론을 뒤에 얹은 국내 정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대중들의 민족주의적 여론은 역사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박물관·기념관은 대중이 역사를 집단적으로 기억해내고 재구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민족주의·애국주의·사회주의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박물관·기념관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의 박물관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다.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의 박물관·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사회 교육적 기능을 통해 역사 지식이 어떻게 유통·소비되면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자극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밝힐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역사 인식과의 상호 관계에 관하여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기존의 역사 교육 관련 연구는 중국과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인식에 대한 분석과 대응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박물관·기념관 등의 전시 시설에 관하여서도 기초 조사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 인식과 박물관·기념관 전시의 상호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지에 대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는 다수의 전쟁 관련 기념관·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어 ‘기억과 기념의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다. 전쟁 박물관·기념관의 역할은 전쟁의 진실을 인식함으로써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예지를 기르게 하는 데 있다. 전쟁 유적의 보호와 전시는 피해 국가와 민족뿐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국가와 민중 및 전 인류에게 폭넓은 각성과 교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중국과 일본의 박물관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 기억을 유통·소비하고 있는지, 박물관이 담고 있는 역사 기억을 국가 정체성과 민족주의 확대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특히 중국과 일본의 박물관을 통한 ‘기억의 정치공간’이 동아시아의 역사 교육과 민족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박물관·기념관 관련 지식 정보 축적 및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는 동아시아 역사 전공 연구자로서 균형 잡힌 동아시아 인식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상호 인식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다음과 같은 5개의 소주제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중국의 ‘자아 이미지 창출’이다. 중국국가박물관의 중국 근대사 전시물을 중심으로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과 〈부흥의 길〉 전시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논쟁으로 시작된 난징대학살기념관의 건립과 애국주의·평화 교육이다. 세 번째는 중국에서 일본 침략 시기 ‘만행의 기억’과 중국 동북 지역의 민족주의 교육이다. 침화일군 제731부대 죄증진열관(侵華日軍第731部隊罪證陳列館)을 중심으로 세균전의 기억과 중국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의 새 방향을 분석하였다. 네 번째는 중국과 한반도 관계이자 중국의 ‘승리의 논리’로써, 중국 단둥의 항미원조(抗美援朝)기념관과 열사능원을 중심으로 한 항미원조전쟁(抗美

援朝戰爭)에 대한 기억과 기념 활동을 분석하였다. 다섯 번째는 ‘타자 속의 자아 배치’를 주제로 일본 규슈(九州)국립박물관을 통해 박물관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전시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국가박물관이 전시하는 중국 근대사는 그 자체가 국가가 정의하는 근대의 역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국가가 인민 대중에게 기억하기를 요구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그 점은 중국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에서 찾아낼 수 있다.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를 기념하여 중공중앙선전부와 중국국가박물관 등은 1840년 아편전쟁부터 2007년까지의 중국의 근현대사를 〈부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 전시하였고, 2011년 중국국가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상설 전시관이 되었다. 〈부흥의 길〉은 중국의 근현대사를 서양 열강의 침략과 “중화민족”의 저항 속에서 부흥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고, 중국공산당이 영도하여 현대 중국이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한다.

〈부흥의 길〉 근대사 전시실은 ‘아편전쟁 전의 세계와 중국’,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 ‘중국 인민의 항쟁과 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강의 중국 침략 전시물 중 원명원 해안당 분수대의 청동 십이지신상 가운데 2013년 7월에 반환받은 청동 쥐와 토끼상은 열강의 중국 침략과 약탈의 상징으로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부흥의 길〉은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인 저항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중국 인민의 각성’에서는 아편전쟁 당시 사용한 대포 실물을 전시하여 중국인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청·일전쟁 시기 전투에서 숨진 치원함의 함장 등세창(鄧世昌, 1849~1894)과 타이완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한 류용푸(劉永福, 1837~1917)를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뤼순대도살」이라는 유화를 전시하고, “1894년 11월

일본군이 뤼순을 침입하여 며칠 동안 무기를 놓은 중국 병사와 평민 약 2만 명을 도살한 뤼순 대학살은 중국 근대 역사상 첫 번째 대규모 도살 사건”이라며 청·일전쟁 시기 일본이 뤼순에서 저지른 학살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청·일전쟁 시기에 타이완에서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류용푸의 사진과 사용했던 칼 등도 전시하고, “류용푸가 중·일 갑오 전쟁시 타이완을 분할하는 데 반대하는 투쟁에서 부대와 타이완 인민을 인솔하여 공동으로 일본군에 저항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의 주요 내용 중 ‘타이완 전도와 부속 도서 평후(澎湖) 열도가 일본에 할양 되었음도 전시하여 일본과 영토분쟁 지역인 다오위다오가 속한 평후 열도가 ‘청·일전쟁을 틈타 빼앗겼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부흥의 길〉 전시는 타이완과 티베트의 저항도 강조한다. 이는 중국의 영토와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인과 타이완인의 투쟁을 근대 중국에서 열강의 침략에 맞서서 저항한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파악하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부흥의 길〉 전시는 중국 근대사를 열강의 침략과 저항의 역사로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중국의 역사 교과서와 공통성이 있으나, 종래의 혁명사와는 다르게 근대 중국의 ‘부흥’과 관련된 지식인들의 모색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난징대학살기념관의 건립과 애국주의·평화 교육이다. 난징대학살은 일본군이 193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6주 동안 난징에서 중국인을 잔인하게 유린한 것을 일컫는다. 희생자는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난징시의 3분의 1이 파괴되어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3대 학살 중 하나로 불린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은 1982년 일본의 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난징시는 1983년부터 ‘피로 얼룩진 역사를 영원히 난징의 대지에 새겨두자’는 취지하에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념관 건설을 준비하여, 항일 전쟁 승리 40주년인 1985년 8월 15일 개관하였다. 그런

데 1990년대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한 난징대학살 부정론자들은, 우파 정치가와 우익 단체의 후원을 받아 1997년 1월 학살 부정파의 최대 세력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교과서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 기술을 부정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2001년에는 스스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문부성 검정에 합격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난징대학살 부정에 대항하여 기념관은 난징대학살 60주년을 맞은 1997년 12월 11일 2차로 확대 개관하였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이 난징대학살 60주년에 이어 70주년에 계속 확대되고 증축된 배경에는 계속 발굴되고 있는 유해 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난징대학살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일본 측에 대응하여 난징대학살의 진상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 2007년 개관한 신관은 구관의 시설을 중간에 두고 양측에 ‘신전시관’과 ‘평화 광장’을 배치한 기다란 배 모양(和平之舟)으로 만들어졌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은 ‘일본의 중국 침략과 난징 인민 학살의 확증을 충분히 표현하는 전시관’이자 ‘동포의 수난을 애도하는 장소’이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선 상징적 건축을 목표로 건설되었다. 신관 개관 후 일본 총영사가 기념관을 방문하여 “난징대학살기념관의 전시 내용이 일본인의 잔학성이 반복 강조되어 있고, 희생자가 30만이라는 숫자가 더욱 강조된 바, 기념관을 참관하는 일본인들에게 반감을 줄 수 있으니 전시 내용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난징대학살기념관을 전국 문물 보호 기관이자 세계적인 기념성·유적형 역사박물관으로서, ‘세계 일류·국내 최고, 국가 상징적 전쟁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난징대학살기념관은 전쟁의 비참함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평화기념관을 지향하고, 우리나라의 기념관과도 교류하며 중국에서 국제적 평화 교류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난징대학살을 둘러싼 중·일 양국 역사 인식의 이견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

화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역사 체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경을 넘는 평화의 연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외형적 확대나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평화의 개념을 담아내는 이론적 실천적 교육 공간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논문 ‘세균전의 기억과 중국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의 새 방향’은 일제의 중국 침략 시기 세균전의 기억을 항일 역사 교육과 민족주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물로서 731부대진열관의 건설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731부대진열관의 발전 과정은 중국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교육의 진로를 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소재다. 기존 역사박물관이나 전쟁 박물관 등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응한 중국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강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었다. 이것은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족의 단결과 화합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의 이데올로기이자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에 적합한 주제였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 이념을 강조하기보다 애국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국가 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는 편협한 민족주의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반면 세균전의 기억을 통한 애국주의 교육은 중국 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강조하기 어렵고, 피해자로서 중국이 부각된다. 실제로 세균전의 피해는 중국인에게 그치지 않고,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아시아 각국인들에게도 확산되었다. 세균전의 기억을 동아시아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인 셈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 교육이 편협한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적인 연대와 교류를 통해 국제주의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고, 731부대진열관 역시 그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다. 731부대진열관은 세균전을 통해 일제의 잔악성과 단순한 피해자로서의 중국인의 모습을 그

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가치를 떠올리며 세계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부상시키고자 한다. 그와 같은 결실이 최근 전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일본인 고아를 돌본 중국인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전시관 설치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 역사박물관이나 전쟁박물관이 중국인의 영웅적 투쟁을 강조해온 것과는 다른 전략이 구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균전의 기억은 피해자로서의 중국인이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했다는 국제적 애국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한 것이었다. 또한 731부대진열관은 일본, 한국 등지에서 731부대 특별전을 개최하여 동아시아인들의 역사적 기억 속에서 일제의 만행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동아시아 민간 교류와 연대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네 번째 논문은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과 열사능원을 중심으로 중국의 항미 원조 기억과 기념 활동을 분석하였다.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은 전쟁관과 전쟁 지원을 전시한 운동관·북한과의 우의관·영웅열사관을 통해 ‘정의롭고 승리한 전쟁’의 이미지를 전시하고 있다. 기념관은 국가의 공식 기억이 투영된 서술을 전시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애국주의 교육과 혁명 영웅주의를 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념관은 항미 원조의 승리와 항미 원조 과정에서 이룩한 군사·경제 발전과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는 압록강까지 올라온 미군을 다시 38선 아래로 되돌린 군사적 승리, 인민 해방군 재정비와 무기 현대화, 생산 증대와 경제 발전, 대중 동원과 애국주의 강화, 국가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을 지키고 높였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정의로운 전쟁임을 강조하는 전시는 ‘침략에 대한 방어’, 미군의 ‘폭력에 대한 평화 세력’, 미군 폭격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첨단 무기를 가진 미군의 ‘강자에 대한 약자’ 등 이항 대립 구도다. 이항 대립 구도는

중국과 북한의 우호협력만 기억할 뿐, 실제로 중국과 북한 지도부 사이에 있었던 작전 통수권과 철도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은 서술되지 않는다. 항미원조전쟁이 승리로 서술되듯이, 전시된 ‘정전 협정’ 장면 역시 중국군은 승자의 모습, 연합군은 패자의 모습처럼 전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전 협정은 한시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로 정해졌기에 전쟁 당사자 모두에게 ‘승리’나 ‘종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중 간 ‘싸우면서 협상하는 원칙’은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포로 문제를 비롯한 참혹한 결과와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전시관에는 전쟁 포로와 희생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서술이나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호소하는 주장은 보이지 않는다. 애국주의와 혁명적 영웅주의만이 부각되고 있다. 항미원조운동 기간 중국 정부는 전쟁 영웅 기사를 통해 지원군의 희생을 미화함으로써 국민적 애국심과 자긍심을 제고시켰다. 인민 지원군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인민 지원군으로 상징화되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적 헌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기념관은 원래 목적 중 하나인 전몰자를 추념하는 성격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대부분이 과거 전쟁 영웅들을 기념하며 명예롭게 기억하는 공공 의식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내포하는 장소적 특징과 함께 언제든지 한국과 미국을 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억의 충돌이 잠복되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항미원조전쟁의 기억과 기념은 냉전기 ‘항미’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하던 시대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현재 중국의 달라진 국제 위상이나 정체성과 모순된다.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이 변화된 국가 위상에 걸맞게 세계적인 평화 공원으로 재구성되고, 냉전기 이항 대립의 기억이 아닌 다양한 전쟁 기억들의 차이도 전시하며, 한국전쟁 관련 여러 나라의 박물관과 교류·소통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섯 번째 주제인 ‘타자 속의 자아 배치’는 규슈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의 전시를 다루었다. 2005년에 개관한 규슈국립박물관은 전시의 기본 방향을 ‘일본 문화의 형성을 아시아적 시점에서 본다’로 설정했다. ‘국립’으로 설립되었다면 이 박물관이 국가적 정체성과 무관할 수 없을 터인데, 규슈국립박물관은 왜 아시아적 시점에서 일본 문화의 형성을 파악해보겠다는 전시 방향을 잡게 되었을까. 일본 문화와 아시아와의 관계가 규슈국립박물관에서 어떻게 표상되는가. 근래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 간의 불협화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로의 전환기 이래 일본에서는 아시아주의가 활발하게 주창된 바가 있는데, 이 궁금증은 그러한 사상으로서의 아시아주의와 실물의 전시가 그려내는 아시아는 무관할지 아니면 직결될지 하는 의문과도 맞물린다.

이 글은 지방사(local history), 국가사(national history), 지역사(regional history)라는 3가지의 분석 시각을 세우고, 일본의 역사학 연구와 일본 박물관의 발달 과정, 역사학 연구와 전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9세기 말 국가사의 성립 시기는 제국박물관의 성립 시기와 일치하고, 1960년대를 전후한 역사학계의 지방사에 대한 재인식은 1970년대 박물관 설립 붐과 겹친다. 1990년대 초에 지역사가 제창되었고, 그 영향으로 아시아사적 시점을 세운 규슈국립박물관이 등장했다. 규슈국립박물관은 상설 전시를 문화 교류전이라 이름하고 있다. 문화 교류 전시실은 ‘바다의 길, 아시아의 통로’라는 대주제 아래 5개 중주제(기본 전시실)와 11개의 부속 소주제(관련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의 전시는 개관 당초에는 적었다가 점차 늘어서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사의 전시는 일본 역사에서 규슈의 역사가 외래문화의 수용과 전개에서 선진적인 위치를 지녔음을 표상한다. 국가사의 전시는 전시품의 수는 적지만 전시실 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무겁다. 그것은 이문화의 접촉 → 일본의 모방

→ 일본의 독창이라는 프로세스를 말해 주고 있다. 지역사의 전시품은 동아시아의 문화재로, 그것을 일본의 문화재와 비교하거나 연관시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방울♪북’ 코너의 전시다. 이 전시에서는 악기로서 동아시아 문화의 상호 공명을 전하고자 한다. 문화 교류가 공명이라는 발상은 의미 깊다. 왜냐하면 문화 교류를 일방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해역사(海域史, aritime history)에 관한 연구의 많은 축적은 일본 학계의 개성적인 특징이다. 박물관의 대주제는 ‘바다의 길, 아시아의 통로’ 임에도 불구하고, 표류기나 왜구 등 해로에 관한 전시가 없다. ‘규슈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나 한 번의 특별전 이외에는 문화 교류 전시실에서 규슈의 지역별 다양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규슈 지방사 연구자가 박물관 전시에 개입한 경우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슈국립박물관에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나 제국주의 시대의 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문화 교류다. 그럼에도 ‘문화 교류’를 내세우는 박물관의 전시에 빠져 있다. 그것은 일본 학계의 해역사 연구가 전근대에 치중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국가 박물관 분석은 중화주의 중국 민족주의 고양에 따른 중국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731부대진열관은 피해자만이 기억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가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역사 문화’임을 보여준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은 과거의 피해 사실만이 아닌 미래 평화를 위한 기념관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 전시 내용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형성 과정에서의 오류를 파악하였다. 향후 중국과의 역사 문화 교류시 중국의 왜곡된 한국 인식의 문제점을 정정 요청하고 자료 공유 및 협력을 추진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규슈국립박

물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의 전시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박물관이 타자(동아시아)를 어떻게 전시하여야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 그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중국의 ‘부흥의 길’ 탐색

중국국가박물관의 중국 근대사 전시를 중심으로

- I. 머리말
- II. 중국국가박물관과 <부흥의 길> 전시
- III. <부흥의 길> 제1부분 근대 중국 전시
- IV. 맺음말



현대 중국의 '부흥의 길' 탐색

중국국가박물관의 중국 근대사 전시를 중심으로

I. 머리말

최근 중국에서는 '부흥의 길(復興之路)'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전후하여 베이징의 중국 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 <부흥의 길>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2007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중국 중앙TV에서 6부작 역사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이 방송되었다. 이 「부흥의 길」 다큐멘터리는 「대국굴기」¹에 이어 제작되었으며, 1840년 아편전쟁부터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전까지의 중국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다.² 2009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김지훈(金志勳)

중국현대사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대표논저: 『중국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2010, 동북아역사재단), 『서구학문의 유입과 동아시아지성의 변모』(공저, 2012, 선인), 「중일전쟁시기 중국공산당의 한국인식」(2008, 『근현대 전환기 중화외식의 지속과 변용』, 단국대학교출판부) 등.

- 1 「大國崛起」는 2006년 11월 중국 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한 12부작 역사 다큐멘터리로 1500년 이후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9개 대국이 발전하게 된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는 EBS에서 2007년에 「대국굴기」를 방송하였다.
- 2 중국 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한 「부흥의 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于都(2007), 「气势宏大 制作精良—评中央电视台播出的政论片〈复兴之路〉」, 『多媒體』 12, 44쪽; 任學安(2011), 「电视媒体还可以表达什么—由〈大国崛起〉, 〈复兴之路〉, 〈公

1840년 아편전쟁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그린 대형 가극(오페라) 「부흥의 길」도 만들어졌다.³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흥의 길’이란 말은 중국 근현대사를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의 역사라고 보는 중국공산당의 인식을 반영한 말이다. 이는 서양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 속에서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공산당이 지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였고 현재의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현재 ‘부흥의 길’이라는 말은 ‘부흥’이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⁴

2011년 재개관한 중국국가박물관의 근현대사 상설 전시실 〈부흥의 길〉도 중국 중앙TV에서 방영된 6부작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전시다.

중국국가박물관은 2012년에 100주년을 맞이한 중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베이징의 톈안먼(天安門) 광장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국가박물관은 톈안먼 광장 서쪽에 있는 인민대회당을 마주보고 있다. 중국국가박물관

은 2003년 2월 기존의 중국역사박물관과 중국혁명박물관을 합병하여 개관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에 소속되어 있고 역사와 예술을 모두 중요시 하며, 수집·전시·연구·고고학·공공 교육·문화 교류를 일체화한 종합 국가 박물관이다.

중국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 전시는 중국인의 근현대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흥의 길〉 전시를 소개하고 이 전시가 공산당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교육의 생동적인 교실이라고 평가하거나⁵ 중국 인민혁명군사박물관의 〈부흥의 길〉 전시와 중국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 전시의 과정과 특징을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소개한 연구가 있다.⁶ 이외에도 청 왕조 멸망 시기의 문물을 다루거나⁷ 중국국가박물관 〈부흥의 길〉 전시에 추가된 최근의 전시물을 소개하는 연구도 있다.⁸ 기존의 연구들은 중국 관변의 입장에서 〈부흥의 길〉의 전시를 개괄하고 의의를 설명하거나 특정 시기의 유물들만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중국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 전시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에서 직접 관장하여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어 정치적인 선전과 함께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부흥의 길〉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이 ‘부흥’하였다는 점을 강조

司的力量)引发的思考, 『電視研究』 1, 33~34쪽; 任學安(2008), 「用纪录片的语法重现历史—兼谈影视史学在〈大国崛起〉, 〈复兴之路〉中的实践」, 『中國廣播電視學刊』 8, 22~29쪽. 이 다큐멘터리 「부흥의 길」은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EBS에서 6부작을 방영하였다.

3 이 가극은 ‘산하제(山河祭)’, ‘열혈부(熱血賦)’, ‘창업도(創業圖)’, ‘대조곡(大潮曲)’, ‘중화송(中華頌)’의 5부분으로 되어 있고 근대 이후 중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특히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의 지도 아래 발생한 역사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王曉暉(2013), 「大型音樂舞蹈史詩《復興之路》評析」, 『青春歲月』 12, 77쪽.

4 최근 중국에서는 ‘부흥의 길’이라는 말이 경제나 민족의 ‘부흥의 길’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부흥의 길’, 술 산업의 ‘부흥의 길’ 등 일상용어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孫亦軍(2004), 「探索東北經濟復興之路」, 『稅務與經濟(長春稅務學院學報)』 06; 胡美香(2013), 「從《賽爾号》的成功看國產動畫電影復興之路」, 『電影文學』 06; 黃學高(2008), 「從定位的角度思考貴州白酒企業復興之路」, 『釀酒科技』 08.

5 曹欣欣(2011), 「波瀾壯闊的民族史詩—中國國家博物館〈復興之路〉基本陳列綜述」, 『中國國家博物館館刊』 11, 136~146쪽.

6 이 때문에 〈부흥의 길〉 전시에서 부흥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된 주제들은 축소되거나 삭제되었다. 馬英民(2009), 「再現中華民族復興的壯偉畫卷—大型主題展覽“復興之路”從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到中國國家博物館」, 『中國博物館』 2, 51~66쪽.

7 曹欣欣(2011), 「清王朝覆亡的文物見証」, 『中國國家博物館館刊』 9, 7~16쪽.

8 丁純怡(2012), 「國家博物館〈復興之路〉大型主題展覽文物征集」, 『博物館研究』 1, 64쪽.

하는 중국 정부의 중국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은 모두 5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1840~1911년 신해혁명 전까지를 다룬 제1부분 ‘중국이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 빠지다’를 중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II. 중국국가박물관과 <부흥의 길> 전시

1. 국립역사박물관 준비처에서 중국국가박물관의 설립까지

중국국가박물관의 역사는 중화민국이 막 성립된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중엽 중국 사회가 근대화되기 시작하면서 박물관이라는 새로운 문물이 중국에 소개되었다. 19세기 말 Kang Youwei[康有爲] 등 유신파 인사들은 근대적 박물관 건립을 제의하였다. 이후 실업가 Zhang Sen[張謇] 등이 상서를 올려 베이징[北京]에 ‘제실박물관(帝室博覽館)’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의는 후에 국가에서 공공 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여론을 환기시켰다.⁹

1912년 6월 중화민국 임시 정부 교육총장이었던 Cai Yuanpei[蔡元培]는 교육부 사회교육사(社會教育司)에서 주관하여 베이징에 박물관을 설립할 준비를 하였고, Lu Xun[魯迅]이 국자감(國子監)을 박물관 부지로 선정하였다.¹⁰ 1912년 7월 9일 중화민국 정부 교육부는 국립역사박물관 준비처(國立歷史博物館 籌備處)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국자감에 자리 잡았다. 국립역사박물관 준비처 주임은

9 呂章申(2012), 『中國國家博物館百年間史 1912~2012』, 中華書局, 2~4쪽.

10 百年國博 中國國家博物館百年間史與成果展, 中國國家博物館 전시.

문화가이자 학자였던 Hu Yuzhen[胡玉縉]이었다.

1917년 중화민국 정부 교육부는 국자감이 교통도 불편하고 공간도 좁아서 박물관 준비처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1918년 7월 자금성의 단문(端門)과 오문(午門)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1920년 11월에 국립역사박물관(國立歷史博物館)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당시 박물관은 오문의 성루에 진열실을 마련하였고 오문 아래의 동편과 서편에 사무실을 두었다. 오문의 동편과 서편의 조방(朝房)에는 저장실을 만들었고, 단문 성루에는 무겁거나 큰 문화재를 보존하였다. 이 시기 국립역사박물관은 57,375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립박물관은 1926년 10월 10일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이 시기의 전시물은 자금성에 보존되어 있던 유물과 명나라와 청나라의 내각에 수장되어 있던 공문서, 1921년 허베이성 쥐루(河北省 巨鹿)의 송대 성곽 유적과 허난성 신양 창타이(河南省 信陽 長台關) 등지의 고고 조사 발굴 유물 등이었다. 1933년까지 국립역사박물관의 소장 유물은 20여만 점으로 증가하였다.¹¹

1949년 1월 국민당군이 베이징에서 철수하고 중국인민해방군이 입성하였다. 1949년 10월 국립역사박물관은 국립베이징역사박물관으로 개명하였고, 중앙인민정부 문화부에 소속되었다. 1950년 3월 중앙혁명박물관 준비처(中央革命博物館 籌備處)가 베이하이[北海]의 환청(團城)에 설립되었다가 자금성 서화문 영무전(武英殿)으로 이전하였다. 1958년 8월 중공중앙(中共中央,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은 중국역사박물관과 중국혁명박물관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1958년 10월 톈안먼 광장 동쪽에 박물관 건설을 시작하여 1959년 8월 준공하였다. 이 박물관은 총 건축 면적이 65,000m²에 달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하는 10대 건축물의 하나가 되었다.¹² 1959년 10월 2일 ‘중국

11 百年國博 中國國家博物館百年間史與成果展, 中國國家博物館 전시.

통사진열(中國通史陳列)을 신관에서 공개하였다.¹³ 1960년 8월 베이징역사박물관은 중국역사박물관으로 개명하였고, 중앙혁명박물관도 중국혁명박물관으로 개칭하였다. 1969년 9월 중국역사박물관과 중국혁명박물관은 합병하여 중국혁명역사박물관이 되었다.

1983년 초 중국역사박물관과 중국혁명박물관은 다시 분리되었다. 그리고 2003년 2월 중국역사박물관과 중국혁명박물관을 기초로 다시 중국국가박물관이 설립되었다.¹⁴ 중국국가박물관은 11차 5개년 계획의 중점 건설 항목¹⁵으로 2007년 3월 확장 공사가 시작되어 2010년 12월 완공되었다. 확장 공사를 한 이후 중국국가박물관의 총 면적은 약 20만m²로, 세계 최고의 시설과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2011년 3월 1일 4년 동안 25억 위안의 공사비를 들인 중국국가박물관이 재개관하였다.¹⁶ 중국국가박물관은 106만 점에 달하는 소장품과 48개의 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100여만 점의 유물 가운데 70여만 점은 고대 문물이고, 30여만 점이 혁명과 관련된 유물이다.¹⁷ 중국국가박물관은 '고대 중국'과 '부흥의 길'이라는 두 가지 상설 전시관을 만들었고, 10여 개의 각종 예술부문 기획 전시 및 국제 교류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¹⁸ 2012년 3월 1일 중국국가박물관



〈그림 1〉 중국국가박물관

은 정식으로 신관 개관식을 거행하였다.¹⁹

2. '부흥의 길'의 전시

2011년 3월 1일 증축되어 새로 개관한 중국국가박물관의 중국 근현대사 부분의 전시 제목은 〈부흥의 길〉이다. 〈부흥의 길〉을 전시한 목적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신중국이 건립되고, 사회주의 기본 제도가 확립되었으며, 개혁·개방을 통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 이루어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간부와 대중, 청소년

12 1950년대 중국 베이징의 10대 건축물은 인민대회당, 중국혁명과 역사박물관,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 전국농업전람관, 베이징역, 베이징공인체육관, 민족문화궁, 민족반점, 조어대국빈관, 화교대학(원 건물은 철거됨)다.

13 李萬萬(2012), 「百年國博的回顧與展望-王宏鈞先生訪談」, 『中國國家博物館館刊』 1, 144쪽.

14 2003년 2월 28일 중국국가박물관 현판식을 하였고,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장쩌민이 현판을 썼다. 中國國家博物館建築設計展, 中國國家博物館 전시.

15 賈安來·陳守田(2011), 「爲了中華文化瑰寶-北京城建安裝公司承擔中國國家博物館改擴建工程機電安裝任務紀實」, 『企業風采』 6, 16쪽.

16 「光影中的華夏之旅 國家博物館」, 『室內設計與裝修』 06, 1쪽.

17 李萬萬(2012), 앞의 책, 148쪽.

18 중국국가박물관 사이트 <http://kr.chnmuseum.cn/tabid/697/MoreModuleID/2385/MoreTabID/695/Default.aspx>.

19 중국국가박물관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呂卓申(2012), 앞의 책.

에게 애국주의 교육, 민족정신과 시대정신 교육을 하고,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마르크스주의, 공산당,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의문과 비난에 대응한 하기 위해 근대 이후 중국이 걸어온 역정을 〈부흥의 길〉 전시로 표현한 것이다.²⁰

2007년 3월 중공중앙선전부, 중공중앙문헌연구실, 중공중앙당사연구실,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문화부, 재정부, 중국인민해방군총정치부, 중공베이징시위원회에서는 〈부흥의 길〉 대형주제전람회소조를 만들었다.

중공중앙선전부 8개 부문 위원회의 지도 아래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를 전후하여 〈부흥의 길〉 전람을 준비하였다. 당시 중국국가박물관이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2007년 10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 〈부흥의 길〉 전람을 하였다. 2007년 〈부흥의 길〉은 80일 동안 전시하였고, 관람 인원이 260만 명에 달했다. 〈부흥의 길〉은 2008년 3월 1일부터 다시 개방하여 2009년 5월 24일 폐막까지 340만 명이 관람하였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6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9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다시 전시를 하여 약 30만 명이 추가로 관람하였다. 이후 중국공산당 지도자들과 중공중앙선전부 등은 일부 전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중국국가박물관에서 〈부흥의 길〉 전시를 계속하고 있다.²¹

〈부흥의 길〉 전시에는 청화미술학원에서 전람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였고, 중앙방송국에서 영상 사진 전람을 담당했다. 전람 계획과 준비에는 중공당사연구실, 중앙문헌연구실,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중국인민대학, 베이징사범대학, 중앙당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와

20 馬英民(2009), 앞의 책, 50~51쪽.
21 曹欣欣(2011), 앞의 책, 136~137쪽.

동시에 각종 유물과 사진 각 10만여 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하여 전시물을 선택하였다.²²

2007년에 시작된 중국 인민혁명군사박물관의 〈부흥의 길〉 전시는 2011년 중국국가박물관으로 이전하여 재개관하였다. 장소가 상대적으로 협소했던 군사박물관의 〈부흥의 길〉 전시가 원래 600여 점의 유물과 다수의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에 비해서 중국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은 전시 유물과 사진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 전시는 유물 1,280여 점과 사진 870여 점으로 확대되었다.²³ 예를 들면 근대 부분에서는 영국의 양말 짜는 기계(織襪機), 한황(韓滉)의 명작 「오우도」를 비롯한 새로운 유물과 사진 등의 전시물이 증가하였다.²⁴ 특히 2007년 이후에 발생한 원촨(汶川) 지진,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세계 박람회, 우주 개발 등과 관련된 전시가 증가하였다.²⁵

〈부흥의 길〉 상설 전시는 1840년 아편전쟁 이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깊은 늪에 빠져 있던 중국 각계각층 인민들이 굴욕과 고난을 극복하고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했던 각종 노력, 특히 중국공산당의 지도로 전국 소수 민족의 독립과 해방, 국가의 부강과 인민들의 행복을 쟁취하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회고를 통해 역사와 인민들이 어떻게 마르크스주의, 중국공산당, 사회주의의 길, 개혁·개방을 선택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또 역사와 인민이 왜 반드시 시종일관 흔들림 없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쳐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과 이론 체계를 견지할 수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

22 馬英民(2009), 앞의 책, 51쪽.
23 「中國國家博物館重新開放」, 『榮寶齋』 05, 248쪽.
24 馬英民(2009), 앞의 책, 63쪽.
25 丁純怡(2012), 앞의 책, 61쪽.

여준다²⁶고 소개하고 있다.

〈부흥의 길〉 전시는 이전의 중국혁명박물관의 전시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의한 ‘부흥’을 강조하고 있다. 근대 부분은 1840년 아편 전쟁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 백여 년의 역사를 2,300건의 유물과 문헌, 사진, 도표, 모형, 그림, 조각 등으로 전시하고 있다. 당대 부분은 근대 부분과 이어져서 후진타오(胡錦濤) 정부까지를 다루고 있다.

〈부흥의 길〉은 다음과 같이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분은 1840년 아편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신해혁명 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서양의 자본주의 발전과 봉건적인 중국의 낙후를 대비시키고 열강의 중국 침략과 이에 따른 고통과 ‘중국 인민’의 침략에 대한 항쟁을 강조하고 있다.

제2부분은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여 중국이 어떠한 출로를 찾고 있었는가를 주제로 쑨원(孫文)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가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하여 중화민국을 건국하였지만 위안스카이의 독재 등으로 공화제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3부분은 1921년 중국공산당의 창당으로 중국공산당이 민족 독립과 해방의 역사적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창당과 국·공 합작, 제1차 국·공 내전과 공산당의 장정, 항일전쟁, 제2차 국·공 내전을 전시하고 있다.

제4부분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부터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의 종결까지를 전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토지 분배 등 사회 경제적 변화, 공업화와 과학의 발전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대혁

26 중국국가박물관 사이트 <http://kr.chnmuseum.cn/korean/tabid/705/Default.aspx?ExhibitionLanguageID=148>.

〈부흥의 길〉 전시 주제

부분	시기	주제
제1부분	1840~1911	중국이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 빠지다
		제1단원: 아편전쟁 전의 세계와 중국
		제2단원: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에 대한 침략 제3단원: 중국 인민의 항쟁과 각성
제2부분	1911~1921	구망도존의 길 탐색
		제1단원: 국가의 출로를 초기에 탐색하다
		제2단원: 신해혁명으로 봉건제를 타도하다 제3단원: 신해혁명의 실패와 신문화 운동의 흥기
제3부분	1921~1949	중국공산당이 민족의 독립과 인민 해방의 역사적 중임을 담당하다
		제1단원: 천지개벽의 대사변
		제2단원: 중국 혁명의 새로운 길을 탐색
		제3단원: 전 민족 항전의 굴하지 않는 튼튼한 기둥(中流砥柱) 제4단원: 신중국을 위한 분투
제4부분	1949~1977	사회주의 신중국의 건설
		제1단원: 중국 인민이 일어났다
		제2단원: 사회주의 기본 제도의 확립
		제3단원: 사회주의 건설을 탐색하는 가운데 곡절 있는 발전 제4단원: 국제적 지위의 제고와 국제 환경의 개선
제5부분	1978~2010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다
		제1단원: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길 개척
		제2단원: 개혁·개방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 창건 제3단원: 전면적으로 소강 사회 건설의 새로운 장을 열다

명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제5부분은 1978년 제11기 3중대회 이후 현재까지의 개혁·개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덩샤오핑(鄧小平)을 중심으로 경제 건설과 개혁·개방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을 소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부흥의 길〉 전시실 첫 공간에는 2009년 티안취이위(田奎玉)²⁷가 만든 「고대

문명(古代文明)», 「오늘날의 휘황(今日輝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爲了中華民族的偉大復興)」라는 세 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고대 문명(古代文明)」과 「오늘날의 휘황(今日輝煌)」은 높이 6.6m, 길이 66m의 작품으로 전시실의 삼면을 감싸고 있다. 왼쪽 벽면은 「고대 문명」으로 채도(彩陶), 중국의 4대 발명 즉 종이, 활자, 나침반 등과 은나라의 청동 정(鼎) 등 청동 문화, 만리장성과 병마용, 도강언(都江堰), 장형의 지동의(地動儀), 혼천의(渾天儀), 둔황의 막고굴과 낙타 대상들, 정화의 항해 등 중국 고대 문명의 찬란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실의 오른쪽에는 두 개의 기둥이 오성홍기를 떠받치고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라는 티안취이위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높이가 6.5m이고, 길이는 13m이며, 두 기둥이 휘날리는 오성홍기를 받치고 있는 형상인데 중국의 부흥을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루어냈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벽면에는 오늘날의 휘황이 조각되어 있다. 오늘날의 휘황에서는 히말라야 산맥, 칭장싼샤 댐과 칭짱 철로, 고속 도로, 남극 탐험, 국방 건설,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 우주 항공 기술을 상징하는 인공위성이 묘사되어 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과 올림픽 엠블렘 등을 통해서 오늘날 중국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부흥의 길> 전시관 입구의 구성은 이러한 조각물을 통해서 과거 전통 시대 중국의 문명의 번영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부흥, 오늘날의 발전 등 전시의 기본 방향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흥의 길> 전시실의 머리말(前言)은 다음과 같이 중국 근현대를 요약하고 있다.

27 田奎玉(1954~)은 중국예술연구원, 중국설계예술연구원의 초빙 연구원이고 현재 루쉰 미술학원 상무 부원장이며 교수다. <http://baike.baidu.com/view/695491.htm>.



<그림 2>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

부흥의 길 전연

중화민족은 근면하고 용감하며 지혜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인류 문명에 불멸의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민족 흥왕과 국가의 강성은 대대로 중화남녀의 요구다.

부흥의 길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심연에 빠져들어 중국의 각 계층 인민이 고난의 항쟁을 하여 민족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탐색을 하였고, 특별히 중국공산당의 영도로 전국 각 민족 인민이 민족·독립·민족 해방·국가 부강·인민 행복을 쟁취하는 빛나는 역정으로 역사와 인민이 어떻게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하고 중국공산당을 선택하였으며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하였고 개혁·개방을 선택하였는가를 충분히 보

여주었다. 시종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가치를 동요 없이 높이 들어 견지해야 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체계를 동요 없이 견지해야 한다.

오늘날 중화민족은 세계 동방에 우뚝 솟아올랐고 위대한 부흥의 휘황한 전경이 이미 우리들 눈 앞에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아들딸들의 꿈과 요구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부흥의 길〉은 머리말에 중화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었지만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가 되었고, 이후 인민들이 항쟁을 하여 민족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며, 결국 중국공산당의 영도로 민족의 독립과 민족 해방,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쟁취하는 역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마르크스주의와 중국공산당을 선택하고 사회주의의 길과 개혁·개방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공산당의 정책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흥의 길〉은 중국집권자들의 선전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Ⅲ. 〈부흥의 길〉 제1부분 근대 중국 전시

1. 아편전쟁 전의 세계와 중국

〈부흥의 길〉 전시는 모두 5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제1부분은 ‘중국이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 빠지다’다. 제1부분에서는 1840년 아편전쟁부터 19세기 말까지의 60여 년간의 시기를 전시하고 있다. 제1부는 모두 3단원으로 나뉘어 있

다. 제1단원은 ‘아편전쟁 전의 세계와 중국’, 제2단원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 제3단원 ‘중국 인민의 항쟁과 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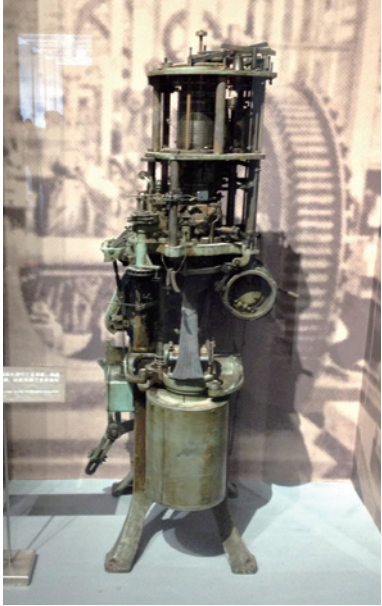
제1단원은 ‘아편전쟁 전의 세계와 중국’은 다음과 같이 이 시기를 요약하고 있다.

17세기 이후 부르주아 계급 혁명과 공업 혁명이 계속 흥기하여 서방 자본주의 국가는 신속하게 발전했으며 대규모 대외 확장과 식민 약탈을 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강건성세의 중국 봉건 사회는 말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청 왕조는 쇠국정책과 생산 양식의 낙후로 사회정체와 계급모순이 첨예화했다. 중국과 서방 자본주의 강국 사이의 차이는 갈수록 커졌다.²⁸

제1부분의 ‘아편전쟁 전의 세계와 중국’ 전시에서는 중국과 서양을 대비시키고 있다. 즉 당시 발전하고 있던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와 낙후한 봉건 전제군주제 국가인 청나라를 대조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서유럽의 발전에 대해서는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과 식민 확장’에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 혁명, 식민 정책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1860년대 영국이 공업 혁명으로 세계 제일의 자본주의 강국이 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사용하던 양말 짜는 기계(織袜機)를 실물로 전시하고 있다. 이 영국의 양말 짜는 기계는 당시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전시되어 있다.

영국 의회 그림에서는 1640년 영국에서 부르주아 혁명이 발생하여 세계 역사에서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는 표지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1789년 프랑스 파리의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그림을 제시하고

28 中國國家博物館(2009), 『復興之路』, 北京: 文物出版社, 3쪽.



〈그림 3〉 양말 짜는 기계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부르주아 계급 혁명이 발생하여 부르주아 계급 정권이 건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양의 식민정책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그림을 전시하고 서양 식민주의자들이 확장과 약탈로 원시 축적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영국 식민 정책의 주요 기구였던 1800년 런던의 동인도 회사 그림을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엔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한 “부르주

아 계급이 100년에 미치지 못하는 계급 통치 과정에서 창조한 생산력이 과거 모든 세대가 창조한 전체 생산력보다 더 많았고 컸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이 전시실의 바닥에는 세계 지도를 그려 놓았는데 18세기 중엽 유럽의 식민지 확장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서유럽이 민주주의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 식민지 확장에 나서고 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낙후해 있었다고 하면서 비교하고 있다. ‘중국 봉건 사회의 쇠락’에서는 자본주의 제도가 서양국가에서 확립되고 있을 때 청 왕조는 고도로 권력이 집중된 봉건 군주 전제 제도를 고수하고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중국 황제 체제 권력을 집중적으로 체현했다는 자금성의 태화전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아래에는 청 왕조 중후기 토지검병이 나날이 심화되어 인구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지주 계급이 전국 토지의 80%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농민의 토지 전당 문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청 정부의 호부에서 발행한 연납 문서를 전시하고 청 왕조가 나날이 부패하여 매관 행위가 성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청 왕조가 명나라의 팔고문을 연용하여 사인(士人)의 사상을 엄중하게 금지했다고 하면서 1885년의 산시성 향시 답안지를 전시하고 있다. 그 옆에는 청 왕

조의 통치자가 문화 전제주의를 실행했다고 설명하면서 건륭 41년 11월 16일 건륭제가 반포한 금서 단속 조서를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 왕조 군인(팔기)들의 칼과 활을 전시하고 청나라의 무기가 낙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 왕조의 생산 양식이 낙후하여 자급자족적 자연 경제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였다고 하면서 농사짓는 그림과 가내 수공업으로 수공 직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쇄국정책을 시행하여 광저우(廣州)로 무역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하면서 대외 무역의 특권을 향유하던 광둥 13 공행(公行)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실에서는 건륭제가 궁정 화가에게 그리도록 한 「만국래조도」를 전시하고 있다. 이 그림의 설명에서는 청조 통치자는 천조상국(天朝上國)이라고 자부하고 서양에서 발생한 거대한 변화를 알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



〈그림 4〉 중국 봉건사회의 쇠락

그림은 원단(元旦)에 만국의 사절이 내조(來朝)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묘사한 허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그림은 당시 청 왕조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화주의 사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시실의 전시는 서양이 민주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동안 중국의 청 왕조가 토지 집중이 심화되고 정치는 부패했으며, 경제와 군대도 모두 낙후한 봉건 국가였다는 점을 대비시키고 있다.

〈부흥의 길〉 전시실에는 역사 유물이나 사진과 함께 과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그린 그림과 조각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전시실에는 청 왕조의 전제 정치와 낙후성을 보여주는 「청 왕조의 전제 통치(清王朝的專制統治, 2009)」²⁹라는 유화를 걸어 놓았다. 이 그림은 루쉰미술학원(魯迅美術學院)의 리푸라이[李福來]³⁰ 원장이 지도하여 저우푸셴[周福先] 교수가 그린 작품이다. 도광(道光) 연간 서양 열강들이 청 왕조를 무력으로 압박하면서 내외의 환에 시달리고 있던 청 왕조였지만 그림 속의 황제는 옥좌에 높이 앉아서 대신들을 내려다 보고 있고, 대신들이 고개를 숙인 가운데 한 명의 대신이 포복하고 있다. 시위들은 엄숙하게 서 있고 태감이 황제를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데 지는 태양의 햇빛이 황제를 비추고 있다. 이 그림은 당시 청 왕조의 봉건적 전제 통치하에 중국이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외형상으로는 의연한 듯이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양말 짜는 기계가 영국 자



〈그림 5〉 청 왕조의 전제 통치

본주의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청 왕조의 전제 통치」라는 유화는 당시 중국 청 왕조의 낙후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전시되고 있다.

그 아래에는 1717년 강희 연간 청 정부가 반포한 중국인 외국 무역 금지령과 1831년 도광 연간 청 정부가 반포한 중국과 외국의 교류를 금지한 방법인 인장정(防范夷人章程)을 전시하고 있다. ‘아편전쟁 전의 세계와 중국’은 서양의 민주주의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 식민지의 확대 등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었지만 청 왕조는 봉건 전제 군주제 아래에서 정부의 부패와 자급자족적이고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농업 경제 체제 속에서 점차 낙후하였고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대조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중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청 왕조가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전통적 관념을 고집하면서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누르는’ 정책을 실시하여 민간 상업의 발전을 억누르고 제한하였다고 한다. 특히 청조 통치자들은 서양의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을까봐 근심하여 ‘나라의 문을 닫아걸고 쇠국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외 무역을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광둥성 광저우에 ‘13행’

29 <http://www.baike.com/wiki/%E6%B8%85%E7%8E%8B%E6%9C%9D%E7%9A%84%E4%B8%93%E5%88%B6%E7%BB%9F%E6%B2%BB>.

30 1938년생인 리푸라이[李福來]는 루쉰미술학원 교수이고 랴오닝성문사연구소(遼寧省文史研究館) 관원이다. 루쉰미술학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닥터 노만 베크슨」, 「적벽 대전」, 「제남 전투」, 「삼대 전역」, 「정강산 혁명 투쟁」, 「회해 전역」, 「갑오전쟁」 등의 작품들이 있다. <http://www.baike.com/wiki/%E6%9D%8E%E7%A6%8F%E6%9D%A5>.

을 두어 무역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 쇄국정책은 서양 식민주의자들의 침략 활동에 대해 일정한 자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쇄국정책은 서양 국가가 부르주아 계급 혁명과 산업혁명을 진행하면서 생산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대응하여 서양의 선진적 과학 지식과 생산 기술을 배우지 못하여 중국이 뒤떨어지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³¹ 이 교과서는 중국이 서양에게 뒤떨어지게 된 원인으로 전통적인 중농역상정책과 쇄국정책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부흥의 길>에서는 중국의 전제 군주 체제와 부정부패, 낙후한 산업, 팔고문 위주의 과거 제도, 군사력의 낙후, 쇄국정책, 중화주의적 사고 방식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열강의 중국 침략

제2단원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에서는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840년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킨 후 제국주의 열강은 재부를 약탈하고 인민을 도살했으며, 청 정부에 불평등조약 체결을 강요하여 경제, 정치와 문화 특권을 빼앗았고,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가 되어 갔다. 제국주의와 중화민족의 모순, 봉건주의와 인민대중의 모순은 근대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다.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의 부강과 인민

31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12),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七年級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118쪽.

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근대 이래 중국의 두 가지 역사적 임무다.³²

제2단원에서는 첫 부분에서 아편전쟁을 설명하고 있다. 광둥의 아편 밀무역선 그림을 전시하고 서양 열강이 무력을 앞세워 중국에 대량의 아편 밀무역을 하여 무역에서 불리했던 국면을 변화시켰다고 하면서 1820~1840년까지 매년 중국의 백은 500만 냥이 외국으로 유출되었는데 청 정부 재정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전시실에는 아편 파이프 등 아편을 피우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실물로 전시하고, 아편이 대량 유입되어 중국인의 심신건강을 해치고 사회 생산력을 파괴했으며, 국가적 위기를 격화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1839년 6월 임칙서(林則徐)가 도광제에게 보낸 주절(奏折)에는 임칙서가 영국과 미국 상인이 가지고 있던 2만여 상자의 아편을 몰수하여 파괴한 경과를 보고하고 도광제가 붉은 글씨로 알겠다고 준비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1840년 4월 영국 의회가 중국의 아편 금연을 구실로 중국 침략전쟁안을 통과시켰고, 6월 아편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1841년 1월 영국군이 후먼(虎門) 사각 포대를 공격하는 그림을 게시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19세기 전반 영국이 강대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공산품을 판매하고 염가의 공업 원료를 약탈하기 위해 침략의 예봉을 중국으로 돌렸다고 하면서 영국이 중국에 모직물 등을 수출하였지만 판매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편 밀무역을 하였다고 한다. 아편으로 인하여 대량의 중독자가 발생하였고, 1838년에는 아편 수입이 은 519만여 냥에

32 中國國家博物館(2009), 앞의 책, 10쪽.

달하였다고 한다.³³

아편전쟁 결과 1842년 체결된 난징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 홍콩 섬을 영국에 할양
- 영국에 2,100만 은원³⁴ 배상
-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다섯 곳의 통상항 개방
- 영국 상인 수출입 세금 협정
- 공행 제도 폐지

그 아래에는 난징조약 체결 모습을 그린 그림을 게시하고 1842년 8월 청 정부가 중국 근대 역사상 첫 번째 불평등 조약인 중·영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 역사 교과서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봉건 사회에서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되기 시작하였다.”³⁵라고 서술하고 있다.

제2차 아편전쟁은 1856년 10월 영국과 프랑스가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1857년 영국군이 광저우를 침범한 그림을 게시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1859년 헨진의 다구커우[大沽口] 포대를 지키고 있던 청군이 영국군의 침범에 대한 군정 보고서와 1860년 10월 프랑스군이 베이징 가두를 침략한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33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13),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八年級 上冊』, 人民教育出版社, 2~3쪽.

34 은원(銀元)은 에스파니아 은화다.

35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13), 앞의 책, 5쪽.

이 전시실에는 1786년 원명원 화책의 석일승경(昔日勝景)의 십이지신상을 보여주고, 위에는 파괴된 후의 원명원 사진을 전시하여 비교하고 있다.

중국 역사 교과서도 원명원의 해안당 석일승경의 십이지신상 그림을 보여주고 침략자들이 원명원의 보물을 약탈하고 불질렀다고 하면서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프랑스 대작가 위고는 분노에 넘쳐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폭행을 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느날 두 강도가 여름 궁전에 덮쳐들었다. 한 놈은 약탈하고 다른 한 놈은 여름 궁전에 불을 질렀다. 원래 승리는 한 차례의 약탈이었다. …… 한 승리자는 주머니마다 뚝뚝 쑤셔 넣었고 다른 한 승리자도 그자처럼 상자마다 가득 채워 넣었다. 그리고 나서 그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기고만장해서 유럽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두 강도가 한 행위다. 장래에 재판에 회부될 때 한 강도는 사람들이 프랑스라고 하고, 다른 한 강도는 영국이라고 한다.”³⁶

이러한 교과서의 서술은 제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 약탈당한 원명원에 대해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을 빌어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과 약탈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 교과서는 활동과 탐구에서 영화 「원명원을 불사르다(火燒圓明園)」 영화를 관람한 다음 인상이 제일 깊은 장면을 서술하고 감상을 말하도록 하고 있다.³⁷

이 전시실에는 최근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전시물이 전시되어

36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13), 위의 책, 7~8쪽.

37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13), 위의 책, 10쪽.



〈그림 6〉 원명원의 청동 쥐 머리와 토끼 머리

있다. 2013년 6월 28일에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원명원의 십이지신상 가운데 청동 쥐와 토끼상이다.³⁸ 청나라 건륭황제 때 원명원 해안당(海晏堂) 대수법(大水法) 분수대의 십이지신상은 시간에 맞춰 물을 뿜어냈다고 하는데 이탈리아인 주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ione)가 설계한 것이었다.

1860년 10월 제2차 아편전쟁 때 베이징을 침략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황제의 별궁인 원명원을 점령하면서 청동 십이지신상을 약탈하였다. 이 가운데 청동으로 만든 쥐와 토끼 조각상은 원명원에서 약탈당한 뒤 행방이 묘연

38 中國國家博物館(2013), 「圓明園青銅鼠首兔首入藏我館在“復興之路”陳列中展出」, 『中國國家博物館館刊』 8, 156~157쪽.

했으나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이 소장하고 있다가 그가 사망한 후에 그의 동업자인 피에르 베르주가 경매에 내놓으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중국 측은 약탈해간 중국의 문화재는 즉각 반환되어야 한다며 2009년 2월 19일 경매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프랑스 법원은 2월 23일 중국 측 유럽증화예술보호협회(APACE)에서 제기한 원명원 청동상 경매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과 프랑스 간 갈등은 경제 분야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2월 24일 104인의 기업인으로 구성된 ‘중국 구매단’을 유럽으로 파견했으나 프랑스는 방문 지역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2009년 1월 원자바오 총리의 유럽 순방 때 사르코지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에 항의하는 뜻으로 프랑스를 방문국에서 제외했으며, 각종 구매 계약도 취소했다.³⁹

프랑스는 엘리제궁에서 열려던 중국·프랑스 수교 45주년 기념식을 취소해야 했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중국과 프랑스 우정 만세’라는 기고문을 화교 신문에 게재하며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는 처지로 몰렸다.⁴⁰

2009년 2월 파리 크리스티 경매에 매물로 나와 분노를 일으켰던 원명원의 청동 쥐 머리와 토끼 머리는 각각 1400만 유로(200억 원)에 낙찰되었다. 그러나 2013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수행한 프랑수아 앙리 피노 프랑스 PPR그룹 회장이 베이징에서 청나라의 십이지신상 중 쥐 머리 청동상과 토끼 머리 청동상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프랑스가 개인 기증 형식으로 돌려주기로 한 것은 중국이 전날 에어버스사의 항공기 60대를 구매한 것과

39 원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합치자는 뜻에서 대규모 구매단 파견을 약속한 바 있다.
40 「이번엔 문화재 싸움 …… 중국·프랑스 ‘3차 한랭 전선」, 『한국경제신문』(2009. 3. 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30509851>.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⁴¹

이로써 프랑스 정부는 에어버스를 판매하고 중국에 개인 기증 형식으로 문화재를 반환하여 국가가 무상으로 반환한 선례를 남기지 않게 되었다. PPR그룹은 세계 최대의 사치품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 중국인들이 반환을 희망하던 문화재를 반환하여 이미지 개선 등 막대한 광고 효과를 거둘수 있게 되었다.⁴²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이 반환을 원했던 문화재를 돌려받아서 중국의 국력 신장과 국제적 위상을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청동 쥐 머리상과 토끼 머리상은 이후 중국의 해외 문화재 반환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도 중국이 약탈당하였던 원명원 문화재에 대해서 자유 열독 카드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영국·프랑스 연합군은 원명원을 점령한 후 원명원 내의 문화재를 마구 약탈하고 파괴하였다. 후에 침략자들은 약탈한 문화재를 집중하여 공개적으로 염가에 경매하였다. 경매된 어떤 문화재는 여러 곳을 거쳐 세계 각지의

41 문화재 무상 반환의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해 완강히 청동상 반환을 거부했던 프랑스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에어버스 구매와 관련이 있다. 4월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랑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은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항공기 60대 구매 의향서에 사인이 이루어졌다. 염운옥(2013. 7. 7), [글로벌 포커스-염운옥] 어떤 귀환, 『국민일보』, <http://m.kukinews.com/view.asp?gCode=news&arcid=0007347557&code=11171331>.

42 피노 회장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용 수요가 많았던 구찌 등의 중국 내 매출이 줄고, 인식도 나빠지자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증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인터넷 포털 텡쉰[騰訊]이 29일 보도했다. 유물 기증이 계산된 '쇼'라는 것이다. 「佛 중국 유물 반환은 명품 팔아먹기 속셈? 구찌 등 거느린 PPR그룹 매출 확대 '이미지 메이킹」, 『서울신문』(2013. 4. 2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30020024>.

박물관 또는 개인 소장가들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어떤 문화재는 그 후 경매 시장에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예를 들면 장춘원 해안당 앞의 분수 장식물-동으로 만든 12가지 띠의 동물 머리 가운데 세 가지 즉 원숭이 머리, 소 머리, 호랑이 머리가 경매 시장에 나타났다. 최근 중국은 관련 부문에서 수천 만 위안의 고가로 경매 시장에서 이 세 가지 국보를 사왔다.⁴³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원명원에서 약탈당하였던 문화재를 구매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원명원 해안당의 십이지신상 가운데 원숭이, 소, 호랑이 머리는 이미 해외에서 구매하여 회수하였고, 2013년에 프랑스 기업으로부터 쥐와 토끼 머리를 기증받게 된 것이다. 원명원에서 약탈당하였다가 돌려받은 쥐와 토끼 머리는 2013년 7월 18일부터 중국국가박물관 〈부흥의 길〉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에 전시되었다.

제2차 아편전쟁⁴⁴ 다음으로는 청·프전쟁과 청·일전쟁이 전시되어 있다. 청·프전쟁에 대해서는 1883년 12월 프랑스가 중국을 침략하는 전쟁을 도발했다고 하면서 1884년 8월 프랑스 군함이 마미항의 청나라 수군을 공격하는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청·프전쟁 이후 프랑스 세력이 중국의 광시, 윈난 등지를 침입했다고 하면서 프랑스 선교사와 무장 세력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일전쟁에 대해서 〈부흥의 길〉은 비중 있게 취급하고 있다. 1894년 9월 북양 함대가 패배한 황해 해전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일본은 메이

43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13), 앞의 책, 11쪽.

44 중·영, 중·프 베이징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텐진 개항, 중국 노동자의 출국 인정, 영국에 주룽 반도 할양, 프랑스 선교사의 조차와 교회 건설 인정,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 각 800만 냥과 기타 영국에 50만 냥, 프랑스에 20만 냥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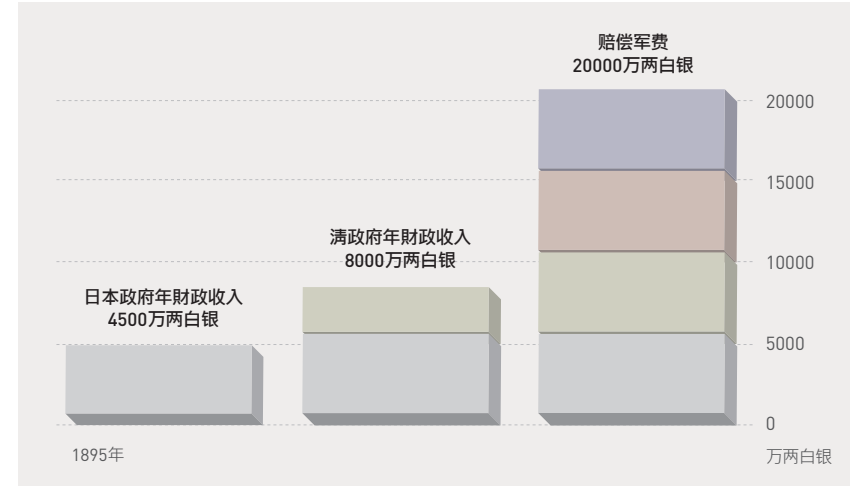


〈그림 7〉 일본군의 위순 대학살

지유신 이후 국력이 점차 강해져서 1894~1895년 갑오전쟁(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청 정부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1894년 11월 일본군이 위순을 침입하여 며칠 동안 무기를 놓은 중국 병사와 평민 약 2만 명을 도살하였는데, 이는 중국 근대 역사상 첫 번째 대규모 도살 사건이라고 하고 있다. 중국 민중에 대한 학살은 일본의 침략 성과 잔혹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다.

중국국가박물관의 설명에서 부정적인 구제도를 비난할 때는 ‘청 정부’라고 구체적으로 당시의 정권을 지칭하고 국가와 민중의 피해와 저항에는 ‘중국’ 또는 ‘중국인’으로 분리하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봉건적인 청 정부’는 비판하고, 당시에 저항 주체로서의 ‘민중’에 대해서는 ‘중국인’이라고 하여 나누어



〈그림 8〉 청·일전쟁 후 청나라의 재정 수입과 배상금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중·일 시모노세키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의 네가지를 들고 있다.

- 랴오둥 반도, 타이완 전도와 부속 도서 평후 열도를 일본에 할양
- 일본군비 백은 2억 냥 배상
- 사스, 충칭, 쑤저우, 항저우를 통상항으로 개항
- 일본이 통상항에서 공장 설립을 율허

이 전시실은 일본 정부와 청 정부의 재정 수입과 배상금을 비교하는 도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연간 재정 수입은 백은 4,500만 냥이고, 청 정부의 연간 재정 수입은 8,000만 냥인데 전쟁 배상금은 2억 냥이라고 하고



〈그림 9〉 뤼순 대도살

있다.

〈부흥의 길〉 전시실은 의화단 사건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다. 독일군이 다우커우에 상륙한 사진을 전시하고 1900년 6월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8개국 연합군이 대거 중국을 침략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자금성의 옥좌에 앉아 있는 미군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의화단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1901년 9월 신축조약 체결 사진을 게재하고 신축조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백은 4억 5천만 냥의 배상금을 39년 분할 상환하여 원금과 이자 총액인 9억 8천만 냥 지불
- 베이징에 사관구(使館區) 설립, 사관구 내에 중국인 거주 금지
- 다구와 베이징 연선의 포대 철거
- 베이징부터 산하이관 철도 연선의 12개 전략 요지에 각국 군대 주둔



〈그림 10〉 19세기 말 중국에서 열강의 세력 범위

이 전시실은 신축조약 배상금 9억 8천만 냥과 청 정부의 재정 수입 9천만 냥을 비교하여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8개국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도와 1900년 8월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들어와서 한 포교문, 소형 포탄 탄두 등을 전시하고 있다.

청·일전쟁 전시에서는 「뤼순 대도살」이라는 리우[李武]와 리푸라이[李福來]가 2009년에 그린 유화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이 그림은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이 뤼순을 점령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본의 잔학상을 그리고 있다. 〈부흥의 길〉 전시에서 서양 열강과 일본은 중국의 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일본은 잔혹하게 중국인을 괴롭히고 죽이는 가장 나쁜 적으로 전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화민족 역사의 굴욕'이라는 제목으로 19세기 말 열강이 중국



〈그림 11〉 석유를 나르고 있는 중국 노동자

에서 영토 분할 점령 조차지 설립 세력 범위 등을 보여주는 전광판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광판에는 중국이 근대에 상실한 영토와 조차지, 세력 범위 등을 표시하고 있다. 그 오른쪽에는 근대 이후 중국이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등 외국과 체결한 주요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왼쪽에는 열강의 중국 침략전쟁과 배상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외국의 침략전쟁으로는 아편전쟁, 제2차 아편전쟁, 청·프전쟁, 청·일전쟁(중·일 갑오전쟁), 8개국 연합국 중국 침략전쟁(의화단 사건)을 들고 있다. 주요 배상금으로는 1842년 난징조약으로 2,100만 은원(銀元) 등 10개 조약으로 13억 냥의 백은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이 액수는 청양조 재정 수입 8,000만 냥의 16배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부분은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에 대한 압박과 약탈’이다. 이 부분에서는 아편전쟁 이후 서양 열강의 경제적 침략과 약탈로 중국인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이 협정 관세 등의 특권을 획득하고 중국의 해관을 장악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1894년 상하이 해관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아래에는 청·일전쟁 이후에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다고 하면서 1897년 영국이 상하이에 설립한 이화사창(怡和紗廠)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의 스탠더드오일(Standard-Vacuum Oil Company)의 ‘석유’를 운반하는 중국인의 사진을 전시하고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을 원료 약탈지와 상품 판매 시장으로 변모시켰

다고 설명을 붙여 놓았다. 그 아래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스탠더드오일의 석유 운반 상자 실물과 영국이 생산한 ‘일광(日光)’ 기름 등의 실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탠더드오일과 텍사코(Texaco), 영국 아시아석유공사의 간판 등을 전시하고 그 아래에는 1912년까지 외국인이 소유한 탄광의 채굴량이 중국 전체 석탄의 91.9%를 차지했다는 설명과 함께 1899년 독일과 호남광무국이 체결한 계약서와 독일 산둥로광공사 상하이 대판처의 간판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씨티은행(花旗銀行, International Banking Corporation)과 영국의 상하이 후이핑은행(上海 匯豐銀行, The Hongkong&Shanghai Banking Corporation), 독일의 덕화은행(德華銀行) 등 외국 은행들이 중국에서 발행한 지폐를 전시하고, 1867년 영국이 상하이에 설립한 후이핑 은행의 사진에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에 은행을 개설하여 중국의 재정과 금융을 통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1898년 독일이 만든 자오지(膠濟)철로, 칭다오 기차역 사진을 제시하고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의 철도 이권을 독점하여 1911년까지 중국 철도의 93.1%를 통제했고, 철도 연선의 병권과 상권, 광산권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 부분에서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사진에 일본이 타이완(臺灣)을 침략하여 점령한 후에 ‘공학교(公學校)’를 설립하여 아동에게 노예화 교육을 하였으며 중국인의 민족의식을 소멸시키려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서양의 침략자들이 고고학과 탐험을 명목으로 유물을 대대적으로 도굴하여 많은 유적이 파괴되었다고 하면서 1906년 영국 국적의 헝가리인 스타인이 신장의 니야(尼雅) 유적⁴⁵을 파헤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45 니야 유적은 한나라 때 서역 지역의 옛 성 유적으로, 신장자치구의 민평현 북쪽 90km 니야강 하류 타글라마칸 사막의 중심에 있다. 1901년 영국인 스타인이 발견하여 발

옆에는 프랑스의 탐험가 폴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가 둔황석굴을 발굴하는 모습을 전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간행한 『인도가 영국에 노예가 되어 유익한 12가지』라는 책을 중국에서 간행했다고 하면서 이 책이 공공연하게 중국이 인도와 같은 영국의 식민지 ‘보호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당나라 때 화가 한황(韓滉)의 명작 「오우도(五牛圖)」를 전시하고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 약탈해 갔던 것을 1952년 중국 정부가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서양 침략자가 중국의 진귀한 문물을 약탈했다고 하면서 1860년 약탈당한 「원명원사십경도」의 일부를 전시하고 프랑스국가도서관에 유물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금강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확하게 간행 연도를 알 수 있는 서적으로 둔황 장경동에 있었지만 1907년 스타인이 도굴해갔고 유물이 대영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 주권 파괴’에서는 조계(租界)를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한 산물로 설명하면서 1845년 영국이 처음으로 상하이에 조계를 설립했고 1911년까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가 16개 도시에 30여 개의 조계를 설립했다고 하면서 상하이 공공 조계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의 일강이 조계 내에서 행정권과 사법 관할권을 행사하여 ‘나라 속의 나라(國中之國)’을 형성했다고 하면서 텐진의 일본 조계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조계의 상징으로 상하이 공공 조계의 경계석을 전시하고 있다. 상하이 조

굴이 시작되었고, 이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대규모 발굴을 하였다.

계의 죄수복과 미국 상단에서 사용하던 칼을 전시하고 있다. 영국 상하이 조계에 설립된 총순포방 사진 설명에는 상하이 조계에 공부국이 조계의 경찰, 사법, 행정, 재무와 교육 등을 관할했다고 하고 있다. 회심공해(會審公廨) 사진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이 영사재판권을 확대하여 조계에 재판기관인 회심공해를 설립했다고 한다. 그 아래에는 1853년 4월 영국과 미국 등이 ‘교민 보호’라는 이름으로 상하이 의용대를 조직했고 후에 만국상단(萬國商團)이라고 했으며 조계 당국의 준군사 조직이 되었다고 하면서 1884년 상하이 만국상단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SHANGHAI VOLUNTEER CORPS’라는 상하이 만국상단의 깃발과 상하이 조계 회심위원의 도장을 전시하고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1899년 9월 미국이 ‘문호 개방’ 정책을 제기하여 각국에게 자신의 ‘이익 범위’ 안에서 타국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증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인이 중국의 문을 열고 중국의 권익을 획득하려는 모습의 만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산둥의 자오저우만에 주둔하고 있는 독일 침략군이라는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에서 ‘조차(租借)지’를 빼앗고 ‘세력 범위’를 나누었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조차’된 뤄순항 사진과 그 아래에는 독일이 자오저우만을 강제로 조차한 후에 발행한 우표라는 설명을 달아 두장의 우표를 전시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베이징의 동자오민샹(東交民巷)의 영국대사관 구역에 있던 군대 의원의 ‘MILITARY HOSPITAL’이라고 쓰여진 돌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고난심중(苦難深重)의 중국 인민’이다. 열강의 침략으로 인하여 중국 인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관과 민의 부담’이라는 그림을 전시하고 “아편전쟁 후 중국 인민들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이중의 압박을 깊게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 왕조의 폭정으로 인민의 부담이 심해졌다고 하면서 1843년 후베이성 농민의 토지 판매 계약서를 전시하고 있다. 그 옆에는 파산한 농민들이 거리를 유랑하는 사진을 전시하고 “청조 말년 천재와 인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아사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타협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민을 잔혹하게 진압했다고 하면서 당시에 사용되었던 형구(刑具)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제정 러시아 침략군이 중국 변경의 거주민을 겁탈(劫掠)’했다는 그림과 상하이 조계 안의 순포가 일하는 중국인을 감시하는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영국과 미국 등의 나라가 화공(華工, 콜리: 중국 노동자)을 대대적으로 판매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태평양 철도를 부설하고 있는 화공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시실의 한 가운데는 리상쥘[李象群]의 2009년 작품인 「고난의 중국인민(苦難的中國人民)」이라는 조각품을 전시하고 있다. 중국인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거나 짐을 등에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근대 전시에서 그림과 각종 조각 등을 이용하여 보다 생동감 있게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의 각성

다음은 제3단원 ‘중국 인민의 각성’이다. 여기서는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중국 인민은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였다.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을 멸망시키려 도모한 것을 실현할 수 없었다. 민족의 위기와 인민의 고난이 끊임없이 심해졌으며, 뜻 있는 지식들은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전도에 대해 사고하고 탐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12〉 아편전쟁 당시 사용했던 청군의 대포

‘중국 인민이 외적의 침입에 반항하여 일어났다’는 주제 아래 ‘애국관병의 반침략 투쟁’을 전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전시된 인물은 임칙서(林則徐)다. 임칙서가 관복을 입은 그림을 전시하고 “1839년 6월 광둥 후먼[虎門]에서 아편을 없애서 중국 인민이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외국 침략자에 대항하는 결심을 표명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후면에서 아편을 소각한 장소에서 출토된 포석(鋪地石, Paving stone)을 실물로 전시하고 있고 그 맞은 편에는 옌샤오상[晏少翔]과 리린상[李林翔]이 1959년에 그린 「후면 아편 파괴[虎門銷烟]」라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이 그림은 1839년 임칙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인들이 아편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역사 교과서는 임칙서가 도광제에게 아편을 엄금할 것을 주청하였고 1839년 3월 광저우에 도착하여 아편을 몰수하였으며 구덩이에 바닷물을 채워넣고 생석회를 넣은 다음 몰수한 아편을 넣어 없애버렸다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후면에서 아편을 파괴한 것은 아편 금지 투쟁에서 중국 인민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외래 침략을 반대하는 중화민족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였다. 이번 투쟁을 지도한 임칙서는 손색 없는 민족 영웅이다.”⁴⁶라고 하고 있다.

이 전시관에는 아편전쟁에서 임칙서를 도와 활약한 등정정(鄧廷楨, 1776~1846)과 관천배(關天培, 1781~1841)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 중국 역사 교과서는 관천배에 대해서도 광동 수사 제독으로 아편전쟁 기간에 영국군이 후면을 공격하자 병사들을 이끌고 직접 대포에 불을 붙여 포격을 하였고 영국군이 포대에 몰려들자 칼을 뽑아들고 싸우다 전사했다고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다.⁴⁷

이 전시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등정정과 관천배가 만들어 사용했던 대포다. 이 대포는 중량이 3000근(1.5톤)이고 사정거리가 1,000m이다. 후면 포대에서 영국군에 맞서 사용했었는데 당시의 전투 상황을 재현한 인형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또한 당시 청군이 사용했던 화약 항아리와 철포탄 실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 대포는 이 전시실에서 중국의 저항을 상징하는 전시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전시실에서는 조명을 조절하고 포성 음향 등을 이용하여 좀 더 생동감 있는 관람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1860년 9월 청군과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 부근의 빠리차오(八里橋)에서 격전을 벌인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근대 중국의 저항에서 티베트와 타이완 등의 투쟁이 강조되고 있다. 이 전시실에는 “제국주의 열강

46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13), 앞의 책, 4쪽.

47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13), 위의 책, 4쪽.



〈그림 13〉 좌종당(왼쪽)과 풍자재(오른쪽)

의 잠식(蠶食)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짙(西藏), 윈난(雲南), 광시(廣西), 신장(新疆) 등지의 군민이 오랫동안 힘든 투쟁을 진행하였다.”라는 설명과 함께 영국에 대항하여 싸운 티베트 병사들의 사진과 검, 화승총, 활, 방패 등의 무기를 전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근대 중국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 전시실은 1878년 신장을 수복한 좌종당(左宗棠, 1812~1885)과 청·프 전쟁 과정에 광시 전난관(鎮南關) 대첩에서 승리한 풍자재(馮子材, 1818~1903)의 사진과 전난관의 방어도를 전시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좌종당은 19세기 후반 신장을 수복한 인물로 한 개의 과에 걸쳐 소개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신장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다.”⁴⁸라고 하면서 1865년 중앙아시아의 코칸트국의 야콥백

48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13), 위의 책, 12쪽.

(Yakub Beg, 1820~1877, 5, 16)이 카슈가르 등을 점령하고 신장의 민족을 착취하여 “아름답고 부유한 신장을 인간 지옥으로 만들었다.”⁴⁹라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러시아가 야쿱벡을 지원하여 야쿱벡이 중국의 영토인 신장을 분열시키는 괴뢰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 교과서는 좌중당의 “신장을 중요시하는 것은 몽골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몽골을 지키는 것은 수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옵니다.”⁵⁰라는 상주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현재 중국 영토의 ‘완정성’을 파괴하고 신장의 ‘분리 독립’을 도모한 야쿱벡에 대한 비난과 신장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교과서는 좌중당의 활약으로 신장을 회복하고 1884년에 신장에 행성을 설립했다고 하고 있다.

〈부흥의 길〉 전시관에서 비증을 두고 전시하고 있는 것은 청·일전쟁이다. 청·일전쟁 당시 황해 해전에서 전사한 지원함 함장 덩스창(鄧世昌, 1849~1894)의 사진을 전시하고 그 아래에는 북양수사 지원함의 병사들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우수양(鄒叔養)이 1961년에 그린 「중·일 황해 해전」이라는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이 그림은 황룡기(黃龍旗)⁵¹를 계양하고 일본 군함에 돌진하는 북양 해군과 육일승천기를 계양한 일본 해군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청·일전쟁 시기에 타이완에서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류용푸(劉永福, 1837~1917)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설명에는 류용푸가 “중·일 갑오전쟁시 타이완을 방어하였다. 타이완을 분할하는 데 반대하는 투쟁에서 부대와 타이완 인민을 인솔하여 공동으로 일본군에 저항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류

49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13), 위의 책, 12쪽.
50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2013), 위의 책, 13쪽.
51 황룡기는 1888년에 제정된 청나라의 국기다.

용푸가 사용했던 칼 등도 전시하고 있다.

〈부흥의 길〉은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인 저항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아편전쟁 당시 중국 민중의 저항을 상징하는 썬위엔리(三元里) 항쟁에 대해 전시하고 있는데, 광저우 썬위엔리 고묘(古廟)의 사진을 전시하고 “1841년 5월 광저우 썬위엔리와 부근 103



〈그림 14〉 의화단의 깃발과 무기

개 향촌민들이 자발적으로 영국군과 격렬한 전투를 하였다. 이는 중국 근대사상 인민 군중이 최초로 대규모 반침략 무장 투쟁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당시 썬위엔리 민중들이 사용했던 삼성기(三星旗)와 썬위엔리 민중들이 노획한 영국군의 갑옷과 군모, 군복 칼 등을 전시하고 있다. 1874년 4월 일본이 타이완에 파병하여 침입하자 타이완 인민이 반항하였다고 하면서 무장 항일을 하는 타이완의 소수 민족 동포라는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증 있게 전시되어 있는 것은 의화단 관련 전시물이다. 의화단에 대해서는 체포된 의화단원의 사진을 전시하고 “19세기 말 발발한 의화단 운동은 제국주의 열강에 타격을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화단의 깃발과 나무 패, 당시 사용했던 나팔과 북, 의화단의 포고문과 각종 무기를 전시하고 있다.

제3단원의 두 번째 부분은 ‘민족의식의 각성’이다. 여기서는 주로 중국의 지식인들이 낱날이 심화되는 민족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서양을 바라보고 자강입국(自強立國)을 생각하였는가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다.

여기서 처음 전시된 인물은 아편전쟁 당시 활약했던 임칙서다. 임칙서의 초상화를 전시하고 “근대 중국에서 처음으로 세계에 대해 눈을 뜬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임칙서가 외국의 지리와 역사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편역하게 한 『사주지(四洲志)』와 1839년 존 프란시스 데이비스[德庇時, Sir John Francis Davis, 1795~1890]가 쓴 『중국인-중화제국과 그 거주민 개술』을 번역한 『화사이언(華事夷言)』을 전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위원(魏源, 1794~1857)과 그의 저서인 『해국도지』를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풍계분(馮桂芬, 1809~1874)의 “중국의 논상명교를 원본으로 여러 나라의 부강(富強)의 술(術)을 보조해야 한다.”고 한 『교빈로항의(校邠廬抗議)』, 서계여(徐繼畬, 1795~1873)가 지은 세계 역사지리와 구미의 민주정체를 소개한 『영환지략(瀛環志略)』, 민간의 상공업 창립을 주장한 왕도(王韜, 1828~1897)의 『도원문록외편(弢園文泉外編)』, 서양 국가의 법을 모방하여 군주와 민이 함께 주인이 되는 입헌 제도를 실행하자고 주장했던 설복성(薛福成, 1838~1894)의 사진과 그가 쓴 『용암전집(庸庵全集)』을 전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서양 국가와 ‘병전(兵戰)’과 ‘상전(商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던 정관잉(鄭觀應, 1842~1922)과 그의 저작인 『성세위언(盛世危言)』을 소개하고 있다. 상인들이 주식을 모집하여 신식 상공업을 창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양무파의 독단 정책에 반대한 마건충(馬建忠, 1844~1900)의 사진과 『적가재기언기행(適可齋記言記行)』을 전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옌푸[嚴復, 1854~1921]와 그가 번역한 『천연론(天演論)』 수고(手稿)를 전시하고 있다. 옌푸는 경사대학당 편역국 총판 등의 직무를 역임하면서 『천연론』을 번역하여 서양의 적자생존의 사회 진화론 사상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이 전시실은 서양 열강의 침략이라는 위기 속에서 근대화를 위한 근대 중

국 지식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전시하고 있다. 근대 중국의 ‘부흥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 역할을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흥의 길〉 1부분의 마지막 전시물은 「시국도(時局圖)」다. 시국도는 1898년 화교 씨에주안타이[謝瓚泰]가 그린 것으로 곰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호랑이로 대표되는 영국, 뱀으로 묘사된 독일, 두꺼비로 묘사된 프랑스, 태양으로 묘사된 일본, 독수리로 묘사된 미국 등이 중국을 과분(瓜分)하려는 심각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시국도는 당시 중국이 처해 있던 위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 시국도

IV. 맺음말

〈부흥의 길〉 전시는 중공중앙 선전부에서 주도하여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개최에 맞추어 시작된 전시다. 당시 중국국가박물관이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중국 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 〈부흥의 길〉 전시를 하였고 중국국가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상설 전시관이 되었다.

중국국가박물관 근현대사 전시실의 〈부흥의 길〉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가 되어 버린 중국에서 중국 인민들이 이를 극복하고 민

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의 지도로 민족의 독립과 해방, 국가의 부강과 행복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중국공산당, 사회주의의 길,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였는가를 보여주려는 전시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 속에서 전시 부분은 크게 5개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고 19세기를 다룬 제1부분은 '중국이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 빠지다'다. 제1부분은 3단원으로 되어 있다. 제1단원은 '아편전쟁 전의 세계와 중국', 제2단원은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 제3단원은 '중국 인민의 항쟁과 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원 '아편전쟁 전의 세계와 중국'에서는 민주주의 혁명과 공업 혁명을 통하여 흥기한 서양 자본주의 국가가 대외 확장과 식민 약탈을 시작한 것과 쇠국정책과 부패, 생산의 낙후와 봉건 전제 지배 체제로 인하여 쇠퇴하고 있던 청 왕조를 대비시키고 있다.

제2단원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에서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서양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여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여 각종 특권을 획득하여 중국이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가 되어 갔다는 점과, 이에 따른 민중들의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원명원 해안당 분수대의 청동 십이지신상 가운데 2013년 7월에 반환받은 청동 쥐와 토끼상은 열강의 중국 침략과 약탈의 상징으로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제3단원 '중국 인민의 각성'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저항하는 중국 인민의 각성과 저항을 주제로 하고 있다. 아편전쟁 당시 임칙서 등을 소개하고 후면 포대에서 사용한 대포 실물을 전시하여 중국인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일전쟁 시기 전투에서 숨진 지원함의 함장 등세창과 타이완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한 류용푸를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부흥의 길〉 제1부분 전시에서는 청 왕조의 낙후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중국 인민을 묘사하고 있다. 각 전시에서는 상징적인 전시물이 등장하는데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킬만한 생동감 있는 전시물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조각, 전시관의 인테리어 등을 이용하고 있다.

제1단원 '아편전쟁 전의 세계와 중국'에서는 「청 왕조의 전제 통치(2009)」라는 그림을 통해서 청 왕조의 봉건 전제 군주 체제를 부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2단원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에서는 원명원 서양루의 기둥 모형을 전시관 안에 세워두고, 「뤼순 대도살」이라는 유화를 전시하여 청·일전쟁 시기 일본이 뤼순에서 저지른 학살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중화민족 역사의 굴욕'이라는 전광판 지도를 설치하여 19세기 말 중국에서 열강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전시관의 가운데 있는 「고난의 중국 인민(苦難的中國人民)」이라는 조각은 열강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중국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3단원 '중국 인민의 각성'에서는 후면 포대에서 사용한 대포를 당시 장병들의 조각과 함께 전시하여 중국인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일전쟁과 관련해서는 「중·일 황해 해전」이라는 그림을 전시하여 황해 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세기 말 열강에 의해 중국이 분열의 위기에 빠진 것을 「시국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제1부분 전시에서 청 왕조는 부패하고 무능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 존재로 그려지고, 서양 열강과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여 각종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귀중한 문물을 약탈하고 중국인을 괴롭히거나 학살한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반면 중국 인민들은 정부의 무능 속에서도 썬위엔리 투쟁과 의화단 등을 통해서 용감히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저항의 주체로 전시하고 있다.

〈부흥의 길〉 근대 부분 전시에서 낙후된 중국을 강조할 때는 ‘청 왕조(清朝)’라는 표현을 쓰고 민중의 저항 등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에서는 ‘중국’, ‘중국 인민’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은 모두 ‘청 왕조’의 봉건 전제 지배로 인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중국 인민’에게는 긍정적인 가치 평가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부분은 타이완과 티베트에 대한 강조다. 타이완에서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류용푸나 영국의 침략에 저항한 티베트인들의 투쟁을 전시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영토와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인과 타이완인의 투쟁을 근대 중국에서 열강의 침략에 맞서서 저항한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파악하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민족의식의 각성’에서 임칙서, 위원, 풍계분, 정관잉, 옌푸 등 당시 지식인들의 자강을 위한 각성과 노력을 소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근대 중국에서 이들의 노력은 비록 당시에는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중화 민족’의 ‘부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시되고 있다.

〈부흥의 길〉의 전시는 중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중국 근대사를 열강의 침략과 저항의 역사로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부흥의 길〉은 종래의 혁명사와는 다르게 ‘부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투쟁과 함께 근대 중국의 ‘부흥’과 관련된 지식인들의 모색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 中國國家博物館(2009), 『復興之路』, 文物出版社.
 呂章申(2012), 『中國國家博物館百年間史 1912~2012』, 中華書局.

논문

- 馬英民(2009), 「再現中華民族復興的壯偉畫卷-大型主題展覽“復興之路”從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到中國國家博物館」, 『中國博物館』 2.
 丁純怡(2012), 「國家博物館《復興之路》大型主題展覽文物徵集」, 『博物館研究』 1.
 曹欣欣(2011), 「波瀾壯闊的民族史詩-中國國家博物館《復興之路》基本陳列綜述」, 『中國國家博物館館刊』 11.
 曹欣欣(2011), 「清王朝覆亡的文物見證」, 『中國國家博物館館刊』 9.
 강진석(2011), 「體用으로 본 當代 中國의 大國思惟」, 『중국학연구』 57, 중국학연구회.
 金南哲(2005), 「역사 교육에서의 ‘동북공정’과 민족주의」, 『역사 교육』 95, 역사교육연구회.
 김소중(2005), 「중국 민족주의 역사와 전망」, 『동양정치사상사』 5-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金秀英(1996), 「5·4기 전후 陳獨秀의 國際主義와 民族主義」, 『중국근현대사연구』 2, 중국근현대사학회.
 김정현(2013), 「중국의 항미원조전쟁 기억과 기념」, 『사림』 46.
 김정호(2007), 「중국 초등사회의 애국주의 교육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 46-3,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김항목(2011), 「중국(中國) 북경박물관관람보고(北京博物館觀覽報告)-전시표본 600점」, 『자연사 미래환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김현선(2002), 「애국주의의 내용과 변화」, 『정신문화연구』 25-2,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희교(2006), 「중국 애국주의의 실제: 신중화주의, 중화패권주의, 민족주의」, 『역사비평』 75, 역사비평사.

박경석(2009), 「동아시아의 전쟁기념관과 역사 갈등」, 『中國近現代史研究』 第 41輯.

박정현(2003), 「청일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과 역사 교육의 방향」, 『중국근현대사연구』 20, 중국근현대사학회.

裴京漢(1997), 「中日戰爭史研究와 ‘愛國主義」」, 『중국근현대사연구』 4, 중국근현대사학회.

쉬지린[金志玲](2009), 「5·4의 기억, 어떠한 애국주의인가?」, 『플랫폼』 16, 인천문화재단.

신규환(2014), 「세균전의 기억과 중국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의 새 방향」, 『사림』 47.

신흥철(2004), 「초기 魯迅의 민족주의 성격」, 『중국현대문학』 29,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오일환(1998), 「中國의 博物館」, 『古文化』 第52輯.

옹령령·문정목(2012), 「2000년 이후 중국 사회의 국제화에 따른 뮤지엄 공간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왕오기·우성호(2012), 「중국 박물관의 전시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1권 제3호.

尹世炳(2010), 「중국에 있어서 향토사 교육의 현황과 전망」, 『역사 교육』 116, 역사교육연구회.

윤휘탁(2002), 「중국의 애국주의와 역사 교육」,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李東律(2001), 「90년대 중국 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 21, 중국학연구회.

이희옥(2009), 「중국민족주의 발전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중국학연구』 47, 중국학연구회.

全寅永(2002), 「中國近代史 教育의 觀點과 韓國史 認識」, 『역사 교육』 84, 역사교육연구회.

정문상(2006), 「上海 文廟를 통해 본 국가권력과 ‘전통」」, 『아시아문화연구』 10,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정형(1993), 「현장을 찾아서2중국북경 혁명박물관 삼국의 예술이 교류하는 역사의

場」, 『미술세계』 10월호.

하세봉(2011), 「20세기초 동아시아 박물관과 역사적 知識의 造形」, 『동북아 문화연구』 제28집.

하세봉(2011), 「냉전시기 타이완[臺灣]에서 박물관의 전시와 정치」, 『현대중국연구』 13권 1호.

하세봉(2010), 「臺灣 박물관과 전시의 정치학」, 『中國近現代史研究』 第 45輯.

하세봉(2014), 「박물관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전시-九州국립박물관의 경우」, 『사림』 47.

난징대학살기념관의 건립과 애국주의·평화 교육

I. 머리말

II. 난징대학살 논쟁과 기념관 건립

III. 난징대학살기념관의 확대와 애국주의·평화 교육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난징대학살기념관의 건립과 애국주의·평화 교육*

I. 머리말

난징대학살은 중·일전쟁 기간 일본군이 중국 도시에서 일으킨 최대 규모의 학살 사건이며,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폭력으로 최대 규모의 사건이다. 그러나 일본 우익들은 난징대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환상설이나 부정론을 내세우거나, 사건을 축소 표현하는 등 중국 정부와 계속 대립하고 있다. 2014년 3월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독일에서 강연하면서 “일본군이 30여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이 중국 측에 항의하였다.¹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에 이

* 이 글은 필자(2009)의 「중국 항일전쟁기념관의 애국주의와 평화 문제」, 『역사학 연구』 35에서 난징대학살기념관 부분을 보완·수정한 것이다.

1 일본 측은 옛 일본군이 난징에서 학살과 약탈을 자행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숫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 지도자가 제3국에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環球時報』(2014. 3. 31).

김정현(金正賢)

중국근현대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 『동아시아의 역사 III 개항-화해』(공저, 2011, 동북아역사재단), 「제1·2차 國共合作기의 한중 연대론-황포군관학교 인맥을 중심으로」(2012, 『역사학연구』제46집, 호남사학회), 「20세기 중국의 한국사 서술과 일본의 식민사관」(2010, 『中國學報』제61집, 한국중국학회) 등.

르는 과정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을 용인할 수는 없지만, 침략의 잘못은 일부 군국주의자들이 범한 것이지 일반 국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이전에는 중·일 간 역사 기억의 문제가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일본의 교과서 파문 이후 중국의 항일전쟁에 대한 태도는 이전 ‘승리 의식’을 강조하던 것에서, ‘국치’와 ‘피해’의 기억을 ‘공적 기억’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었다.² 중국 정부는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의 침략을 상세히 서술하도록 하였고, 중요 항전 기념일에 국가 규모의 기념 활동을 거행하였다. 중국을 고통에 빠뜨린 일본의 침략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나라 안팎에 보여주기 위한 기념관 건설이 촉진되었다. 1985년 일본의 침략 유적들을 보호하고 ‘역사를 잘 기억하여 국치를 잊지 말자(銘記歷史 勿忘國恥)’는 기념물로 전시하기 위해 난징[南京]대학살기념관(정식명칭은 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 중국을 침략한 일본의 난징대학살에 의해 난을 당한 동포 기념관)을 건립하였고, 1987년 베이징[北京]에 중국 인민항일전쟁기념관(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 1991년 선양[瀋陽]에 9·18역사박물관(歷史博物館) 등 대규모의 항전 기념관·박물관을 중국 각지에 세웠다.³ 이들 기념관에는 모두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1972년 중·일 국교 회복을 맞아 언급한 ‘앞일을 잊지 않아야 뒷일의 스승이 된다(前事不忘, 後事之師)’는 경구가 걸려 있다. 기념관의 공통 테마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아라이 신이치 지음·김태웅 옮김(2006), 『역사화해는 가능한가-동아시아 역사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미래M&B, 212쪽.
3 박물관은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뜻이 강하고, 기념관은 추모와 계승 등의 주관적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甲午戰爭博物館(威海), 旅順日俄監獄舊址 旅順日俄戰爭陳列館(旅順), 9·18 歷史博物館(瀋陽), 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罪證陳列館(哈爾濱) 등은 박물관류고, 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北京), 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南京)은 기념관으로 분류된다.

본고는 중국에서 난징대학살기념관 건립 과정에서의 난징대학살 논쟁과 일본의 난징대학살 부정에 대한 중국의 기념관 확대 전시의 내용과 주제, 기념관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은 1985년 8월 15일 1차 개관 후, 난징대학살 60주년인 1997년 12월 11일 2차로 개관(이하 구관)하였다. 그리고 난징대학살 70주년을 기념하여 2007년 12월 13일 구관 터에 확대 건설한 신기념관(이하 신관)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기념관 건립의 배경인 일본의 난징대학살 논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기념관의 건립과 두 차례의 확대 개관에 이르는 과정과 전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념관 전시에 나타난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과 평화 활동 등 기념관의 역할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 난징대학살을 둘러싼 중·일 간 역사 쟁점과 기념 문제는 중국, 일본과 전쟁 경험을 공유하는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기념관만 있고 평화기념관이 없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난징대학살 논쟁과 기념관 건립

1. 난징대학살 논쟁

난징대학살은 일본군이 193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6주 동안 난징에서 중국인을 잔인하게 유린한 것을 일컫는다. 희생자는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난징시의 3분의 1이 파괴되어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3대 학살 중 하나로 불린다.⁴ 일본 우익들은 난징대학살의 숫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살아남은 피해자의 증언을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난징대학살이 허구라고 선전해



〈그림 1〉 신문에 보도된 ‘살인 경쟁’의 무카이 도시아키[向井敏明]와 노다 쓰요시[野田毅]

왔지만 난징대학살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조사와 증거가 나와 있다.

먼저 1946년 8월~1947년 2월 난징에서 전범 재판이 실시될 때, 법의학 전문가들이 난징시 부근 매장지를 파헤쳐 수천 구의 유골을 발굴하였고, “일본군이 난징에서 저지른 집단 학살은 19만, 개별 학살은 15만에 달하여, 총수는 30만 명 이상”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법정에서 1937년 난징에 주둔한 일본군 제6사단장 다니 히사오[谷壽夫]는 전쟁법과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헤

4 劉燕軍(2003), 「난징대학살이 난징 시민생활에 끼친 영향에 대한 간략한 분석」,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편, 글로벌화와 인권·교과서』, 역사비평사.

이그 협정을 위반하고 자신의 군대가 난징에서 30만 명을 학살한 것에 동조한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고 공개 총살이 집행되었다. 제45연대장 다나가 군키치[田中軍吉], 일본 신문에 보도된 ‘살인 경쟁’의 무카이 도시아키[向井敏明]와 노다 쓰요시[野田毅]도 사형을 언도받고 난징에서 총살되었다.⁵

둘째, 1948년 전후 미국, 영국, 호주, 구소련, 인도, 캐나다 등 11개국이 조직한 극동국제군사법정(도쿄 재판)이 난징대학살 사건을 2년 반에 걸쳐 심리한 후, 대량의 증거에 입각해 사실임을 판결하였다. 난징대학살 주범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와 무토 아키라[武藤章]는 교수형을 언도받았고, 1948년 12월 도쿄에서 집행되었다. 극동국제군사법정은 난징대학살의 목격자 증언과 기록 등 증거에 기초해 “일본의 전쟁은 침략이고, 일본군이 점령하고부터 최초 6주간 난징과 그 주변에서 살해된 일반인과 포로의 총수는 20만 명 이상에 달한다.”라고 판결하였다.⁶ 이는 전후 처음부터 난징대학살이 공적 역사 기록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⁷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 제11조는 ‘일본국은 도쿄 재판 및 기타 전범 재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5 아이리스 장 지음·윤지환 옮김(2006), 『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난징의 강간, 그 진실의 기록』, 미다스북스, 249~250쪽.
 6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 재판이라고도 한다. 60여 명 이상의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 중 28명이 기소되어,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수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중 난징대학살에 관련된 전범들 가운데 당시 난징대학살 지휘관이었던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朝香宮鳩彦王]는 일본 황족이란 이유로 처벌을 면해, 재판소에 출석하지 않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난징대학살 당시 총책임자였던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는 사형 판결을 받아 교수형을 당했고, 중·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 장관이었던 히로타 고키[廣田弘毅]도 사형을 선고받아 교수형에 처했다. 하지만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난징대학살 당시 주요 범죄자들이 단 한 명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다. 아이리스 장 지음·윤지환 옮김(2006), 위의 책, 250쪽.
 7 楊大慶(2006), 「南京アトロシテイズ-建設的な對話は可能なのか」, 劉傑 三谷博 楊大慶, 『國境を越える歴史認識 - 日中對話の試み』, 東京大學出版會, 140쪽.

되어 있다. 즉 일본 정부는 난징대학살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⁸

셋째, 난징대학살 후 당시 세계 적십자회의 난징분회, 승선당(崇善堂), 홍만자회(紅卍字會) 등 각 자선 단체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난징에서 매장한 시체만 20여만 구가 넘는다. 넷째, 당시 수도였던 난징에서 외국인이 대학살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과 사진, 영상 등의 증거를 남겼다. 예컨대 난징안전구역 의장 이었던 독일인 라베(Rabe)의 일기, 9천 명 이상의 난징 지역 여성을 보호한 미국인 보트렝(Vautrin)의 일기, 미국 기자 스틸(T. Steel)이 난징에서 촬영한 일본군 학살 현장 사진이 1937년 12월 15일 미국의 '시카고 데일리 신문'에 게재된 것, 미국인 존 마기(John Magee)가 촬영한 대학살 장면(난징대학살기념관에 기증됨)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현재까지 보관된 30,000여 명의 난징대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이다. 여섯째, 난징대학살에 참여했던 100여 명의 일본군 또한 난징에서 많은 중국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들은 양쯔강에 던진 시체가 15만여 구에 달하였으며, 거리에 나가 15세 소녀를 강간하기 위해 함께 있는 할머니를 살인한 사례 등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동서 냉전이 진행되어 일본에 대한 전쟁 책임이 언급되지 않게 되자, 일본 우익의 발언력이 증대하고 1955년 교과서에 대한 검정이 강화되면서 난징대학살에 대한 기술은 일본 교과서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그런데 1971년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혼다 가츠이치[本多勝一] 기자가 난징대학살 생존 피해자를 취재한 르포(中國の旅)를 아사히신문에 연재(1972년 아사히신문사가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일본군의 가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침략전쟁을 미화해 온 우익 세력이 위기감을 갖고, 일본군 두 명이 중국인 '백 명 목베기

8 패전 후 일본의 국정교과서(46년판 초중고)에는 난징대학살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도쿄 재판에서 난징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발행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表義文(2004), 「教科書の戦争記述が變化した背景」, 『週刊金曜日』 20호.

경쟁'을 했다는 내용을 표적으로 혼다 기자를 공격하면서 양측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일본의 교과서 검정이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가 역사 교과서에서 난징대학살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대해 중국이 1982년 6월 격렬히 항의함으로써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었다. 1982년 7월 일본 문부성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고치고, '난징대학살', 종군 '위안부'와 같은 일본군의 만행을 삭제나 희석시키라고 지시한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를 정부의 책임으로 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제국 조항'⁹을 부가하여 외교적 타격을 피하였다. 난징대학살 부정론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반발하여 『제군(諸君)』, 『문예춘추(文藝春秋)』 등 잡지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하였지만, 이들의 주장은 1980년대 후반 계속 힘을 잃어갔다. 그 이유는 일본군 나가지마 계사코[中島今朝吾] 제16사단장이 만 단위의 포로 학살을 명령했음을 밝힌 일기가 발굴되었고, 전육군장교 친목 단체 해행사(偕行社)의 기관지 『해행(偕行)』이 '난징전사(南京戰史)'를 연재하던 중 기획자의 기대에 반하여 학살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또한 난징대학살 서술을 둘러싼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¹⁰의 판결도 난징대학살의

9 근린제국(近隣諸國) 조항이란,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 관련된 근현대사를 다루는 데는 국제 이해와 협력이라는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10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은 난징대학살의 기술을 지우라고 한 교과서 검정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으며, 1965년부터 시작된 제1차 소송(손해 배상), 1967년부터 시작된 제2차 소송(검정 처분 취소), 1984~1997년까지 13년간 진행된 제3차 소송(손해 배상) 등 32년간의 교과서 재판을 말한다. 1993년 10월 도쿄고등재판소가 난징대학살의 존재와 다수 강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삭제를 요구한 검정을 위법이라고 판결내렸고, 1997년 8월 29일 최고 재판도 고등 재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난징대학살과 강간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김정현(2007), 「'남경 대학살' 연구의 현황과 쟁점」, 『동북아역사문제』 참조.

존재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난징대학살 논쟁은 1990년대 일본에서 등장한 난징대학살 부정파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를 인정하고 사과한데 이어,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수상이 취임 회견에서 ‘침략전쟁이라고 인식’한다는 발언 이후 우익들의 위기감이 증대된 것이다. 일본의 우익 단체와 정치가들이 1996년부터 교과서 출판사에 압력을 가하자, 2002년판 중학 교과서의 대부분은 난징대학살 희생자 수를 빼는 등 후퇴하였다.

난징대학살 논쟁의 쟁점에는 난징대학살의 동기, 학살 기간 및 범위, 학살 숫자 등이 있다. 난징대학살의 동기는 일본군의 계획적이고 조직적 목적에 의한 학살이라는 주장¹¹과 일탈적 행동이라는 주장이 있다. 학살 기간 및 범위는 1937년 12월 4일 이전부터 2월 14일까지의 6주간보다 길게 보는 광의의 시점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난징대학살의 지역적 범위도 난징 성내와 성벽 주변 구역만을 대상으로 보는 연구와 달리, 행정구로서의 난징 특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따라서 난징 근교 6현의 현성과 농촌에서 발생한 잔학 학살 행위 역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¹²

- 11 난징대학살의 원인과 일본의 동기를 일본군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목적에 의한 학살로 보는 견해는, 중지나방면군(中支那方面軍) 사령관 마쓰이 이와네의 “난징은 수도이기 때문에 이를 점령하면, 일본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는 언급과, 16사단장 일기에 난징 점령 후 “포로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는 점령 과정에서 대학살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들은 계획대로 10만 명이 넘는 포로병을 전부 학살 처리하였다고 한다. 일본군이 무력을 과시하여 항복을 받으려는 군 중앙의 사전 계획 아래 무자비한 공격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 12 난징대학살의 시작을 일본의 중지나방면군이 난징전쟁 구역에 돌입한 1937년 12월 4일보다 앞선 8월 15일 이미 난징에 대한 폭격이 시작된 시기부터 전초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학살 종료 시점도 대본영이 중지나방면군의 전투 서열을 해체한 1938년 2월 14일이 아니라 그 후에도 잔학 사건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잔학 행위가 훨씬 줄어든 3

논쟁의 가장 큰 쟁점은 학살 숫자다. 도쿄 재판에서 난징대학살은 6주간 20만 명이 살해되었고 중국의 전범 재판에서는 30만 명 이상이라고 하였지만, 일본군이 패전 직후 군대의 공식 자료를 조직적으로 소각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한 상태다. 중국 측에서는 매장자 수를 기초로 집단 학살에 의한 19만 명, 개별적인 학살에 의한 15만 명, 합하여 30만 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양심적이라 불리는 학자들도 중국 측의 30만이라는 숫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20만 명설, 15만 명설, 1만 명설, 3천 명설, 심지어는 일본 우익 진영에서는 40~50명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예 없었다는 주장까지 있다.¹³

2. 난징대학살기념관의 건립과 발전

1) 기념관 건립

1982년 일본의 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중국 각지에서 항일전쟁 유적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기념관 건설이 시작되었다. 난징시는 1983년부터 ‘피로 얼룩진 역사를 영원히 난징의 대지에 새겨두자.’는 취지하에 기념관 건설을 준비하여, 항일전쟁 승리 40주년인 1985년 8월 15일 개관하였다.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념관이 건설된 장둥먼(江東門)은 난징 시내에 13개소에 이르는 집단 학살 장소 중 하나로서, 1937년 12월 16일, 육군 감옥에 감

- 월 28일 중화민국 유신 정부(중지나방면군이 공작한 괴뢰 정권)의 성립시기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광의의 시점이 제시되고 있다. 鈴木千慧子(2004), 「南京大虐殺をめぐる動向と課題」, 『戦争責任研究』 46, 36쪽.
- 13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도쿄도지사는 “난징대학살은 중국인들이 지어낸 거짓 얘기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꾸민 얘기”라고 주장하였다.

금된 약 1만 명의 포로와 시민이 장동면에 끌려 나가 기관총으로 살해된 곳이다. 기념관 내에 학살터 16곳을 상징하는 돌 비석을 세워 난징 시내 전체가 학살터였음을 기억하게 한다.

덩샤오핑[鄧小平] 친필의 「침화일군남경대도살우난동포기념관(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 간판이 걸려 있는 기념관 정면 입구에는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조난자(遭難者) 300,000’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다. 기념관 부지에는 학살된 사람들의 영혼과 같은 하얀 자갈이 깔려 있는데, 자갈밭은 양쯔강가에 쌓였었던 30만 주검의 유골을 표현하였다. 자갈밭과 초지(草地)는 기념물이 아닌 듯 느껴지나 실제로는 기념관의 주제인 삶과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 자갈밭을 둘러싸고 있는 풀과 그 안의 자갈은 강렬하게 대비되어 생(生)과 사(死)로 관람자에게 다가온다.

기념관은 일본과의 국교 회복시 “예전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훗날에 본받도록 한다(前事不忘, 後事之師).”는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 전 중국 총리의 언급처럼, 당시의 참상을 생생히 드러냈다. 기념관에는 건설 과정 중에 발견된 208구 유골의 두개골이나 뼈가 자갈이나 모래 위에 전시되어 있다. 유리벽으로 에워 쌓인 유골 발굴 현장 ‘만인갱(滿人坑)’이다. 전시실은 일본군의 침략 경과를 만주 사변에서 난징 공략에 이르는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진상규명 과정 등을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사진 자료와 영상물 그리고 총, 칼, 의복 등 1차 자료도 전시하고 있다. 사건의 전체상을 사진과 문장으로 설명한 후, 도쿄 재판과 중국 군사 재판에 의한 전범 재판의 경위를 보여준다.¹⁴

14 川村一之(1995), 「中國の平和記念館」, 西田勝·平和研究室 編, 『世界の平和博物館』, 日本圖書センター, 134~136쪽.



〈그림 2〉 조난자 300,000이라고 새겨진 평화의 종(왼쪽)과 생(生)과 사(死)를 표현하는 자갈과 초지(오른쪽)

2) 2차 개관

기념관은 난징대학살 60주년을 맞아 1997년 12월 11일 2차로 개관하였다. 10년 이상의 차이를 두고 1차에는 주 전시관, 기념관의 주제인 삶과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자갈밭과 초지, 생존자 사진 전시, 뒤엉킨 유골을 그대로 땅속에 전시한 유골 전시관(萬人坑), 2차에는 통곡의 벽(哭牆), 수난 상황을 부조한 금릉겁난(金陵劫難, 당시의 수난 상황을 부조한 벽으로 파괴된 도심과 살해된 죽음을 의미하는 부조물), 생존 수난자와 극동국제군사법정에 관여하였던 중국인 등 222명의 족적을 탁본해 만든 동판로(南京大屠殺歷史 證人腳印銅版路)로 나누어 시설하였다.



〈그림 3〉 학살 기간이 표시된 13m 높이의 십자가 탑

기념관 정문에 ‘1937. 12. 13~1938. 1’이라고 학살 기간이 각인된 13m 높이의 ‘십자가 탑’을 지나 300,000이 새겨진 벽(中山門)을 향해 걷는 동안 관람자는 학살의 기간과 희생의 정도를 느끼게 된다. 상처받은 난징의 상징 ‘쑹



〈그림 4〉 1만 명의 유골이 발견된 만인갱(왼쪽)과 난징대학살 증인 각인 동판로 위의 할머니(오른쪽)

산먼(中山門)과 거기에 남은 기관총 사격 흔적, 도살용 칼에 잘려진 머리, 생매장 당할 때 묶여져 발버둥치는 손 부조물 그리고 파괴된 난징의 도심 벽, 이 각각의 부조물을 마치 하나처럼 형상화 해놓은 조형물 ‘금릉겁난(金陵劫難)’을 뒤로하면 생존자들의 발 모양 탁본을 하나하나 새긴 동판로 위에 상처를 드러내고 서 있는 두 명의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표현한 50여m의 부조 벽은 외벽을 낮게 하고 부조 벽의 높낮이를 일정치 않게 하여 도심 전체의 학살과 이곳 기념관의 학살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자갈밭 끝 자락에는 고목(枯木) 두세 그루와 주변을 민중의 부조(浮彫)로 둘러싸인 대형의 모친상(母親像)이 설치되어 있다. 부조 벽 끝자락의 ‘통곡의 벽’에서 사망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나면 그 너머에 뒤엉켜 있는 유골을 땅속에 그대로 전시하고 있는 유골 전시관이 이어진다.

기념관 설계자는 기념관의 주제를 삶과 죽음, 고통과 한으로 설정한 후 수난자의 고통, 살아남은 자의 한, 관람자에게 전해질 감염력(感染力)을 건축물, 장소, 벽, 나무, 언덕, 부조물, 주변과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표현하였다. 국耻(國耻)와 민족의 피와 눈물의 재난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이를 위해 ‘겁난(劫難), 비분(悲憤), 억압(抑壓)이라는 언어’를 채용하여 재난의 역

사는 영원히 소멸할 수도 없고 소멸해서도 안 된다는 ‘기억하여 기념하기’를 반영하였다.¹⁵

Ⅲ. 난징대학살기념관의 확대와 애국주의·평화 교육

1. 난징대학살 부정론의 전개와 확대된 신관

1) 난징대학살 부정론의 전개와 대응

1990년대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한 난징대학살 부정론자들은, 우파 정치가와 우익 단체의 후원을 받아 1997년 1월 학살 부정파의 최대 세력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교과서에서 일본의 침략전쟁 기술을 부정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2001년에는 스스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문부성 검정에 합격하였다. 이들의 난징대학살 서술은 “도쿄재판에서는 일본군이 1937년 난징을 점령한 때 많은 중국인 민중을 학살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상 의문점이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오늘에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다.¹⁶

일본 문부성이 이 교과서를 검정에 합격시킴으로써, 학문적으로 해결되고

15 박강배(2006), 「잊혀진 홀로코스트, 남경」,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51~152쪽.

16 이들은 난징대학살이 “일본군의 악역비도(惡逆非道)를 세계에 선전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이용되어, 원폭 투하와 전국 도시를 무차별 폭격하여 무고한 시민을 살상한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날조 선전된 사건”이라고 본다. 浜田實(2002), 「南京問題の最新線」, 『史』, 9월호.

법적으로도 패배한 학살 부정론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도쿄도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도 공공연히 ‘난징대학살은 날조된 것’이라 하고, 난징대학살 부정파 세력의 선전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활동 등을 배경으로 ‘난징대학살 허구론’이 계속되었다. 2000년 1월 23일 오사카[大阪]에서는 ‘20세기 최대의 거짓말! 난징대학살을 철저히 검증하는 집회’ 대회를 열어 부정파론자들이 활동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2005년 전후 60주년을 기념하여 ‘난징대학살은 없었다.’는 주장이 다시 커졌으며, 국회의원과 마스크 등의 영향과 더불어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가 침략전쟁을 미화한 만화 『전쟁론』(1998)이 650만 부 이상 팔리면서 난징대학살 부정론이 확산되었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이 난징대학살 60주년과 70주년에 계속 확대되고 증축된 배경에는 계속 발굴되고 있는 유해 등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난징대학살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일본 측에 대응하여 난징대학살의 진상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 난징대학살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97년 아이리스 장(Iris Chang, 1968~2004)이 『난징의 강간: 2차 대전의 잊혀진 대학살』¹⁷을 펴내면서부터다. 난징대학살 60주년을 맞은 해에 출간된 이 책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10주 동안이나 머물렀다. 아이리스 장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취재하고 방대한 자료를 모아 이 책을 발간하였다. ‘난징대학살’ 기간 동안 난징국제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독일인

17 아이리스 장(1997)은 The Rape of Nanking: The Forgotten Holocaust of World War II에서 the Rape of Nanking을 Nanking massacre, the Great Nanking Massacre, 난징대학살과 함께 쓰고 있다. 일본군이 난징 일대에서 광범위한 강간을 일삼은 것이 사실이지만 rape는 종종 강간보다 폭이 넓은 뜻, 즉 침략·침탈·파괴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요한 라베의 유족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자료(요한 라베의 일기)를 얻어내 공개하기도 하였다.¹⁸ 그 외에도 진실을 담은 사진 자료를 구했는데, 이 책에 실은 사진 자료들은 일본군이 현상을 말갓던 사진관의 중국인 점원이 빼낸 사진 자료다. 자료 발굴뿐 아니라 난징대학살에 대해 일본이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대중 매체에 나가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책이 출간된 후 아이리스 장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장래가 기대되는 차세대 최고의 역사학자라는 칭송을 받았다.

세계적인 호평과 달리 일본은 아이리스 장의 주장이 불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과장이라고 주장하였다. ‘왜곡과 날조’라며 반박한 일본 우익 세력들은 아이리스 장에게 메일과 전화 시위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아이리스 장은 그들의 협박에 공포를 느꼈고, 끝내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2004년 11월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중국과 난징대학살의 생존자들은 사건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아이리스 장의 노력과 열정을 높게 평가하며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 ‘난징대학



〈그림 5〉 『난징의 강간』과 아이리스 장

18 1937년 11월, 일본군이 난징을 공격해오자 당시 난징에 살고 있던 요한 라베(John Rabe)와 선교사, 의사, 교수, 기업인 등 수명의 외국인은 ‘난징국제위원회’를 만들고 ‘난징안전지구’(혹은 ‘국제안전지구’)를 난징대학 등에 설치하여 그곳으로 피난 온 난징 인민 약 25만 명을 수용·보호한 후 1938년 5월 문을 닫았다. ‘난징안전지구’를 주도하였던 독일인 요한 라베는 선교사 존 머기가 촬영한 난징 학살 필름을 가지고 1938년 2월 난징을 떠난 후 1946년 극동군사재판에도 등장하지 않아 수십 년간 잊혔는데, 아이리스 장의 노력으로 라베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오던 라베의 일기가 1996년 12월 처음 공개되었다. 중국어로 번역된 『拉貝日記 發現始末』가 중국에서 출판되었다.

살기념관'은 확장 개관을 준비하던 2005년에 그녀를 위한 별관을 추가하였고, 그녀의 동상을 세워 놓았다.¹⁹

난징대학살의 진상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에서도 난징대학살의 사실을 묵살하는 일본 극우와 일본 정부의 행태에 반대해 진실을 알리는 'No more Nanjing'이라는 이름의 시민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1월 도쿄 지방재판소는 당시 난징대학살 생존자인 중국인 여성 사수친[夏淑琴]의 증언이 가짜라고 주장한 서적 『난징 학살의 철저 검증』²⁰ 소송에서, 이 서적이 사수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저자인 히가시나가노 슈도[東中野修道] 아세아대학 교수와 출판사는 위자료 등 합계 350만 엔을 사수친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리슈잉[李秀英] 재판²¹과 같이 명예 훼손을 인정받고도 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리슈잉의 사망은 과거의 일본군인에게 입은 직접 피해뿐 아니라 현재의 가해 일본인으로부터의 명예 훼손이라는 두 번의 상처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 미국 버지니아 노퍽에 있는 '중국의 정원'에도 난징대학살 당시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했던 미니 보트린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가장 최근의 '난징대학살 희생자'로서 아이리스 장의 기념비를 세워 기리고 있다. 아이리스 장 지음·윤지환 옮김(2006), 앞의 책; 아이리스 장(2014),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 난징대학살, 그 야만적 진실의 기록』, 미다스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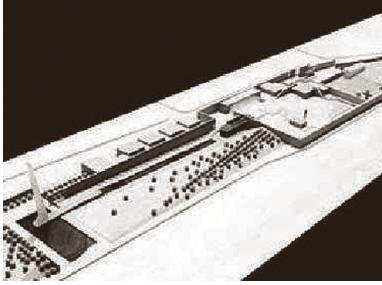
20 사수친은 "8살 때 집에 쳐들어 온 일본 병사에게 양친 등 7명이 죽고 자신도 총검에 찔렸다."라고 증언하였다. 東中野修道(1998), 『南京虐殺』의徹底檢證』, 展轉社.

21 리슈잉은 19세 때 임신 중 일본인에게 강간당하여 아이가 유산되었다.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을 소송한 결과, 피해 자체는 사실이나 법률로는 국가가 개인 피해자에게 보상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저서가 나오자, 이에 리슈잉이 명예 훼손 소송을 전개하였고, 2002년 5월 10일 재판 판결은 저자에게 "자료 검증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쓰여졌다."면서 위자료 등 150만 엔 지불 명령을 내렸다. 2003년 4월 도쿄고등재판도 1심 판결을 지지하여 그녀의 명예 훼손을 인정하였다.

중국은 일본의 계속되는 난징대학살 부정론에 대응하여 난징대학살을 소재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고 도서 발간과 자료 수집과 발굴을 통해 난징대학살의 진실을 계속 알리고 있다. 2010년 5월 16일에는 난징대학살에 군인으로 참가했던 일본인들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하고 기록 영화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였다. 기념관이 1982년 난징대학살편사공작소조로 출발할 때 자료는 100여 건에 불과했으나 1995년 전문 역사 학술 연구 기관인 '난징대학살연구회'가 만들어지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2012년 90여 편의 문헌이 출판되었으며, 78권의 방대한 '난징대학살 사료집'이 발간되었다.²² 중국은 일본 우익의 난징대학살 부정과 난징대학살을 둘러싼 논쟁을 타결하기 위해, 더 많은 관련 자료 발굴과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1월 지린[吉林]성 당안관은 학살 관련 기록이 포함된 중국 침략 일본군 문서들을 발견하였다. 이 문서에 의하면 난징대학살 전후 두 달 동안 난징 지역의 인구가 113만 명에서 34.5만 명으로 감소되었다고 한다.²³ 이러한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해 난징대학살의 실태가 구체적이고 다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22 朱成山 主編(2012), 『侵華日軍南京市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故事』, 南京出版社, 170쪽.

23 이 문서들은 1938년 2월 19일과 28일 화중(華中) 파견 일본군 헌병대 사령관 오오기 시게루[大木繁]가 관동군 사령부에 보고한 「난징 헌병대 관할 구역 내의 치안 회복 상황 보고서」다. 자오위제[趙玉潔] 지린성 당안관 역사당안 관리처 처장은 비록 70여만 명 가운데에는 외지로 도주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대학살 전후의 인구 차이가 이처럼 큰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린성 당안관에는 현재 모두 10만여 권에 달하는 일본군 관동군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 1931~1945년까지 일본 관동군이 중국 동북 지방을 통치하던 시기의 각종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 일본군은 이 자료들을 소각하려 했으나 미처 다 소각하지 못하자 지하에 매장했는데 1950년 건축 공사 도중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新華網』(2014.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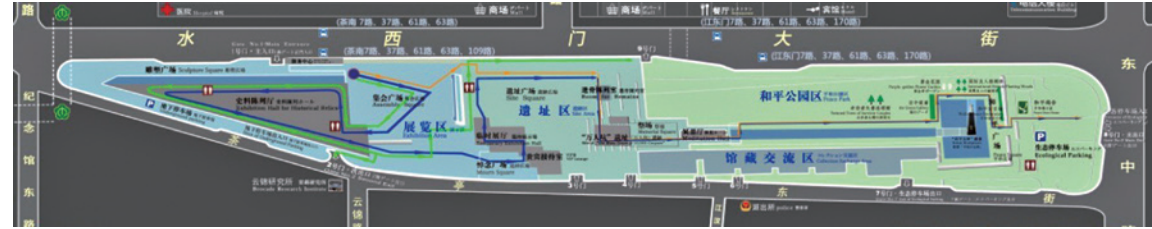
〈그림 6〉 신기념관 조감도

2) 확대된 신관

기념관은 1985년 개관부터 2005년까지 20년 동안 1천 4백만 명이 관람하였고 그중 외국인은 약 10%였다. 2004년 3월부터 시작한 무료 관람으로²⁴ 휴일에는 1만 5천여 명, 평일에는 5천여 명이 관람하여

연간 114만 명이 참관하였다.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관람객 수용과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필요한 크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념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⁵ 기념관 확대에 따른 대형화, 장엄성 강조에 따른 소박함 상실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5년 ‘국가 발전과 개혁 위원회’가 기념관 확대를 비준하였다. 2005년 12월 기공하여 이전의 구관터에 3배로 확대 건설된 신관은 공사 중 난징대학살 사건 희생자 19구의 완전 유해가 발굴되어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난징대학살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었다. 신관은 2007년 12월 13일 개관 후, 매년 500만 명 이상이 참관하고 있다.²⁶

신관은 구관의 시설을 중간에 두고 양측에 ‘신전시관’과 ‘평화 광장(평화 여신상, 명상의 방, 승리의 벽, 숲 등으로 구성)’을 배치한 기다란 배 모양(和平之舟)으로 만들어



〈그림 7〉 신전시관-구관 유적지-평화 공원 구역

졌다. 신관의 설계 디자인 양식은 ‘평화의 배’이며, 설계 주제는 ‘전쟁’, ‘살육’, ‘평화’라는 3가지 개념을 담아 ‘절단의 칼날’(신전시관)-‘죽음의 정원’(구관의 자갈과 초지)-‘평화의 목소리(평화 공원)’라는 경계로 구분된다. 설계자는 ‘입구에 들어선 관람객의 진동하는 심정(신전시관)이 깊고 무거워졌다가(만인항의 유해, 자갈밭과 초지) 결국 시원스럽게 확 트인(평화 광장) 마음을 갖게 되어 마치 정신적 세례를 받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한다.²⁷

기념관 입구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수난 상황을 형상화한 ‘테마 조각’을 볼 수 있다. 수천만에 달하는 피해 가정의 모습을 축소해 담은 테마 조각에는 난징대학살 때 어머니가 죽은 자식을 안고 통곡하는 형상·피난하는 사람들 모습·고통을 이기지 못해 삶을 포기하려는 평민·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여인·아이를 뱀 임신부·돌아가신 할머니를 업고 다니는 소년·80세 노모를 모시고 피난하는 중년 남자·강간당해 실성한 여인·참혹하게 죽은 모자·울고 있는 고아·죽어간 참사자를 위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스님이 묘사된 여덟

24 2003년 12월 난징대학살기념관이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거쳐, 2004년 3월부터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하였다. 王建梁(2004), 『紀念館：民族的公共記憶』, 『中國教師』, 華中師範大學教育科學學院, 15쪽.

25 남경과 함께 2차 대전 3대 피해지로 일컬어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히로시마 평화 공원이 세계문화유산인 것에 비해 남경학살기념관은 세계문화유산 등록 기준인 5.33 헥타아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 신청에 필요한 크기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리다. 박강배(2006), 앞의 책, 159쪽.

26 朱成山 主編(2012), 앞의 책, 170쪽.

27 공간 개념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민생에 힘쓴다’(鑄劍爲犁, 馬放南山)-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말을 남산에 풀다)는 의미다. 朱成山(2007), 『중국 침략 일본군의 난징대학살 참사동포기념관 해설사』, 난징대학살기념관 참조.



〈그림 8〉 기념관 입구의 테마 조각과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통곡하는 조각 (家破人亡)

〈그림 9〉 원혼의 외침 조각



〈그림 10〉 신전시관 입구 古城의 재난 조각

개의 동조각으로 이루어진 「시민피난(市民避難)」 등이 있다. 거대한 동으로 만들어진 삼각형 조형에 외침의 부조를 새긴 「원혼의 외침」은 중화민족의 일제에 대한 대항을 암시적으로 묘사한다.

기념관 신전시관은 복층, 다면, 다각형으로 관람객이 한눈에 전시물을 다 볼 수 없게 하는 최신 전시 기법을 반영, 다종 다양한 전시물을 세련된 기법으로 전시하고 있다. 참사자 '300,000'이라 쓰여 있는 입구로 들어가면, 무너진 성벽이 조성되어 있고, 성벽 위에 난징 지도에 집단 학살 유적지 20여 곳의 지도가 있다. 양측 벽에는 1만 명에 달하는 난징대학살 참사자 명단을 새겨 놓았다. 주요 학살 지점이 강변에 집중되어 있고 10여만에 달하는 참사자의 시체가 양쯔강에 버려졌기 때문에, 강변에 참사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 12초에 한 번씩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그때마다 은은한 종소리 속에 참사자의 유상이 강 수면에 계속 떠오르게 하였다.

전시관에는 일본 부대가 종산면에서 난징성을 점령한 의식을 갖는 사진을



〈그림 11〉 난징대학살 참사자 명단(왼쪽)과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생존자 1,000여 명의 사진으로 채워진 기념관 벽면(오른쪽)

비롯, 당시 일본에서 발행한 ‘난징 함락 기념엽서’, 일본에서 아동을 위해 만든 ‘난징 함락 바둑판’ 등도 전시되어 있다. 특히 안전구 국제위원회의 활동을 자세히 전시하였다. 전시물은 난징 안전구 국제위원회 본부, 난민들이 난징 안전구에 들어올 것을 호소하는 ‘난징 시민들에게 알리는 글’과 ‘난민구 규칙’, 난민구의 일부 완장, 게시 공고 등이다. 설명문에는 “난징이 점거되기 전야에 수십 명의 외국 인사들과 중국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난징에 남아 중립국 국민과 국제적십자위원 등 특수 신분으로 안전 지역에 국제위원회와 난민영을 세워 중국 인민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제 인도주의 원조를 제공하여 중국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서양 인사의 대표 인물은 요한 라베 회장과 비트린 여사다. 독일 시먼스 회사 난징 지사의 사장 요한 라베는 난징 안전구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20여만 명의 난징 난민들을 구조하였다.²⁸ 그

28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4년 3월 28일 독일에서 한 강연에서 ‘난징 안전구’를 설립하여 20여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독일인 라베를 언급하면서 그가 남긴 기록이 난징대학살 연구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1996년에 중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라베 기념관을 난징에 건립했으며, 2013년 말에는 난징시에 라베 묘원을

는 난징에서의 일본군의 폭행에 관해 일본 대사관에 여러 차례 항의하였고 또 일기에 적었다. 국민 정부는 1938년 7월 30일 라베 위원장에게 옥으로 만든 훈장을 수여하였다. 라베 위원장이 당시에 사용했던 담뱃대·편지봉투·시계·자동차 통행증 등이 전시되어 있고,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는 라베 선생의 말씀을 기억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당시 금릉문리학원 교수를 역임한 미국 선교사 바트린 여사에 대해서는 “이 학교에 난민 수용소를 세우고 9,000여 명에 달하는 여성과 아동들을 보호하였다.”는 설명문과 함께 비트린 여사의 조각이 세워져 있다.²⁹ 구관의 유골 전시관과 금릉겁난, 2002년 학살 65주년 기념으로 생존해 있는 수난자와 극동국제군사법정에 관여했던 중국인 등 222명의 족적을 탁본해 만든 동판로(南京大屠殺歷史 證人腳印銅版路), 자갈밭과 초지를 지나 ‘명상의 방’에 도착하면 ‘평화 광장’이다. ‘평화 광장’ 우측으로는 ‘승리의 벽’이, 좌측으로는 숲이 조성되어 있다. ‘승리의 벽’은 140m로 중국 인민이 피 흘려 쟁취한 승리의 장면이 부조되어 있으며, 조각과 더불어 신관의 클라이막스 중 하나다. 평화 광장 중간으로 물이 가득 담긴 수로가 흐르고 그 끝에 ‘평화’ 여신상이 서 있다. ‘평화’ 여신상의 높이 30m는 30만 희생자를 의미하고, 떠오르는 태양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중국 어머니의 위대한 풍채를 표현했다고 한다. 이리



〈그림 12〉 요한 라베 난징 안전구 국제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조성했다고 밝혔다. 『環球時報』(2014. 3. 31).

29 朱成山(2007), 앞의 책.



〈그림 13〉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어서는 안된다’- 전시관 안에 적혀 있는 요한 라베의 글

하여 ‘평화’ 여신상이 선미(船尾) 모양을 이루게 된다.

이상과 같이 난징대학살기념관은 ‘일본의 중국 침략과 난징 인민 학살의 확증을 충분히 표현하는 전시관’이자 ‘동포의 수난을 애도하는 장소’이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신세기 ‘난징의 상징적 건축’을 목표로 건설하였다. 신관 개관 후인 2008년 2월,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가 기념관을 방문하여 “난징기념관의 전시 내용이 일본인의 잔학성이 반복 강조되어 있고, 희생자가 30만이라는 숫자가 옛날보다 더욱 강조되어 있는 바, 난징은 기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기념관을 참관하는 일본인들에게 반감을 줄 수 있으니 전시 내용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난징대학살기념관을 전국 문물보호기관이자 세계적인 기념성·유적형 역사박물관으로서, ‘세계 일류·국내 최고, 국가 상징적 전쟁기념관’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다.



〈그림 14〉 평화 광장의 평화 여신상과 승리의 벽

2. 기념관의 애국주의 교육

난징대학살기념관은 당의 영도성을 주장하는 전시물과 전시관이 국가와 정부 등으로부터 청소년 교육 기지·정신 문명 건설 공작 선진 단위·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 등 영예 지정을 받았다라는 팻말이 수십 종 이상 걸려 있다.³⁰ 중국은 1949년 이후부터 ‘혁명의 애국주의 교육 추진’을 역사 교육의 중심으로 삼고, 공산당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고, 발생 지역에 진열소나 혁명사기념관 및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애국주의 교육을 추구하였다. 연안(延安)혁명기념관 등 혁명사류 박물관이 역사 교육을 담당한 것이다. 박물관은 근대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일한 역사의식을 고양시키는 역사 교육의 장

30 장쑤성 외사 접대 선진 단위 등 40여 개 성급, 전국 애국주의 시범 기지 등 30여 개 국가급 지정을 받았다. 朱成山 主編(2012), 앞의 책, 170쪽.

소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해왔고, 20세기 들어 범국민적 공동체 의식의 고양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하나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었다.³¹ 즉 근대 기념관의 기능은 전시뿐 아니라, 강연·출판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대중을 계몽하고 사회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³²

그런데 중국이 계획적으로 기념관을 이용하여 청소년에 대한 역사 교육을 실시한 것은, 개혁·개방과 함께 야기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퇴조 현상으로 애국주의 교육이 부각된 1990년대에 들어서다. 사회주의 조국이나 혁명은 이제 더 이상 중국 인민을 응집하는 사회 통합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공식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면서 국가 통합과 안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방안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에서 애국주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난징대학살에 대한 연구와 기념 활동도 활발해졌다.³³ 난징대학살기념관 등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 건립은 대외적으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의 역사 분쟁이 중요한 계기이자, 대내적으로는 애국주의 교육을 통한 국가 통합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다. 1990년 5월 장쩌민 [江澤民] 국가주석이 중국 청년들에게 애국주의 전통의 계승과 발양을 호소하였고,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1994년 8월 각종 박물관을 애국주의 교육 기지로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한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강요(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

31 김호숙(1999), 「박물관과 역사 교육」, 『실학사상연구』 13, 28쪽.
 32 예컨대 1900년대 초 미국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는 효과적인 교육적 역할을 위하여 박물관 교사를 두었으며, 사회주의 혁명 이후 소련에서도 도처에 혁명기념관 및 박물관을 설립하여 사회주의 혁명 전후를 비교 교육하는 데 박물관을 활용하였다. 김향숙(2000), 「박물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5쪽.
 33 이동률(2001), 「90년대 중국 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 21-1, 328쪽.

를 공포하여 애국주의 교육을 사회 건설의 전략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론·교재·조직·기지 선정 등 구체적 사업을 시작하였다.³⁴ 중국의 기념관·박물관은 국무원 문화부-국가박물관-성·시·문물국으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하에 있으며, 1977년 300여 개에서 1987년에는 827개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1012개, 1995년에는 1440개로 증가하였다.³⁵ 1995년 3월 중국은 주요 박물관·기념관·공원·유적 등을 중심으로 ‘100대 애국주의 교육 기지’를 발표하였으며, 난징대학살기념관도 포함되었다. 중국박물관국은 신중국 건설 60주년, 난징대학살 70주년 등을 계기로 ‘혁명·항전’ 계열 기념관의 역할이 증대하자, 2007년 중국박물관학회 산하에 민족정신 발양·혁명 전통 교육·애국주의 교육 발전 등을 목표로 항전 계열 기념관 관계자로 구성된 ‘기념관전문위원회’를 설립하고 기관지 『중국 기념관』을 발간하고 있다.

중국의 박물관 교육은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중등학교 일부 교사들도 중등학교 역사 교육과 지역 역사박물관뿐만 아니라 난징대학살기념관 등 일련의 애국주의 교육 기지 등을 체계적으로 답사함으로써 교육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³⁶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교사를 동반한 학생들을 무료 입장시켜 박물관의 애국주의 교육 기지로서의 활용을 증대시켰으며, 2008년 전국 140여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였다.³⁷ 난징대학살기념관은 2004년 초

34 각종 박물관·기념관·열사 기념 건축물·전투 기념 시설·문물 보호 지역·역사 유적·명승지·전시관 등을 애국주의 교육 기지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윤휘탁(2002), 「중국의 애국주의와 역사 교육」, 『중국사연구』 18호; 윤휘탁(2006), 「애국주의(교육론)」, 『신중화주의-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푸른역사, 88·96쪽.
 35 오일환(1998), 「중국의 박물관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고문화』 52집, 272쪽.
 36 龐建春(2008), 「현대 중국 중등학교 역사 교육과 박물관의 이용」, 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 교육부, 『역사 교육과 박물관』, 역사 교육연구회, 71쪽.
 37 2010년까지 중국의 국가급, 성급, 지방 도시급의 모든 박물관을 무료 개방하고 2015년

가장 먼저 무료 개방하여 연 최대 관람인 수가 665만 명, 월 최대 관람인이 90만여 명, 2013년까지 무료 입장한 관람인 누계가 3,826만 명에 달하는 등 애국주의 교육을 위한 효과가 매우 높았다.³⁸

중국 정부는 7·7(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 9·3(중국 항전 승리일), 9·18(만주사변), 12·13(난징대학살 기념일) 등을 항일전쟁 중요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각종 기념 활동을 펼치고 있다.³⁹ 기념관은 한 국가의 역사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참관을 통해 ‘공공 기억’을 형성하고, 민족정신을 배양하며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억을 증강시키는 공간이기도 하다.⁴⁰ 현재 중국은 12월 13일 난징대학살 기념일에 경보를 울려 시민들로 하여금 이날을 상기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민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과 ‘난징대학살 희생자의 국가 추모일’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가 추모의 근거로는 먼저 항일전쟁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정의로운 전쟁이었으며, 근대 이래 최초로 외침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둔 민족 해방전쟁이자 신중국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점이며, 난징대학살 희생자는 국가 차원에서 추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주장⁴¹ 등이다.

까지 전국에 3,000개의 박물관을 지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전역에 몰아치는 박물관 건설 광풍」, 『동북저널』 제327호(2007. 2. 12), 16쪽.

38 朱成山(2014), 「承載歷史記憶 弘揚民族精神-中國抗戰類博物(紀念)館建設與作用一瞥」, 『人民日報』(2014. 1. 16).

39 李宗遠(2005), 「8·15와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 『한중일 3국의 8·15기억』, 역사비평사, 150쪽.

40 王建梁(2004), 「紀念館: 民族的公共記憶」, 『中國教師』 4期, 華中師範大學教育科學學院, 4쪽.

41 2014년 2월 25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추모일을 12월 13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國擬設抗日勝利紀念日和南京大屠殺死難者公祭日」, 『环球网』(2014. 2. 25).

3. 기념관의 평화 활동과 평화 교육

난징대학살기념관은 전쟁의 비참함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평화기념관을 지향하고 있다. 평화기념관은 전쟁을 전시 대상으로 하지만 전쟁기념관과는 그 지향점이 다르다. 어떤 주제와 이념으로 전승하고자 하는 바를 전시하느냐에 따라 전쟁기념관과 평화기념관을 구분할 수 있다.⁴² 평화기념관을 지향하는 난징대학살기념관은 1937년 ‘난징 안전 지대’로 사용되었던 난징대학과 더불어 2001년부터 중국 내 평화 활동과 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기념관은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난징대학살 사진전’과 ‘세계 평화 기원 종교 의식’을 개최하였고, 난징대학 역사학계는 중국 대학에서 평화 연구 중심 및 평화학과를 첫 번째로 설립하였다.⁴³ 2002년 난징대학살 65주년 기념 활동으로 ‘역사 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포럼’이 처음 시작되었고⁴⁴, 2003년 일본의 평화 관련 단체와 난징 청년 단체 합동의 ‘평화 촛불 기원회’와 ‘청년 평화 토론회’ 등 평화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난징 평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활동과 교류·교육이 있지만, 이러한 평화 실천은 지향성과 지도성, 영향력이 있는 연구의 이론적 성과와 지도하에 형성

42 전쟁을 전시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기념관은 그 이념이나 내용이 다양하며, 일본에서는 침략전쟁을 둘러싼 역사 사실을 전시하여, 그 비참함·비인도성·인권 침해 실태들을 전하고자 하는 박물관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반전의 입장에 서는 전쟁 박물관을 평화 박물관으로 구별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기미즈카 요시히코[君塚仁彦](2004), 「日本에서 전쟁기억의 표상을 둘러싼 제문제-전쟁박물관에서 展示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회 학술대회』, 75쪽.

43 난징대학의 정규 평화 교육은 2003년 9월 시작되었다.

44 2002년 제1회 ‘역사 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포럼’에 참가한 한·중·일 세 나라의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의 역사 교재를 발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공동 역사 교재를 세 나라에서 동시에 출판하였다.

된 것이 이전의 어떤 시대의 평화 실천과 비교해 더욱 효과가 있었다.⁴⁵ 기념관의 주청산 관장은 평화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3년 평화 연구, 교육과 교류, 전쟁·공포·폭력 반대, 인권 보호, 세계 평화 보호 활동 등을 목표로 하는 난징국제평화연구소를 창립하고 ‘평화학’을 보급하였다.⁴⁶ 평화 교육이 시민학과 학교 등지에 개설되도록 하였으며, 난징대학과 난징사범대학 등에도 ‘국제 평화학’ 강좌가 개설되었다.⁴⁷ 2004년 12에는 평화 교육의 새로운 방식으로, 난징국제평화연구소의 인터넷 사이트를 정식 개통하여, 인터넷 망을 충분히 이용하여 평화 교육을 광범하게 진행하고 있다.⁴⁸

난징대학살기념관이 창립한 난징국제평화연구소는 2005년 12월 난징사회과학원과 협력하여 난징사회과학원 국제평화연구소로 확대되었다. 연구소 창립식에서 예난커[叶南客] 난징사회과학원장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곧 평화를 의미한다는 명제는 이미 오래된 것이며, 경제·문화·민족 등으로 평화의 의미와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소는 평화의 의미와 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난징시에 평화 공원·기념비 등을 건립하여 역사상

수난을 받은 난징시를 표현함과 아울러 평화 분위기를 발현한다. 병원·박물관·도로·다리 등에 평화라는 단어를 넣어 작명하고 평화 교육·교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념관은 평화 영역 확장을 위해 2006년 미국·일본·한국 등에서 120여 명의 평화학 전문가가 참여한 난징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하였고,⁴⁹ 2007년 난징시교육국과 함께 난징 시내 10개 초·중등학교를 ‘난징시 청소년 평화 교육 학교’로 지정하여 평화학을 교육하고 관련 교재 등을 편찬하였다. 특히 2007년 ‘난징대학살 70주년 국제 연구 토론회’를 일본·중국·한국을 포함한 10여 개 국가에서 연속으로 개최하여, 이를 통해 난징대학살을 난징에 국한하지 않고, 전쟁과 탄압 중에 발생했던 세계적 차원의 양민 학살 행위의 일환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⁵⁰

이같이 기념관은 난징대학살이라는 과거의 슬픈 분노에 ‘평화’라는 주제를 더하여 국제 평화 교류의 중요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기념관 출구에는 “중·일 인민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진하고,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영원히 우호 관계를 유지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쓰여 있고, 해마다 12월 13일에 기념관 집회 광장과 맞은 편의 ‘평화의 배’ 뱃머리에 난징 시민들이 모여 참사 동포를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국제 평화

45 朱成山 編著(2012),『和平學概論』, 南京出版社, 213쪽.

46 주청산 관장은 2004년 『평화학 입문』 등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평화 주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평화학은 국제적으로 1981년 36개 대학에서 1986년 106개 대학으로, 2000년 42개 국가의 381개 대학에 확대 개설되어 평화학 전공의 석·박사를 배양하는 등 세계적인 학문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난징을 중심으로 평화 교육 활동과 평화 연구 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난징국제화평연구』가 창간되고, 2006년 『세계화 평화개황』이 출판되었다. 步平(2012), 『和平學概論序』, 朱成山 編著, 위의 책, 1~2쪽.

47 난징대학은 중국에서 평화학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하였는데 ‘평화와 충돌’, ‘20세기 국제 충돌과 평화 화해’ 등 평화학 전문 과정을 개설하였고, 중국 최초의 평화 관련 학술 논문집인 『폭력 후의 정의와 화해』를 출판하였다. 2006년 ‘John Rabe와 국제안전지구 기념관’과 ‘John Rabe 국제평화와 충돌화해연구교류센터’를 개관하였다.

48 인터넷 사이트 이름은 和平南京網이고, 연구 기구·화평 활동·화평 연구·화평 교육·화평 선전·화평 교류·화평 전망·화평 서간·인터넷 교류 등 9개 주제가 있다. 朱成山 編著(2012), 위의 책, 203쪽.

49 朱成山(2008), 「역사와 평화를 연결하는 架橋 놓기-난징대학살 반성 중에서 동북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한중일의 전쟁유적을 평화의 초석으로』, 동북아평화벨트 국제학술대회, 390~391쪽.

50 2007년 3월 미국, 6월 캐나다, 9월 이탈리아, 10월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11월 한국과 중국, 12월 일본, 2008년 3월 필리핀 등이다. 난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국 참가자들이 학살 현장을 참관하였고, 중국 동북 지역에서 일본군의 주민 학살, 오키나와 전쟁 중의 주민 학살,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양민 학살, 6·25전쟁 중의 양민 학살 등 다양한 전쟁 중 양민 학살 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류를 중시하는 기념관은 국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으며, 해외 학자와 생존자가 참가하는 국제 학술 토론회와 사료 전시회를 조직하여 해외에서도 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념관은 영어·독일어·일본어·한국어 해설사와 12개의 언어 번역기와 소개문을 두고 있다. 기념관의 국제 교류는 확대되어 2011년 기념관 관중 563만 명 중 95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40만 명 이상을 차지하였다.⁵¹

하지만 평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쟁 이미지가 평화의 이미지로 둔갑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침략전쟁의 주동자를 국가의 영웅으로 찬양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長崎]의 원폭 피해를 강조한 ‘평화’의 이름으로 가려지는 문제점이 있다.⁵²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낮은 전쟁기념관과 달리, 평화기념관은 전쟁의 참혹함을 반전의 기초로 삼으며, 평화에 대한 가치관에 입각하여 전시하고 평화 교육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평화기념관은 지방 자치체를 중심으로 건립되어 있으나, 난징대학살이나 위안부 등 가해 사실을 전시하는 데 반대하는 일본 우익들의 공격으로 좌절되거나 왜곡되기도 하였다.⁵³ 그런데 중국의 대표적인 평화기념관인 난징대학살기념관도 일본의

히로시마평화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피해에만 초점을 맞춘 평화를 주장하고,⁵⁴ 다른 아시아 국가나 인접국의 피해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난징대학살을 둘러싼 중·일 양국 역사 인식의 이견과 쟁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역사 체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중·일 양국만의 전쟁에 국한하지 말고 주변국과의 상호 관계로 넓히고 세계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 난징평화박물관은 국경을 넘는 평화의 연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외형적 확대나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평화의 개념을 담아내는 이론적 실천적 교육 공간으로, 고통의 연대를 추구하는 평화 역사기념관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난징대학살기념관은 1985년 개관 이래 두 번이나 확대 개관하여 2007년 ‘평화의 배’를 상징하는 신관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기념관이 계속 확대된 배경에는 난징대학살을 부정하고 축소하는 일본 우익과의 논쟁과 그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다. 난징대학살기념관 건립은 1982년에 일어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직접적 계기였다. 일본이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꾸고 난징대학살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데 대항하여, 중국 정부는 역사 교과서

51 朱成山 主編(2012), 앞의 책, 2쪽.

52 히로시마평화박물관의 평화는 역사적 맥락이 제거된 ‘낭만화된 평화’이자 침략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위험한 평화라고 할 수 있다. 김민환(2006), 「일본 군국주의와 탈맥락화된 평화 사이에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6-1, 18~19쪽.

53 일본의 가해 사실을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평화기념관으로는 오오사카[大阪] 국제평화센터, 사카이[堺] 시립 평화와 인권자료관,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 국제평화뮤지엄, 홋카이도[北海道] 개척기념관 등이 있다. 하지만 가미카제 특공대 관련 기념관인 ‘치란[知覽] 특공평화회관’처럼 내용은 군사 박물관이지만 이름은 평화 회관인 박물관도 있다. 서민교(2008),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I』, 22쪽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I』, 18~22쪽.

54 일본인들이 히로시마의 평화주의에 이끌리는 것은 그 고상한 이념이 그들의 역사적 죄책감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양금식(2006),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배제의 논리」,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19쪽.

에서 항일전쟁을 상세히 서술하고, 중요 항전 기념일에 국가 규모의 기념 활동을 거행하게 하였다. 중국 각지에서 항일전쟁 유적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기념관 건설이 이루어지고, 일본의 침략 유적들을 ‘역사를 기억하고 국치를 잊지 않는’ 기념물로 전시하기 위해, 1985년 난징과 하얼빈, 1987년 베이징 등지에 대규모의 항일전쟁기념관과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이후 난징대학살기념관 신관이 확대되면서 웅대한 건물, 가로막힌 벽, 높은 기념탑 등으로 대단히 서사적이고 장엄성을 강조한 건축물이 되자, 본래 역사적 장소에 자연적 요소를 거스르지 않고 건축되었던 구관의 매력이 상실되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인 전국 애국주의 교육 기지로서의 비중이 높았고, ‘평화’를 주제로 평화 활동과 국제 교류를 확대하면서 기념관은 국내외적으로 애국과 평화 교육을 담당하는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난징대학살기념관과 같이 전쟁 유적에 대한 보호와 전시는 피해자인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국가와 전 인류를 각성시키고 교육하는 의미를 지닌다. 전쟁기념관과 박물관의 역할은 전쟁의 진실을 인식함으로써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예시를 기르게 하는 데 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 기념과 역사 쟁점의 문제는 중국, 일본과 전쟁 경험을 공유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런데 중국은 2014년 또다시 난징대학살기념관 옆에 항일 전쟁 승리를 주제로 하는 ‘중국전구(戰區)승리기념관’을 새로 지어 기념관을 두 배 이상 규모로 확충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당국이 ‘승리 기념관’을 새로 짓고 사살된 일본군 장교 62명의 명단도 전시하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대한 비난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⁵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5 난징대학살기념관은 ‘승리 기념관’ 전시를 위해 해외 교포와 시민들로부터 관련 문물과

2014년 3월 독일에서 강연하면서 일본군이 난징대학살 당시 30여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참상을 저질렀다고 언급하였다.⁵⁶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일본이 극구 부인하는 난징대학살 30만 명을 거론하며 일본의 과거사를 비난한 것은, 중국이 대외 정책 노선으로 내건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롭게 일어나다)’보다는 ‘대국굴기(大國崛起: 대국으로 우뚝 선다)’ 쪽에 더욱 가까워보인다는 평가가 적지 않으며, ‘역사굴기’라 불리기도 한다.

평화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던 난징대학살기념관이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 ‘승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자칫 평화를 지향해야 할 중국의 항전기념관 역시 일본의 가해에 대한 피해 사실만 주로 주장하고 인권 등 세계 보편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일본의 전쟁기념관과 유사해지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중국의 항전 기념관은 중국 내에서 전쟁 유적을 잘 보존하고 강력한 애국주의 교육 기지로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아직 ‘중화의 부흥’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동북아 평화의 개념을 거론하는 수준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쟁기념관은 각국의 역사 인식이 갖고 있는 일면성과 망각 지대를 보여준다.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이며 정치·사회적 요구나 필요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결과적으로 역사 분쟁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

사료를 기증받았다. 국민당 정부 충칭[重慶] 통일전선부 상무인쇄소가 발간한 ‘중국 군대가 사살한 일본군 장교’ 명단도 있는데 명단에 일본군 오오스미 미네오 해군대장 소속 장교 62명이 수록돼 있다. 난징대학살기념관 주청산 관장은 “국제적인 반(反)군국주의 전쟁에서 중국의 승리를 기념하는 ‘중국전구승리기념관’은 아베 등 일본 우익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난징대학살기념관 2배 키운다」, 『서울신문』(2014. 1. 28).

56 동시에 ‘난징 안전구’를 설립하여 20여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독일인 라베가 남긴 기록이 난징대학살 연구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중국은 1996년 독일과 공동으로 라베기념관을 난징에 건립하였고, 2013년 말 난징시에 라베 묘원을 조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日本抗議習近平提南京大屠殺 稱遇難人數存爭議」, 『新浪』(2014. 3. 31).

단행본

- 국성하(2007), 『우리 박물관의 역사와 교육』, 해안.
- 김학이·김기봉(2006), 『현대의 기억 속에서 민족을 상상하다-한중일의 사회적 기억과 동아시아』, 세종출판사.
- 아라이 신이치 지음·김태웅 옮김(2006), 『역사 화해는 가능한가-동아시아 역사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미래M&B.
- 전진성(2004), 『박물관의 탄생』, 살림.
- 전진성(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 정호기(2007), 『한국의 역사기념시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아이리스 장 지음·김은령 옮김(1999), 『난징대학살』, 끌레오.
- 아이리스 장 지음·윤지환 옮김(2014),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 난징대학살, 그 야만적 진실의 기록』, 미다스북스.
- Fogel, Joshua A. ed.(2000), *The Nanjing Massacre in History and Historiograp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riam Clifford, Cathy Giangrande and Antony White(2009), *CHINA: museums*, London: Scala Publishers.
- 葉皓 著(2010), 『南京大屠殺紀念館與中日關係』, 五洲出版社.
- 朱成山 編著(2012), 『和平學概論』, 南京出版社.
- 朱成山 主編(2012), 『侵華日軍南京市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故事』, 南京出版社.
- 劉傑·三谷博·楊大慶(2006), 『國境を越える歴史認識-日中對話の試み』, 東京大學出版會.
- 西田勝·平和研究室 編(1995), 『世界の平和博物館』, 日本図書センター.
- 戦争遺跡保存全国ネットワーク 編(2004), 『日本の戦争遺跡』, 平凡社.
- 歴史教育者協議会 編(2000), 『平和博物館 戦争資料館ガイドブック』, 青木書店.

다. 중국의 항전 기억이 주변 집단을 무시하는 또 다른 기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대항 기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평화기념관은 과거의 사실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후의 미래에 공헌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곳, 전쟁의 기억과 계승을 평화 구축의 주제로 삼기 위해 진실하고 정확한 역사를 학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국이 당한 피해와 '고통의 기억'을 분개와 전사자-영웅에 대한 찬미로 국한하지 않고, 자기 성찰과 연대감을 확대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자국의 고통에 '타인의 고통'을 교차시켜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됨을 막는 일이야말로 평화기념관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다.

앞으로 전쟁 유적의 보호와 전쟁 박물관의 건설 및 평화 교육 영역에서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정보 교류와 자료 공유 등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중국 내에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넘어 아시아가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화해를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비록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가 거세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일본에도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주변 국가와의 호혜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추구하고 있다. 전쟁 유적을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평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양심 세력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전쟁 관련 기념관의 발전을 추진하여 전쟁의 사실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교류하고, 전쟁 유적의 보호와 전쟁 역사 박물관의 건설 및 평화 교육 영역에서 협력한다면, 과거 전쟁의 기념관이 미래의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구축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 가네코 아쓰시[金子淳](2002), 「박물관의 정치성에 대해-박물관사 연구방법론에 대한 생각」, 星岡문화재단, 『미술사논단』 14.
- 김민환(2006), 「일본 군국주의와 탈백락화된 평화 사이에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6-1.
- 김창규(2013), 「남경대학살의 상흔과 성찰적 기억」, 『중국 근현대사연구』 57.
- 김향숙(2000), 「박물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김호숙(1999), 「박물관과 역사 교육」, 『실학사상연구』 13.
- 박결순(2005), 「남경대학살기념관과 평화교육의 대중화」,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출범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 량창(2005), 「남경대학살기념관과 평화교육의 대중화」,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출범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 박강배(2006), 「잊혀진 홀로코스트, 남경」,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배경한(1997), 「中日戰爭史研究와 ‘愛國主義」, 『중국 근현대사연구』 4, 중국 근현대사학회.
- 신주백(2001), 「동아시아 근현대사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억의 차이, 그리고 역사 교육」, 『역사 교육』 제82집.
- 안병직(2008),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한국사회의 집단기억」, 『역사학보』 197집.
- 여문환(2008),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정치와 국가정체성-한·중·일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박사학위 논문.
- 오일환(1998), 「중국의 박물관-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고문화』 52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윤휘탁(2002), 「중국의 애국주의와 역사 교육」, 『중국사연구』 Vol. 18.
- 이규수(2006), 「인간의 전쟁기억과 역사인식-일본의 ‘대동아전쟁’론 부활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11,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이동률(2001), 「90년대 중국 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 제21집.
- 정근식(2006),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 교육」, 역사 교육연구회, 『역사 교육』

제97집.

- 주성산·천준봉(2004), 「중국 남경평화기념 사업추진 방법 및 특징」, 『제주4·3기념 국제심포지움』.
- 팡지엔춘[龐建春](2008), 「현대 중국 중등학교 역사 교육과 박물관의 이용」, 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 교육부, 『역사 교육과 박물관』, 역사 교육연구회.
- Vickers, Edward(2007), “*Museum and nationalism in contemporary China.*”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Vol. 37, No. 3.
- 楊彪(2008), 「記憶与改变: 中国与日本的戰爭記憶」,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제학술회의, 『제2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
- 徐玲麗(2008), 「論博物館与學校愛國主義教育基地可持續發展性」, 『文教資料』.
- 王建梁(2004), 「紀念館: 民族的公共記憶」, 華中師範大學教育科學學院 『中國教師』 4期.
- 高橋進(2005), 「記憶と歴史学 -ファシズム、レジスタンス、戦争犯罪-」, 『竜法』 38-3.
- 広瀬義徳(2004), 「東アジア歴史的公共知との平和概念の再検討」, 『東アジア教育文化学会年報』 第1号.
- 君塚仁彦(2004), 「東アジアにおける戦争記憶に関する問題の諸相」, 『東アジア教育文化学会年報』 第1号.
- 鈴木千慧子(2004), 「南京大虐殺をめぐる動向と課題」, 『戦争責任研究』 46.
- 大日方悦夫(1998), 「戦争遺跡保存の意義と課題」, 『戦争責任研究』 第19号.
- 君塚仁彦(2006), 「日本における戦争記憶の表象と課題-戦争博物館の展示を中心に」, 君塚仁彦 編著, 『平和概念の再検討と戦争遺跡』, 明石書店.
- 黒尾和久·君塚仁彦 編著(2006), 「戦争遺跡概念の再検討と平和への可能性」, 君塚仁彦 編著, 『平和概念の再検討と戦争遺跡』, 明石書店.

기타

- 朱成山(2014), 「承載歷史記憶 弘揚民族精神-中国抗戰類博物(紀念)館建設与作用一瞥」, 『人民日報』(2014. 1. 16).
- 南京大虐殺紀念館.
<http://njdts.china1840-1949.net.cn/>.

세군전의 기억과 중국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의 새 방향

침화일군 제731부대 죄증진열관을 중심으로

I. 머리말

II. 731부대진열관 건립 과정

III. 731개발관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IV. 애국주의 내러티브와 진열관 콘텐츠의 구성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균전의 기억과 중국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의 새 방향

침화일군 제731부대 죄증진열관을 중심으로

I. 머리말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미야기현(宮城縣) 히가시 마쓰시마시(東松島市)의 항공 자위대 기지를 방문해 곡예 비행단 ‘블루 임펄스’를 시찰하면서 ‘731’이라는 편명이 적힌 훈련기의 조종석에 앉아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린 포즈로 사진을 촬영하였다.¹ 일국의 총리가 731이라는 숫자가 담고 있는 역사적 상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즐거운 표정을 지음으로서 더 이상 731에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731은 여전히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역사적 상징



〈사진 1〉 항공 자위대 731편에 탑승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아베 총리(2013. 5)

1 『서울신문』(2013. 5. 13), 25면.



신규환(辛圭煥)

동아시아의학사·중국근현대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연구조교수
대표논저: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의학의 재발견』(2006, 살림출판사), 『국가, 도시, 위생: 1930년대 베이핑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2008, 아카넷), 『북경통장수: 어느 중국인 노동자의 일상과 혁명』(2014, 푸른역사) 등.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에게 731은 더 이상 금기나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회화와 조롱의 대상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731은 피해자만이 기억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가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역사 문화’라 할 수 있다.

역사 문화란 개인적인 기억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집단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기억의 층위를 지칭하는데, 사회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식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으로 이해된다.² 역사 문화는 다양한 매개물과 메커니즘을 통해서 형성되고 작동된다. 그중에서도 역사박물관은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 문화의 발현 형식이며, 대중이 역사를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소비하는 대표적인 매개물이다. 다큐멘터리나 영화가 일회적으로 소비된다면, 역사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역사 지식이 소비되고 기억된다는 점에서 역사 교육과 대중적 정체성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역사 문화의 매개체다.

최근 대중적 역사 문화와 역사박물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주로 국립박물관이나 대학 박물관 등이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³ 그 밖에 전쟁 박물관은 특수 박물관으로서 민족과 영웅에 대한 강조를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이자 선전 매체로서 주목받았다.⁴ 이들 박물관들은 최근

2 이동기(2011),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역사비평』 96, 245~246쪽.
 3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에 대해서는 하세봉(2010), 「대만 박물관과 전시의 정치학: 3대 박물관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45; 오일환(2008), 「중국 대학박물관의 설립과 역할에 대한 연구」, 『고문화』 71; 오일환(2010), 「대학박물관의 전시연계교육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고문화』 76.
 4 전쟁 박물관에 대해서는 임현영(2008), 「8·15와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 『한·중·일 3국의 8·15기억』, 역사비평사; 박경석(2009), 「동아시아의 전쟁기념관과 역사 갈등: 중국인 민항일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41; 김정현(2009),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의 애국주의와 평화문제」, 『역사학연구』 35, 호남사학회.

애국주의 교육 기지 및 전국 청소년 교육 기지로서 중국 민족주의와 애국심 고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⁵

지역 박물관 역시 역사박물관이나 지역 특색의 박물관을 개설하여 지역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교육과 선전에 활용되고 있다. 그중에서 침화일군 제 731부대 죄증진열관(侵華日軍第731部隊罪證陳列館, 이하 731부대진열관)은 중국 동북부의 하얼빈시[哈爾濱市] 남부 외곽에 위치한 지역 박물관이면서 세균전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⁶ 731부대진열관은 그 규모나 성격은 초창기에는 시급 박물관으로 출범했지만, 국가 지도자와 중앙 정부의 지원 속에서 국가급 박물관의 위상을 갖게 된 독특한 사례이기도 하다. 731부대 유적은 세균전이라는 일제의 침략성과 반인류적 잔혹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항일과 전쟁 범죄의 상징물로 존재하였다. 731부대 유적을 중심으로 진열관으로 개조된 후, 현재에는 한 해 평균 20만 명이상이 관람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급 박물관으로 성장하였다.⁷

731부대진열관을 비롯하여 세균전 박물관은 2000년대 이후 중국 각 지역

5 1994년 8월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강요」를 발표하였고, 박물관 등을 주요 애국주의 교육 기지로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윤휘탁(2006), 『신중화주의』, 푸른역사, 88~96쪽.
 6 侵華日軍 第731部隊 遺址陳列館은 최근 侵華日軍 第731部隊 罪證陳列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적 자체보다는 범죄 증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속칭 731陳列館 혹은 731部隊展覽館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731부대진열관이라고 약칭하고자 한다.
 7 <표 1> 최근 3년간 731부대진열관 참관 인원(자료: 731부대진열관 제공)

연도	중국인	외국인	합계
2010년	192,546명	16,484명	209,030명
2011년	186,002명	16,024명	202,026명
2012년	212,620명	13,300명	225,920명

에서 등장하였고, 최근에서야 중국 국민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상에서 731부대의 잔혹한 활동상을 고발하고 있지만, 교과서의 특성상 할애할 수 있는 분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⁸ 731부대의 세균전 및 화학전 활동은 전쟁의 참혹성을 넘어 생체 실험이라는 일제 만행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중국 정부로서는 세균전의 기억이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중국 대중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다. 731부대진열관 건립 이후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 교육 기지 중의 하나로 731부대진열관의 활동에 주목해 왔으며, 정부와 민간 모두 진열관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731부대진열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여행 관리학에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일환으로 연구하거나 건축학에서 731부대 개발에 관해 연구하기도 했다.⁹ 이 밖에 731부대진열관 내부 관계자들이 731부대진열관에 대해 소개한 글을 비롯하여 731부대진열관의 발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애국주의 교육 기지 선정과 관련한 애

국주의와 국방 교육의 장소로서 731부대진열관의 의의를 강조해 왔다.¹⁰ 반면 731부대진열관의 정치적 성격 및 전시 콘텐츠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제출되고 있지 않다. 이는 731부대진열관의 전시 콘텐츠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내부 자료를 거의 활용할 수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이 연구는 731부대진열관이 중국 사회에서 어떻게 건립되고 발전해 왔는지, 특히 731부대진열관이 기존 전쟁 박물관과 달리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731부대진열관은 전시 콘텐츠와 규모 등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중심에는 731개발관리위원회 구성과 신임 관장의 임명 등이 있었다. 본고는 우선 731부대진열관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 중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검토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731개발관리위원회의 등장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731부대진열관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중국 정부가 애국주의 교육 기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갔는지, 세균전의 기억이 어떤 식으로 중국 민족주의 교육에 활용되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혐의를 갖고 있는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이 세균전의 기억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지향을 갖게 되었는지도 탐구하게 될 것이다.

8 馬克思主義理論研究和建設工程重點教材 編寫組(2009), 『中國近現代史綱要』(2008年修訂版), 高等教育出版社.

9 다크 투어리즘은 1996년 영국의 맬컴 폴리(Malcolm Foley)와 존 레넌(John Lennon)이 처음 제안했으며, 2000년에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정식으로 제기된 용어로 전쟁, 학살, 재난 등이 일어난 곳을 여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Malcolm Foley and John Lennon(2000),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London: Continuum, 중국에서는 흑색 여행[黑色旅遊] 혹은 흑암 여행[黑暗旅遊]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교훈 여행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柴壽升·向丹陽(2011), 「黑色旅遊產品開發: 侵華日軍第731部隊遺址RMP分析」, 『經營與管理』6期; 趙鵬·王秀琴(2010), 「整合資源, 制定'哈南'旅遊發展新戰略」, 『哈爾濱市委黨校學報』69; 侯兆銘(2002), 「歷史地段的保護與更新: 侵華日軍第731部隊罪證遺址的綜合開發研究」, 『建築學報』12.

10 張偉紅(2005), 「充分發揮愛國主義教育基地作用」, 『黑龍江檔案』8; 程立華(2006), 「論推動“731”陳列館愛國主義教育工作」, 『科技資訊』186; 金成民(2008), 「731遺址的保護, 開發及展示」, 『學理論』2; 徐雪峰(2009), 『黑龍江省青少年愛國主義教育基地利用與開發研究』, 東北林業大學 碩士論文; 王鵬(2009. 4. 23), 「關於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罪證陳列館體制改革的調查與思考」, 哈爾濱市旅游局, <http://ta.harbin.gov.cn/FGWX/LYDY/2009/04/23/438.html>.

II. 731부대진열관 건립 과정

731부대진열관은 중·일전쟁 종결 이후 현재까지 크게 4개 시기로 나누어 그 발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¹¹ 1단계는 1945년부터 1981년까지로 이 단계는 훼손과 보호가 병존했던 시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31부대 유적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1950년 일본이 세균전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는 소련 하바롭스크 재판 자료가 공개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동베 이인민정부(東北人民政府) 위생국(衛生局)은 하얼빈 핑팡구[平房區] 731부대 본부, 명자툰[孟家屯] 세균전 공장 및 안다[安達] 특별 실험장 등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1952년에는 후차오무[胡喬木]가 731부대 유적을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58년 대약진 운동과 1969년 문화대혁명 이래로 731부대 유적은 크게 손상되었다.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 731부대 동력반의 철근 골조를 뽑아서 제강하였고,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는 지하 동굴을 찾는다라는 명분으로 땅파기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유적지의 담벽을 허물고 지하 시설을 파괴하였다. 몇몇 공장주와 주민들은 731부대 유적에서 나온 벽돌 등을 이용하여 공장 부지와 주택 건설용으로 사용하였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731부대 시설에 가정집을 꾸미거나 사무실을 열기도 하였다.¹²

제2단계는 1982~1998년까지 본격적으로 유적 보호가 시작된 시기다. 1982년 10월 18일 문화부(文化部)는 문건 1289호 「일본 침화 죄행 유적지를 잘 보호하기 위한 업무 통지(做好保護日本侵華罪行遺址工作的通知)」를 통하여 각

성·시·자치구의 문화국(文化局) 주도로 일제의 만행을 증거하는 유적지를 보호하도록 명령하였다. 1982년 12월 하얼빈시는 정식으로 핑팡구 문물관리소(文物管理所)를 설치하여 731부대 유적을 관리하였다. 또, 시정부는 731부대 유적을 시급(市級)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고 「관동군 731부대 죄행 유적지 보호에 관한 통고(關於保護原日本關東軍第七三一部隊罪行遺址的通告)」를 제출하여 731부대 유적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 3월 7일,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인민 정부(人民政府)는 하얼빈 일본세균공장죄증전람관(哈爾濱日本細菌工場罪證展覽館)을 설립하였고, 731부대 유적을 성급(省級) 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였으며, 10만 위안의 경비를 지출하여 문물 보호, 자료 조사, 전시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83년 8월 2일, 하얼빈시 핑팡구 인민 정부는 기존 핑팡구 문물관리소를 폐지하고, 하얼빈 일본세균공장죄증전람관을 설치하였다.

1985년 7월 26일, 헤이룽장성 편제위원회(編制委員會)는 하얼빈 일본세균공장죄증전람관을 침화일군 제731세균부대 죄증진열관(侵華日軍第731細菌部隊罪證陳列館)으로 개칭하였다. 1985년 8월 15일, 침화일군 제731세균부대 죄증진열관은 외부에 전면 개방되었다. 1991년에는 성정부 및 시정부 40만 위안, 국가문물국 40만 위안, 일본 민간 기금 77만 위안 등 157만 위안이 유적 보호 및 전시 사업에 투입되었다. 1993년 9월에는 731부대 유적 중 22개소가 보호 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유적지 3m 이내는 특별 보호구, 10m 이내는 중점 보호구, 20m 이내는 일반 보호구 등으로 지정되었다. 1995년 8월 15일, 731부대 유적지 300m 지점에 진열관 신관을 개관하였다. 1997년 8월, 중국인 108명은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731부대의 죄상을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제3단계는 1999~2005년까지로 731부대 유적지를 정리하고 진열관이 재

11 任博(2011, 11, 2), 「“哈爾濱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保護條例”昨日正式實施, 立法保護還原一個“黑太陽”」, 『每日新報』, 12면.

12 金成民(2010), 『일본군 세균전』, 청문각, 946쪽.

정비된 시기다. 성정부 및 시정부 1,100만 위안, 사회 각계 700만 위안 등을 유적지 보호 사업에 투여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유적 지구 내의 143개 가구와 12개 공공 기관이 타지로 이전하였다. 일본에서 민간인 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4년이 지나도록 일본 법원의 판결이 없자, 2000년 5월 중국 정부는 731부대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1년여 동안 731부대 관련 유물과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2001년 6월 전 세계에 731부대의 죄상을 공개하고, 중국인에게 반일 민족주의를 고취할 목적으로 침화일군 제731세군부대 죄증진열관을 재개관하였다. 2003년 4월 9일, 하얼빈시 평방구 기구편제위원회(機構編制委員會)는 침화일군 제731세군부대 죄증진열관을 침화일군 제731부대 죄증진열관(侵華日軍第731部隊罪證陳列館)으로 개칭하였다. 2004년 12월에는 전국 12대[12家] 중점홍색여행지구[重點紅色旅遊景區]가 선정되었는데, 731부대 유적은 동베이 홍색여행구[東北紅色旅遊區]의 일원으로 선포되었다. 2005년 731부대 유적은 전국 100대 홍색여행 표준지구[全國百家紅色旅遊經典景區]로 선정되어 국가 여행 기초 설비 건설[國家旅遊基礎設施建設] 첫 번째 국채 자금 2,680만 위안을 획득하였다. 2005년 저장성[浙江省] 이우시[義烏市] 충산촌[崇山村]에서는 침화일군세균전 이우전람관[侵華日軍細菌戰義烏展覽館]을 개관하였고, 이후 2008년 7월 7일 취저우[衢州]에 세균전주제전람관(細菌戰主題展覽館)이 개관되었으며, 2009년 7월 6일에는 Ningbo(寧波)에 Ningbo카이밍제 페스트 재난진열관[寧波開明街鼠疫災難陳列館]이 개관되어 일제의 세균전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알려진 저장성에서 자행된 일제 세균전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박물관 건립 등이 이어졌다.

제4단계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731부대진열관이 국가급 문물 단위로 성장한 시기다. 진청민[金成民] 731연구소장이 제안한 「731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연구(關於731遺址申報世界文化研究)」가 2006년 12월 『신화사

(新華社)』에 게재되면서 731유적지가 국가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¹³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장춘[李長春], 국무위원 천즈리[陳至立], 국가문물국 국장 단지샹[單霽翔] 등 중앙 지도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진열관 측의 제보에 따르면, 특히 리장춘 상무위원은 2006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구두 지시로 731부대 유적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관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단지샹 국장 역시 하얼빈을 방문하여 731부대 유적지 보호 업무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¹⁴ 2006년 중공중앙(中共中央) 국무원(國務院)이 731부대 유적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한 것도 국가 지도자들의 관심과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982년 시급 문물단위로 시작된 731부대 유적은 1983년 성급 문물단위로 지정되고, 2006년에 국가급 문물단위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얼빈 침화일군 제731부대 유적지 보호조례(哈爾濱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保護條例)」가 정식으로 제정되어, 731부대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실시되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2009년 4월, 2010년 1월, 2013년 4월, 2014년 1월 등 네 차례에 걸쳐 731부대진열관을 방문하였는데, 세 번째 방문 기간 중 진열공간이 대폭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 내용 등도 크게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열관 측에 따르면, 2002년 진열관 관리 인원은 30명 미만이었지만, 2009년 3월, 진청민 관장 부임 이후 관리 인원의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있었고, 현재 관리 인원은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13 731부대진열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일본 히로시마 평화 공원 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자극받은 것이다. 731부대 유적을 등재시키려는 움직임이 1996년부터 시작되었고, 2002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731遺址記錄日軍二戰罪行將申報世界文化遺產」, 网易科技報道(2004. 10. 30), <http://tech.163.com>.

14 金成民(2010), 앞의 책, 청문각, 8쪽.



〈사진 2〉 731부대진열관 전경: 정면 왼쪽은 2008년까지는 하얼빈시25중학이 사용하여 진열관으로 활용되지 못하다가 2009년 이후 진열관으로 확장되었다. 건물 맨우측 2층이 이시이 시로 부대장의 집무실이다. 이시이 집무실 오른쪽에 파괴된 보일러실이 보인다.

〈표 2〉 731부대진열관 역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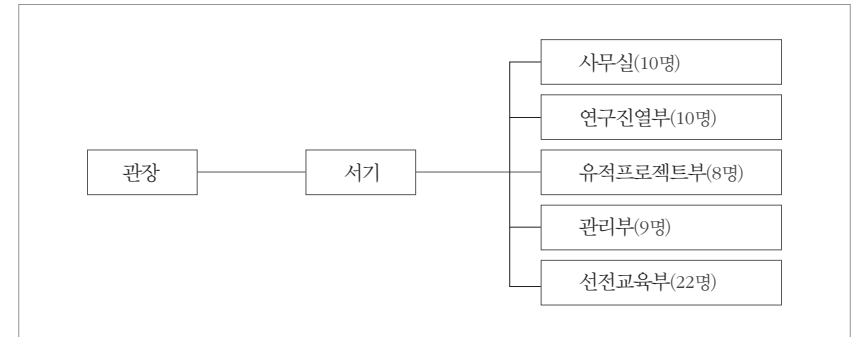
역대	성명	재직 기간	비고
제1대	한샤오[韓曉]	1983. 4~1995. 3	1990년후 당지부서기 겸직
제2대	탄징보[譚景波]	1995. 3~1998. 7	핑팡구 문화국국장 겸임관장 및 당지부서기
제3대	왕이팅[王一汀]	1998. 7~2001. 6	당지부서기 겸직
제4대	왕펑[王鵬]	2001. 6~2009. 3	당지부서기 겸직
제5대	진청민[金成民]	2009. 3~현재	단창칭[單長淸] 서기 부임(2009. 10~현재)

2009년 8월, 본부 건물 좌측을 사용하던 하얼빈시25중학으로부터 본부 건물을 반환받아 전시 공간을 크게 확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731부대 진열관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원 속에서 731부대 유적지에 세계 평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부 건물·항공반 등 731부대 유적지를 중심으로 총 25만여 평에 이르는 부지에 평화 공원을 조성 중인데, 총 3년여 동안의 공사 기간을 예정하고 있다.

1983년 4월 제1대 한샤오[韓曉] 관장 부임 이래로 현재 5대 관장이 재임하고 있다. 제4대까지는 관장이 당서기를 겸직하는 형태였고, 제5대 진청민 관장 이후로는 당서기가 별도 임명되고 있다. 구조상 진열관의 행정 체계는 관

〈표 3〉 731부대진열관의 조직 구성(2013년 10월 현재)



장과 당서기의 분권 구도이긴 하지만 현 단창칭[單長淸] 당서기는 관장 추천인으로 오히려 관장의 지도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금 현재 진열관 조직은 관장, 서기 이하 5개 조직, 6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임 왕펑[王鵬] 관장 시기에는 관장이 서기를 겸직하고 있었으나, 신임 진청민 관장 시기에 이르러 관장 아래 서기를 두고 현재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그 밖에 선전교육부 등 관리 인원이 크게 늘어난 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유적프로젝트부가 보강된 점이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실[辦公室]은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진열부는 731부대 관련 연구 및 전시실 진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적프로젝트부[遺址項目部]는 731부대 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정식 등재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서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예비 등록을 마치고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다. 관리부[物業管理部]는 자재 관리, 후방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전교육부는 진열관 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안내원, 해설사, 경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III. 731개발관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1997년 중공중앙 선전부가 731부대진열관을 전국 100대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로 선정한 이래로, 2000년 하얼빈 시정부는 731부대진열관을 국가급 문물보호단위 선정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관련 문물과 유적을 정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¹⁵ 2001년부터는 731부대진열관 사업이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일환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시정부는 「731유적지 보호 이용 계획[731遺址保護利用規劃]」을 반포하고, 731본부 2호 건물을 중심으로 정비하였다.¹⁶ 2003년부터는 731부대진열관 사업이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 및 ‘항전 승리 60주년’ 기념 사업으로도 주목받았다.¹⁷ 2005년에는 731부대 유적 주변 환경 조성 공사에 1억 위안의 비용이 투입되었고,¹⁸ 전국 제27개 중점홍색여행정품선로(重點紅色旅遊精品線路) 중의 하나로 채택되어 국가 개발 자금 2,930만 위안이 투입되었다.¹⁹ 2006년 국가 문물국은 731부대 유적을 국가급 문물 보호 유적으로서 문화유산보호공작선진집체(文化遺產保護工作先進集體)로 선정하기도 하였다.²⁰

15 「2001年政府工作報告(2000年工作完成情況及2001年工作安排)」(2001. 3. 24) <http://www.hrbpf.gov.cn/xxgk/ghjh/gzbg/2001/03/5317.htm>.

16 「2002年政府工作報告(2001年工作完成情況及2002年工作安排)」(2002. 4. 24) <http://www.hrbpf.gov.cn/xxgk/ghjh/gzbg/2002/04/5316.htm>.

17 「2004年政府工作報告(2003年工作完成情況及2004年工作安排)」(2004. 3. 15) <http://www.hrbpf.gov.cn/xxgk/ghjh/gzbg/2004/03/5314.htm>.

18 「2005年工程收尾工作及2006年建設工作安排」(2006. 1. 27) <http://www.hrbpf.gov.cn/xxgk/cxjs/jhxx/2006/01/6187.htm>.

19 「2006年政府工作報告(2005年工作完成情況及2006年工作安排)」(2006. 3. 13) <http://www.hrbpf.gov.cn/xxgk/ghjh/gzbg/2006/03/5311.htm>.

20 「2007年政府工作報告(2006年工作完成情況及2007年工作安排)」(2007. 2. 25) <http://www.hrbpf.gov.cn/xxgk/ghjh/gzbg/2007/02/5310.htm>.

2007년 평양구 정부는 731부대 유적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731개발관리위원회(731開發管理委員會)를 설치하고, 문화흥구(文化興區)라는 발전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래 개발관리위원회는 각급 박물관 및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지원을 위해 발족한 조직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 성립한 것이다. 특히 731부대 유적의 경우, 주민들이 유적지에서 거주하거나 활용되고 있는 빈도가 높아, 유적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거주 주민의 이전과 유적지 복원 등 적지 않은 민원 업무 및 행정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731개발관리위원회는 진열관의 지도급 인사와 구정부 행정팀으로 구성되어, 731부대 유적의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박물관 조직은 대개 국가박물관, 성정부, 시정부, 현정부, 구정부 등 각급 행정 조직에 부속된 기관으로 정부조직(市政府 혹은 市委)과 당조직(黨委) 등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난징대학살기념관(南京大屠殺紀念館)은 난징시위(南京市委) 선전부(宣傳部)에 소속되어 있고, 선양(沈陽) 9·18역사박물관(九一八歷史博物館)은 선양시 문화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베이징항전관(北京抗戰館)은 베이징시(北京市) 핑타이구 정부(豐臺區政府)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 박물관은 모두 지방 정부가 유지 관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급액은 박물관마다 일정치가 않아서, 9·18역사박물관은 선양시가 매년 240만 위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징대학살기념관은 난징시가 매년 210만 위안을 지원하고 있다. 박물관 관리 체계상으로는 베이징항전관과 창춘만주국황궁박물관(長春偽滿皇宮博物館)이 관장 초빙 제도를 실시하여 박물관 기구를 개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박물관들은 원래의 관리 체계를 따르고 있다.²¹

21 王鵬(2009. 4. 23), 「關於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罪證陳列館體制改革的調查與思考」, 哈爾濱市旅游局, <http://ta.harbin.gov.cn/FGWX/LYDY/2009/04/23/438.html>.

중국의 박물관은 국가급 박물관의 경우에도 대개는 시정부 등의 직접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31부대진열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을 따르고 있다. 731부대진열관은 직접적으로는 핑팡구 정부의 관리와 지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얼빈 시정부와 헤이룽장성 정부의 중요 문물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명목상으로는 국가급 문물보호유적으로 대우받고 있다. 2007년 시정부 및 성정부 여행국(旅遊局)은 정부가 731부대진열관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되, 여행사와 합작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부 및 성정부 계획위원회는 중앙 정부 차원의 국채를 주로 투입하여 관련 유적을 개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타 자금은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731부대진열관 왕핑 관장은 2007년 731개발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진열관 개발 모형을 구상하였고, 731부대진열관의 국가 지원과 새로운 용자 모델을 통한 주식 제도의 도입, 관장 초빙 제도 등 투자 유치 및 수익 창출 등 혁신적인 진열관 개혁 모델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국가문물국이나 당중앙선전부 등은 2008년 3월부터 박물관 무료 입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왕핑 관장의 구상과는 대립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상황이었다.

2009년 왕핑 관장의 퇴진과 신임 진청민 관장의 임명은 731부대진열관의 향방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한다. 왕핑 관장은 줄기차게 731부대진열관과 애국주의 교육을 강조해 왔고, 진열관의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한 개혁 모델을 기획하였다. 반면 진청민 관장은 731부대진열관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731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무료 관람, 연구 교류, 전시 콘텐츠의 변화 등을 통해 731부대진열관의 개혁을 추구하였다.²²

결국 2009년 왕핑 관장이 퇴진하고, 진청민 관장이 임명되면서 731부대진

열관은 투자나 수익 개념보다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진열관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실제로 필자의 관람 경험으로는 2011년 이후 진열관 전시 콘텐츠가 확대·강화되었고, 진열관 내부에 731 관련 자료 및 연구서 등을 대량 구비하는 등 근거 자료 확보 위주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진열관 측에 따르면 최근에는 3~4개월 단위로 전시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제보에 따르면, 왕핑 관장 시기에는 731개발관리위원회 내부에 시 행정조직과 당조직 사이의 경쟁 때문에 불협화음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신임 진청민 관장은 당시기를 자신이 추천한 인물로 임명되게 함으로써 내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장 직속으로 모든 조직을 일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왕핑 관장이 투자 유치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실행 기구로 구축했던 731개발관리위원회는 상부의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고 진열관 운영을 기획하는 기구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IV. 애국주의 내러티브와 진열관 콘텐츠의 구성

731부대진열관 설립 이후 진열관 콘텐츠 구성의 기본 방향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학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애국주의 교육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탈냉전, 탈이념에 따른 국가 정체

22 중국 내에서는 731부대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등재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蔡東民(2008, 9, 19), 「731遺址是警示人類的符號」, 『黑龍江日報』, http://www.hljnews.cn/xw_why/system/2008/09/19/010224607.shtml.

성을 강화하려는 대안을 찾고 있었고, 1982년 일본 교과서 왜곡 논쟁을 거치면서 애국주의가 크게 주목받았다. 1990년 5월 3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수도 청년 5·4 기념 보고회[首都青年紀念五四報告會]」에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애국주의 전통의 계승과 발양을 호소하였으며, 그 이후로 애국주의 교육이 본격화되었다.²³ 1994년 8월 23일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강요(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를 발표하면서 애국주의 교육을 통한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강요」는 각종 박물관을 애국주의 교육 기지로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²⁴

1995년 3월 민정부(民政部)는 중국의 주요 박물관, 기념관, 공원, 유적 등을 중심으로 100대 애국주의 교육 기지를 발표하였고, 731부대진열관 역시 그 중의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애국주의 교육 기지를 활용한 애국주의 교육은 개혁·개방 이후 탈냉전과 탈이념의 추세 속에서 새로운 국가 통합의 방안으로 청소년 및 대학생 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1995년 5월, 중공중앙 선전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부, 신문출판사, 공산주의청년단 등은 「전국 초중등학생에게 100종 애국주의 교육 도서를 추천하는 것에 관한 통지[關於向全國中小學推薦百種愛國主義教育圖書的通知]」를 발표하고, 100종의 애국주의 교육 도서 독서, 100부 애국주의 영화 감상, 100곡 애국주의 가곡 애창 등을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애국주의 교육 내용으로 삼았다.

1996년 10월 10일, 장쩌민 총서기는 중공 14계 6중 전회 중요 강화에서 “우리의 사업을 계속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 인민, 특히 청소년

년 가운데 진일보하게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들이 견지하는 애국주의는 편협한 민족주의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우리 인민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대외 개방을 견지하여 세계 각 민족의 장점을 열심히 배우고 선진적 과학기술과 경영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하여 우리의 자생력도 증강되어 조국의 발전을 가속시키게 한다. 이것이 바로 애국주의의 중요 내용이다.”라고 하였다.²⁵ 장쩌민은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애국주의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외 개방과 국제주의를 강조하였다.

1996년 11월, 국가교육위원회, 민정부, 문화부, 국가문물국, 공청단중앙, 해방군총정치부 등은 전국 초중등학생들에게 100대 애국주의 교육 기지를 추천하였다. 1997년 7월, 중선부는 100대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를 공포하였고, 이것을 통해 전국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에 영향을 주고 움직여 나가게 하고자 하였다. 이때 공포한 100대 시범 기지 중 역사 문화와 관련된 것이 19개, 제국주의 침략 및 민중 투쟁과 관련된 것이 9개, 혁명 투쟁 및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된 것이 75개였다.

2001년 6월 11일, 중선부는 당의 빛나는 역사를 주요 내용으로 반영한 제2차 100대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를 발표하였다. 2005년 11월 20일, 중선부는 제3차 66개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 명단을 발표하였다. 2009년 5월, 중선부는 제4차 87개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를 발표하였는데, 그 뜻은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을 진일보하게 추동하고, 애국주의 교육 기지 작용을 더욱더 발휘하고, 균중성 애국주의 교육 활동을 더욱 심화 전개하고, 애국 열정을 격발시키고, 인민 역량을 응집시키고, 민족정신을 배양시키는 데 있었다.

23 윤휘탁(2006), 『신중화주의』, 푸른역사, 87~88쪽.

24 「中共中央關於引發‘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的通知」(1994. 8. 23), 羅國杰 主編 (1998), 『中國情神文明建設20年』, 中州古籍出版社, 927쪽.

25 江澤民(1997. 5. 11), 「關於加強愛國主義教育(1996. 10. 10)」, 『人民日報』, 1면.

731부대진열관 설립 이후 진열관의 주요 콘텐츠는 반일 민족주의를 선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애국주의 교육 기지 선정 이후 정부가 국제주의 등을 강조하였지만, 진열관의 전시 콘텐츠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2006년 731부대진열관 내부에서 세계 평화와 애국주의 교육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논의한 적이 있었다.²⁶ 그러나 국제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는데, 2012년 일본인 고아를 돌본 ‘중국 어머니의 큰 사랑’ 전시실의 개관을 통해 국제주의와 관련된 콘텐츠를 고안해냈다.

731부대는 현 하얼빈시 중심부에서 동떨어진 남부 핑팡구에 산재하고 있는데, 진열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부 건물을 비롯하여 731부대 숙영지와 부속 건물 등 23개소로 구성된다. 731부대진열관은 본부 건물 등을 중심으로 731부대 유적을 전시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731부대의 세균전과 화학전 활동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의식하여 진열관 콘텐츠는 사실성과 실증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시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731부대의 세균전 활동을 전시하기 위해 진열관 측은 1990년 3월부터 731부대 본부 건물 우측 1층을 전시관으로 사용하였고, 우측 2층을 사무실과 접대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1995년 8월 15일, 731부대 본부 건물 인근에 진열관 신관을 개관하고 1·2층에 걸쳐 전시관을 개관하였다. 그러나 전시 공간이 여전히 협소하여 2001년 731부대 본부 건물로 전시실을 이전하였다. 당시 본부 건물의 좌측은 하얼빈시25중학교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부 건물 우측 1·2층만을 세균전 전시실로 사용할 수 있었다.

2009년 신임 진청민 관장이 부임한 이후 하얼빈시25중학교가 이전하였

고, 본부 건물 전체를 전시실로 개조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 건물 우측 1·2층을 세균전 전시실 13개로, 좌측 1층은 일본 고아를 돌본 ‘중국 어머니의 큰 사랑’ 전시실 2개, 좌측 2층을 화학전 전시실 6개로 구성하고 2011년 1월 개관하였다. 새로 개관한 전시실은 리모델링되어 세균전 전시실이 일부 보완되었고, 이시이 집무실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 본부 건물 현관 뒤편으로 인적 사항이 확인된 3,000여 명의 희생자 추모 회랑이 조성되었고, 국제자료센터가 설치되었다.

1. 세균전 전시실

1) 제1전시실: 731부대의 건립과 멸망

1931년 일본군 참모부는 생물학전을 계획하고, 1932년 8월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1892~1959)가 주도하는 세균 실험실에 도쿄 육군군 의학교에서 설립되었다. 이시이 부대는 1933년 하얼빈시 남부 지역에 실험장을 설치하였으며, 1935년에는 하얼빈 핑팡 지역에 새로운 세균 공장을 이전하였다. 그 밖에도 하이랄알[海拉爾], 쑤우[孫吳], 린커우[林口], 무단강[牡丹江] 등 지역에 지부를 건립하였다. 1942년 이시이가 군비 횡령 문제로 사직하자 기타노 마사지[北野政次, 1894~1986]가 이를 승계하였다. 1945년 이시이가 다시 복귀하였으며, 패전 이후 731부대는 건물을 폭파하고, 증거 자료 소각, 포로 살해 등 자신들의 행각을 덮기 위해 노력하였다. 731부대는 본부 건물 뿐만 아니라 실험실, 소각장, 비행장, 지원 부대 등을 거느린 대규모 시설이었으나 전후 적지 않게 훼손되어 현재는 본부 건물을 중심으로 23개소만이 남아 있다.

26 程立華(2006), 「論推動“731”陳列館愛國主義教育工作」, 『科技資訊』 18, 145쪽.

2) 제2전시실: 핑팡 특별 군사 지역의 건립

핑팡 특별 군사 지역[平房特別軍事地域]은 120km²에 이르는 지역으로 그 주변에는 특별 군사 지역임을 표시하고 있다. 외부인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위반자는 정치 혐의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중국인 노동자들이 동원되었으며, 생체 실험은 마루타(통나무)라고 불린 731부대 특설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설 감옥은 사각형의 실험건물 가운데 2층의 2동으로 된 건물로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수감자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생체 실험의 실증을 밝히는 중요한 대목이었다. 진청민 주도의 731부대진열관 연구팀은 1997~1998년 헤이룽장성 당안관에서 '특별 이송'에 관한 당안 자료를 발견하였으며, 그 문헌들은 생체 실험의 대상자들이 731부대에 수감된 경로를 알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3) 제3전시실: 세균 실험

731부대는 100여 종에 달하는 생체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 전시실에서는 당안에 기록된 33종의 실험을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731부대원의 회고에 기초하여 각종 세균 실험의 자세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세균을 주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사기를 통해 세균을 주입하는 근육 주사였다. 아울러 동상 실험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동상 후 지혈, 수혈, 해부, 절단, 봉합 등의 과정이 전시되어 있다.

4) 제4전시실: 독가스 실험

731부대는 실내에서 생체 실험뿐만 아니라 독가스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가스 발생실과 지하 가스 저장실을 설치하였으며, 731유적지에서 세균 생산에

사용되는 용해솔과 고압 살균기 등이 발견되었다. 731부대원의 기억에 따르면, 731부대는 매일 각종 세균 3,000kg을 생산할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5) 제5전시실: 실험 재현

이 전시실은 731부대의 잔인한 실험을 재연하고 있다. 바로 진공 실험, 해부 표본 제작 등 잔인한 생체 실험이 재연되어 있다. 사체 조각로는 3개가 있었는데 부대원용, 실험 동물용, 생체 실험자용 등이다. 아울러 양측 벽면에 731부대원들의 증언과 731부대 노역자들의 증언을 게시하고 있다.

6) 제6전시실: 이시이 집무실

2009년 이후 새롭게 전시되었다. 이곳은 이시이가 실제로 업무를 보던 장소로 당시 사용하던 장롱과 의자 등 그가 업무를 보는 광경이 그대로 재연되어 있다. 이시이 집무실 아래쪽으로 이시이가 사용하던 비밀 통로가 남아 있다.

7) 제7전시실: 야외 실험

731부대는 야외 실험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지역에 야외 실험장을 설치하였다. 야외 생체 실험에 사용된 야외용 급수 기구, 유탄포 차바퀴 등이 전시되어 있다. 1939년에는 노몬한 전투에서 세균전이 실시되었는데, 731부대원 40여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8) 제8전시실: 야외 실험장

안다[安達] 실험장이 중요한 야외 실험장 중의 하나였다. 야외 실험장은 실험 대상자를 묶어 놓고, 도자기 폭탄을 지상 100m 이상에서 터뜨리고 세균이 인체에 잘 침투하는지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었는데, 그 광경이 재연되어

있다. 실제 야외 실험장에서는 적지 않은 도자기 파편이 발견되었고, 전시실에는 도자기 파편과 완제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9) 제9전시실: 731부대 동물 사육 및 실험 용구

731부대는 말, 소, 양, 돼지, 원숭이, 쥐 등 적지 않은 동물들을 사육하여 혈청 실험 및 세균 실험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사체 해부시 사용했던 인체 장기 결개, 세균 실험시 사용된 의료 용구, 표본병, 온도계, 주사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10) 제10전시실: 연구 저작물

이 전시실은 731부대 역사에 관해 연구한 국내외 저작들과 일제의 전쟁 선전 잡지 등을 모아 놓은 곳이다. 731부대진열관이 수집·조사한 서적만도 166권에 달한다.

11) 제11전시실: 참회

이 전시실에는 731부대원들의 참회와 회고 등 기록이 전시되어 있다. 731부대 특설 병동을 직접 그린 그림, 특별 호송 차량 상세도, 참회록 등이 전시되어 있다. 독립운동가인 심득룡을 직접 이송했던 헌병 대원 나오카타 이시바시 [石橋直方]의 증언과 인터뷰 영상이 눈길을 끈다.

12) 제12·13전시실: 일본 순회 전시물

이 전시실은 일본 ABC기획위원회가 199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일본의 60여 개 도시에서 전시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10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참관하였다고 한다.



〈사진 3〉 제1전시실: 731부대의 건립 과정과 미국립문서보관소가 2007년 공개한 생체 실험 보고서인 리포트 Q(페스트균 보고서), 리포트 A(탄저병 실험 보고서), 리포트 G(비저균 실험 보고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4〉 제2전시실: 1997년 헤이룽장성 당안관에서 특설 이송에 관한 당안 자료가 발견되었다. 특설 감옥에 생체 실험 대상자가 투옥되었고 그들의 손과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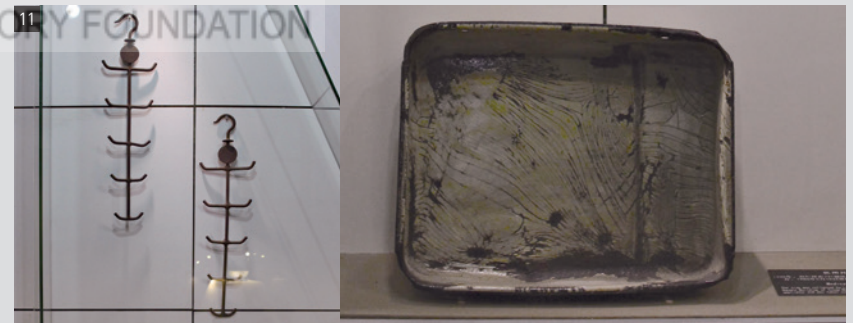
〈사진 5〉 제3전시실: 각종 근육 주사를 통해 세균 실험이 이루어졌고, 동상 실험 역시 731부대의 중요한 실험 항목이었다.



〈사진 6〉 제4전시실: 독가스 실험을 위해 독가스 생산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었다.

〈사진 7〉 제5전시실: 진공 실험, 사체 해부 실습 등 다양한 생체 실험 내용이 재현되어 있다.

〈사진 8〉 제6전시실: 이시이의 집무 광경과 이시이가 사용하던 실제 가구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 9〉 제7전시실: 1939년 이시이는 노몬한 전투에서는 세균전을 직접 지휘하기도 하였다. 일본 군부는 이시이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격려하였다. 당시에 사용하던 용접 장비(오른쪽 사진)는 현재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사진 10〉 제8전시실: 안다 야외 실험장에서 실험 모습이 재현되어 있고, 실제 도자기 폭탄 파편과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11〉 제9전시실: 세균 실험을 위해 각종 동물들이 실험 도구로 사용되었고, 사체 해부시 사용되던 장기 결개 등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12〉 제10전시실: 731관련 저작과 전쟁 선전에 활용된 잡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13〉 제11전시실: 731부대원들의 참회와 증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생체 실험이 자행된 본부 건물 뒤편의 실험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사진 14〉 제12·13전시실: 일본에서 순회 전시했던 전시물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2. 화학전 전시실

1) 제1전시실

화학 무기의 거대 살상력 때문에, 국제 사회는 화학 무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일련의 조약을 통해 화학 무기 사용을 금지해 왔다. 화학 무기의 위력과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일본은 화학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하고 생산에 돌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오키노시마[大久野島]는 화학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섬은 세토[瀬戶] 내해(內海)와 히로시마[廣島] 남면 바다에 위치하는데, 군사 전략상 지도상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섬이다.

2) 제2전시실

1937년 일본 육군은 독가스 장전 포탄을 제작하기 위해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縣]에 병기 제조소를 건립하였고, 일본 해군 역시 독자적으로 화학 무기를 연구하고 제조하기 위해 1943년 해군 공장을 건립하였다. 화학 무기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지바현[千葉縣] 나라시노시[習志野市]에 육군나라시노학교[陸軍習志野學校]를 건립하여 화학 부대 정예 요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였다.

3) 제3전시실

이 전시실에서는 일본군이 전쟁 중에 사용한 화학 무기 상황을 보여준다. 일본군이 중·일전쟁 기간 계속해서 지시한 화학 무기 사용 작전 지시서는 일본군이 화학 무기를 사용하였다는 증거 중 하나다. 쑹후[淞滬] 전투에서 우한[武漢] 전투에 이르기까지 화학 무기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갔는데, 전시실에는 그 전투에서 사용된 일본군의 총기류와 방독면 등이 전시되어 있다.

4) 제4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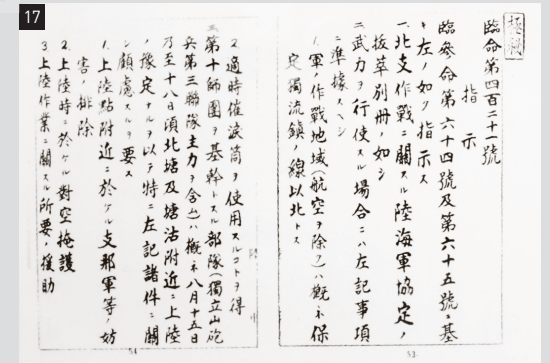
중국군은 1939~1941년 창사[長沙] 전투에서 화학 무기의 제물이 되었다. 일본군은 국민당 군대에 대규모 화학 무기를 투입하였고, 후방 근거지에도 대량의 독가스를 살포하였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독가스 사용 혐의를 희석하기 위해 오히려 중국군이 독가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비난과 견책을 피하는 전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5) 제5전시실

일본군은 중국군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화학전을 전개하였다. 1942년 5월, 일본군은 허베이성[河北省] 덩현[定縣] 베이투안[北疇] 지역에서 화학전을 실시하였다. 국제 사회는 일본군에게 화학 무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일본군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화학전을 중지하지 않았다.

6) 제6전시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일본 내의 화학 무기는 UN군이 처리하였으나 중국 내의 화학 무기는 방치되어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 환경 등을 위협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7개 성·시·자치구 등 수십 개 지역에서 각종 유독탄 200만 발, 독가스 100톤 이상이 발견되었다. 중국 전역에서는 독가스 누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일본 정부는 화학전의 존재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사진 15〉

제1전시실: 일제는 지도상에는 나오지 않는 오키노시마라는 섬에서 화학 무기를 생산하였다.

〈사진 16〉

제2전시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각각 독자적으로 화학 부대를 운용하고 화학전을 준비하였다. 사진은 육군 나리시노학교 유적이다.

〈사진 17〉

제3전시실: 1937년 7월 일본군 참모 총장은 중국 전선에서 화학전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사진 18〉 제4전시실: 중국군은 창사 전투에서 화학전의 희생물이 되었다. 화학전에 대비하여 일본군이 마구용 장비까지 갖춘 데 비해 중국군은 수건을 감싸는 정도가 최선이었다.
- 〈사진 19〉 제5전시실: 일본군은 화학전의 대상으로 정규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았다.
- 〈사진 20〉 제6전시실: 화학 무기는 중국 전역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그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화학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중앙 회랑

희생자 추모 공간은 원래 마지막 전시 공간에 조성되었다. 전시 공간을 확대 하면서 본부 건물 출입구 뒤쪽의 중앙 회랑으로 이전하였다. 중앙 회랑은 본부 건물 중앙에서 세균 실험실로 통하는 중심 통로인데, 이곳 양쪽 벽면에 세균 실험과 세균전으로 희생된 3,000여 명의 명단이 올라 있다. 이 중에서 1,467명은 항일 투쟁 등에 관련된 인사들로 특별 이송을 통해 특설 감옥으로 이송된 사람들이다. 중국인, 소련인, 몽골인, 한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초까지 심득룡과 이청천은 한국인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자 이름과 더불어 ‘조선족’으로 표기된 바 있었다. 2011년 이후 진열관 중앙 회랑으로 희생자 추모 공간을 이전하면서, 한글 이름과 사진 등을 부착하여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한성진, 고창률, 이기수, 김성서 등을 포함하여 총 6명의 한국인 이름이 희생자 명단에 올라 있다.



〈사진 21〉 중앙 회랑: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되었다. 예전과 달리 한국인들의 추모 공간에는 한글 이름과 사진 등이 부착되어 있다.

4. 일본인 고아를 돌본 중국인 어머니 전시실

이 전시실은 본부 건물 좌측 1층에 조성되어 있다. 2011년 6월, 중국적십자사의 제안으로 설치되어 2012년 8월부터 전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중국 어머니의 큰 사랑: 중국인 양부모와 일본인 고아[中國母親的博大情懷:中國養父母與日本遺孤]’라는 제목이 붙은 전시실은 전쟁으로 버려진 일본인 고아들을 돌보는 중국인 양부모의 사연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종전 이후 60여 년 동안 전쟁으로 고통받아 온 중국인 부모들이 고아들을 양육하고 일본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조력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진열관 측은 이 전시를 통해 어떤 것이 진정한 인도주의와 박애 정신 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으며, 세균전의 피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 관람시에는 이 전시관을 볼 수 없고, 특별 전시가 이루어질 때만 관람이 가능하다. 진열관 측에 따르면, 안내 인원이 충원되는 대로 일반 관람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진 22〉
중국 어머니의 큰 사랑 전시실: 전시 일본인 이주 정책에 따라 중국에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이주해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자, 자신들의 자식까지도 버려두고 황급히 중국을 떠났다. 버려진 일본인 고아들을 돌본 것은 중국인 어머니들이었다.

V. 맺음말

이 연구는 제국주의 침략 시기의 세균전의 기억을 항일 역사 교육과 민족주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물로서 731부대진열관의 건설 및 발전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서 역사 및 영토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세균전 관련 진열관 등의 건립이 계속되고 있어, 731부대진열관은 중국 정부가 대중들의 역사 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유통시키고 소비하게 하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역사박물관이나 전쟁 박물관은 전쟁의 피해자 또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중국 인민의 영웅적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이것은 중화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족의 단결과 화합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에 적합한 주제였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이념을 강조하기보다 애국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국가 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는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딜레마를 탈각시키기 어려운 한계도 노출하였다.

반면 세균전의 기억을 활용한 애국주의 교육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안티 테제이자 피해자로서의 중국을 부각할 수 있는 최적의 매개물이었다. 즉 세균전의 피해는 오로지 중국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동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였고, 피해 규모는 언제라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731부대진열관은 중국인의 영웅적 투쟁을 강조하기는 어렵다는 한계 속에서도 전쟁의 피해자라는 인식과 세균전이 후방의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었다. 이러한 세균전의 기억은

최근 한·중·일 삼국의 동아시아 근현대사 역사 서술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⁷

최근 731부대진열관은 세균전에 대한 기억 속에서 중국의 민족주의 교육이 애국주의 교육 기지를 활용한 편협한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고, 동아시아적 지평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731부대진열관은 단순한 피해자로서 애국주의에 호소하기보다는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세계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부상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731부대진열관은 2000년대 중반 이러한 기획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고, 2012년 중국 어머니 전시실의 개관을 통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중국이 세균전이라는 미증유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일본인 고아들을 성심성의껏 양육하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복돋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 구성은 기존의 박물관들이 피해자로서의 중국인과 제국주의에 대한 영웅적 투쟁을 강조해 왔던 것과는 다른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역사박물관과 전쟁 박물관이 중화민족의 영웅적 투쟁을 강조한 애국주의를 통해 배타적 민족주의에 함몰될 수 있는 반면, 세균전의 기억은 피해자로서의 중국인이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했다는 국제적 애국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한 것이었다. 또한 731부대진열관은 일본, 한국 등지에서 731부대 특별전을 개최하여 동아시아인들의 역사적 기억 속에서 일제의 만행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 동아시아 민간교류와

연대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731부대진열관에는 일본에서 개최한 전시 내용을 그대로 전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731부대 특별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²⁸

세균전 관련 박물관의 건립은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류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전쟁과 반일의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에서 반일에 대한 정서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세균전 관련 박물관의 건립은 반일의 국가적 정체성의 형성뿐만 아니라 세균전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지역 사회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기적으로 역사 문화를 강화하는 매개체로서 역사박물관을 통한 지식의 유통이 국가적 레벨과 지역적 레벨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사례로 관심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731부대진열관의 사례는 단순한 전쟁 박물관에서 벗어나 중국 정부가 중국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다양한 경로의 하나로서 기존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애국주의 교육에서 국제적인 애국주의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 기지 건설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731부대진열관 전시 교류는 동아시아 반전 교육과 민간 교류의 장을 활짝 열어 전쟁 반대와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동아시아인들의 역사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27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엮음(2012),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3국의 현대사』, 한겨레출판.

28 최근 한국 독립기념관에서는 731부대진열관의 협조를 받아 한·중 국제 교류전의 일환으로 ‘일본 731부대의 세균전’을 주제로 2013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남 나주학생운동기념관에서 “731 기억해야 할 역사, 소중한 평화: 일본 제731부대의 세균전”이 2014년 6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개최된다.

단행본

金成民(2010), 『일본군 세균전』, 청문각.
 윤휘탁(2006), 『신중화주의』, 푸른역사.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엮음(2012),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3국의 현대사』, 한겨레출판.
 罗国杰 主编(1998), 『中國情神文明建設20年』,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馬克思主義理論研究和建設工程重點教材 編寫組(2009), 『中國近現代史綱要』 (2008年修訂版),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徐雪峰(2009), 『黑龍江省青少年愛國主義教育基地利用與開發研究』, 東北林業大學 碩士論文.
 Malcolm Foley and John Lennon(2000),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London: Continuum.

논문

김정현(2009),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의 애국주의와 평화문제」, 『역사학연구』 35, 호남사학회.
 박경석(2009), 「동아시아의 전쟁기념관과 역사 갈등: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41.
 오일환(2008), 「중국 대학박물관의 설립과 역할에 대한 연구」, 『고문화』 71.
 오일환(2010), 「대학박물관의 전시연계교육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고문화』 76.
 이동기(2011),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역사비평』 96.
 임현영(2008), 「8·15와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 『한·중·일 3국의 8·15기억』, 역사비평사.
 하세봉(2010), 「대만 박물관과 전시의 정치학: 3대 박물관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45.
 金成民(2008), 「731遺址的保護, 開發及展示」, 『學理論』.
 柴壽升·向丹陽(2011), 「黑色旅遊產品開發: 侵華日軍第731部隊遺址RMP分析」,

『經營與管理』 6期.

張偉紅(2005), 「充分發揮愛國主義教育基地作用」, 『黑龍江檔案』.
 程立華(2006), 「論推動“731”陳列館愛國主義教育工作」, 『科技資訊』 18.
 趙鵬·王秀琴(2010), 「整合資源, 制定“哈南”旅遊發展新戰略」, 『哈爾濱市委黨校學報』 69.
 侯兆銘(2002), 「歷史地段的保護與更新: 侵華日軍第731部隊罪證遺址的綜合開發研究」, 『建築學報』.

기타

『서울신문』

「2001年政府工作報告(2000年工作完成情況及2001年工作安排)」(2001. 3. 24) <http://www.hrbpf.gov.cn/xxgk/ghjh/gzbg/2001/03/5317.htm>.
 「2002年政府工作報告(2001年工作完成情況及2002年工作安排)」(2002. 4. 24) <http://www.hrbpf.gov.cn/xxgk/ghjh/gzbg/2002/04/5316.htm>.
 「2004年政府工作報告(2003年工作完成情況及2004年工作安排)」(2004. 3. 15) <http://www.hrbpf.gov.cn/xxgk/ghjh/gzbg/2004/03/5314.htm>.
 「2005年工程收尾工作及2006年建設工作安排」(2006. 1. 27) <http://www.hrbpf.gov.cn/xxgk/cxjs/jhxx/2006/01/6187.htm>.
 「2006年政府工作報告(2005年工作完成情況及2006年工作安排)」(2006. 3. 13) <http://www.hrbpf.gov.cn/xxgk/ghjh/gzbg/2006/03/5311.htm>.
 「2007年政府工作報告(2006年工作完成情況及2007年工作安排)」(2007. 2. 25) <http://www.hrbpf.gov.cn/xxgk/ghjh/gzbg/2007/02/5310.htm>.
 「731遺址記錄日軍二戰罪行將申報世界文化遺產」, 網易科技報道(2004. 10. 30), <http://tech.163.com>.
 「中共中央關於引發“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的通知」(1994. 8. 23), 罗国杰 主编(1998), 『中國情神文明建設20年』,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江澤民(1997. 5. 11), 「關於加強愛國主義教育(1996. 10. 10)」, 『人民日報』.
 王鵬(2009. 4. 23), 「關於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罪證陳列館體制改革的調查與思考」, 哈爾濱市旅游局, <http://ta.harbin.gov.cn/FGWX/LYDY/2009/04/23/438.html>.

任博(2011. 11. 2), 「“哈爾濱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保護條例”昨日正式實施, 立法保護還原一個“黑太陽”」, 『每日新報』.
蔡東民(2008. 9. 19), 「731遺址是警示人類的符號」, 『黑龍江日報』, http://www.hljnews.cn/xw_why/system/2008/09/19/010224607.shtml.

중국의 ‘항미원조전쟁’ 기억과 기념

항미원조기념관과 열사능원을 중심으로

- I. 머리말
- II. 항미원조기념관의 전시와 서술
- III. 항미원조운동과 기념 활동
- IV. 맺음말



중국의 ‘항미원조전쟁’ 기억과 기념

항미원조기념관과 열사능원을 중심으로

I. 머리말

중국은 한국전쟁에 인민 지원군을 파병했을뿐 아니라 1953년 7월 27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 유엔 총사령관 M.W. 클라크와 함께 한국전쟁 정전 협정에 서명하였듯이, 참전에서 휴전까지 한국전쟁의 당사자다. 중국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전쟁’이라 불렀지만, 10월 인민 지원군이 참전하면서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으로 명명하였고, 지금도 항미원조전쟁과 조선 전쟁을 구분하고 있다.¹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해서는 마오쩌둥[毛澤東]이 외국

김정현(金正賢)

중국근현대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 『동아시아의 역사 III 개항-화해』(공저, 2011, 동북아역사재단), 「제1·2차 國共合作기의 한중 연대론-황포군관학교 인맥을 중심으로」(2012, 『역사학연구』제46집, 호남사학회), 「20세기 중국의 한국사 서술과 일본의 식민사관」(2010, 『中國學報』제61집, 한국중국학회) 등.

1 2013년 7월 한국전쟁 정전 협정 6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을 방문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이 ‘조선전쟁’이라고 호칭하자, 국내 언론은 중국이 항미원조전쟁 명칭을 조선전쟁으로 바꾸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중국 국방대학 교수 쉬옌[徐焰]은 ‘조선 전쟁’과 ‘항미원조전쟁’은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는 조선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남북한 사이에서 발발하였으나, 미국이 중국 영토인 타이완에 함대를 주둔시켜 통제하자, 중국 정부가 10월 25일 항미원조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전쟁은 4개월의 간격을 두고 발발한 서로 다른 전쟁이며, 3년여의 조선전쟁은 38선에서 시작해 원점에서

에 보낸 전문을 비롯한 중요 문서와 회고록 등의 자료들이 공개되었고 그동안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² 소련과 중국의 문서 공개와 한·중 수교 이후 확대된 학술 교류에 따라 중국의 참전 관련 연구가 증대되었고,³ 국내의 정부기록보존소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도 관련 자료집을 출간하였다.⁴ 한국전쟁 및 정전 협정 60주년을 계기로 중국에서 새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

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등장하였다.⁵ 중국의 한국전 관련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중국의 개입 이유를 다룬 주제고,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과 호칭 등 한국과의 인식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중 관계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앞으로 중국의 한국전쟁 연구 주제가 더욱 다양하고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현재 중국에서 한국전쟁을 전시한 대표 기관인 단둥(丹東)의 항미원조기념관을 중심으로, 기념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한국전쟁을 전시하고 있는 공식 기억은 무엇이며, 열사능원을 포함한 기념 활동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중국의 한국전쟁 기억과 항미원조기념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드물다.⁶ 기념관은 역사와 집단적 기억이 만나는 접점일 뿐만 아니라 역사 기억과 관련된 사회·정치적 지향이

정전을 맞이한 반면, 2년 9개월간의 항미원조전쟁은 압록강변에서 시작하여 적국을 500 km 후퇴하게 만들고 인접국을 구해낸 승리의 전쟁이라고 평가하였다. 『環球時報』(2013. 7. 27).

2 중국 참전에 대한 서방학계 연구는 Allen S. Whiting(1960),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가 효시고,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국내 연구는 박두복(1989), 「중공의 한국전 개입, 김철범 역음, 『한국전쟁』, 평민사가 선구적이며, 이병주(1990),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 그 영향」,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한국국제정치학회; 김계동(1990),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 전쟁기원과 중국의 참전과정」, 『통일문제연구』 2-2;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역음(1990), 『한국전쟁의 이해: 한국전쟁 발발 40주년 논집』, 역사비평사; 전쟁기념사업회(1992), 『중공군 개입과 새로운 전쟁』, 행림출판사; 박두복 역음(2001),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등이 있다. 번역물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문헌연구소가 1987~1990년 4책으로 간행한 『建國以來毛澤東文庫』 중 한국전쟁 부분을 번역한 『모택동의 전쟁지휘 전문들』, 『월간조선』(1991. 8.), 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부·한국전략문제연구소 옮김(1991),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사』(세경사); 홍학지 지음·홍인표 옮김(2008), 『중국이 본 한국전쟁: 중국 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전쟁 회고록』, 한국학술정보 등이 있다.

3 Chen Jian(1994),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자이 지하이(1990),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 김철범 역음,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한국전쟁의 진상』, 을유문화사; 김철범·제임스 매트레이 공편(1991), 『한국과 냉전』, 평민사; 서각수 옮김(2005),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역사넷; 지재운(1996),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17; A. V. Vorontsov(1999), 「어떻게 해서 1950년 한국전에 중국의용군의 개입이 이루어졌는가?」, 『국제고려학』 제5호; 박동찬(1999), 「한국전쟁과 중국의 참전결정」, 『전사』 등은 중국과 소련의 공개 자료를 반영한 연구들이다. 또한 전쟁 50주년 계기 연구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2000), 『한국전쟁기 중공군 문서』 전4권; 김옥준(2002),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국내정치」, 『국제정치논총』 42-1; 홍면기(2002),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변화」, 『전사』 4; 오규열(2005),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향」, 『軍史』 55 등이 있다.

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전략문제연구소 옮김(1991),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爭史』; 정부기록보존소(2002), 『한국전쟁과 중국』,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2005),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항미원조전쟁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육군군사연구소 옮김(2009),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 육군 군사연구소; 張澤石 지음·손준식 옮김(2009), 『중공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등.

5 데이빗 쉰이 지음·한국전략문제연구소 옮김(2011), 『중국의 6·25전쟁 참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沈志華 지음·최만원 옮김(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서상문(2009), 「새로운 사실, 새로운 관점: 모택동의 6·25전쟁 동의과정과 동의의 의미 재검토」, 『군사』 71; 염인호(2010),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박영실(2011), 「정전회담을 둘러싼 북한·중국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14-3; 오규열(2012),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향」,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학술회의, 『6·25전쟁사 연구동향과 발전방안』; 이재석·조성훈 역음(2012), 『한반도 분쟁과 중국의 개입』, 선인; 김학재(2013),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탄생」, 백원담·임우경 역음, 『냉전』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화과학사 등.

6 하세봉(2013), 「중국의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는가-항미원조기념관의 경우」,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이 대표적이지만, 이 논문은 기념공원의 역할과 기념관 전시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전 협정을 포함한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기념 활동 등은 다루지 않았다.

전시에 그대로 반영된다. 기념관을 설립한 주체인 국가는 국가 권력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기념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배타적인 집단 기억이 만들어진다. 집단 기억에 국가 권력이 의도한 가치를 반영시킴으로써, 기념관은 전시 기능을 넘어 국가와 권력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⁷

이같이 기념 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기억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의해 선별된 기억’⁸이라고 할 때, 본문에서는 먼저 누가 어떤 전시 원칙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기념관을 건립하였는지, 중국 항미원조전쟁의 공식 기억이 만들어진 메커니즘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의 한국전 호칭인 항미원조전쟁에서 ‘항미’는 ‘보가위국(保家衛國)’이라는 애국주의 구호이고, ‘원조’는 위협에 처한 형제나라 조선을 도와준다는 국제주의 구호다. 다음으로 기념관 전시에서 ‘항미’와 ‘원조’를 위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무엇이고, ‘정의와 승리’의 전쟁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정전 협상 서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항미 원조는 중국이 참전의 슬로건을 넘어 ‘인민 해방군의 현대화 건설, 대중 동원, 애국주의 정신, 국내 경제 건설, 중국의 대국 지위’ 등 당시 중국이 추진한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중요한 여러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현재 항미원조기념관은 국가의 공식 기억이 투영된 서술을 전시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애국주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항미원조운동과 애국주의의 관계, 영웅 만들기과 지원군 열사능원을 중심으로 한 기념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7 전진성(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190쪽.

8 김형곤(2004), 「전쟁기념관의 한국전쟁 상징물에 대한 연구」, 『언론학연구』 8-1, 41쪽.

II. 항미원조기념관의 전시와 서술

1. 기념관 건립과 전시 원칙

1) 기념관 건립과 구성

단둥 항미원조기념관의 전신은 1958년 10월 안둥(安東)시 역사 문물 진열관 내 개설한 항미 원조 전람실이며 1960년 정식으로 기념관이 되었다. 1966년 문화대혁명기에 한동안 폐쇄되었다가 1972년 재개관하였다.⁹ 1983년부터 건축 규모나 진열물 부족을 지적한 지원군 고위 장교 출신의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홍쉐즈(洪學智) 등이 기념관 확장을 추진하였다.¹⁰ 기념관 확장 공사는 당중앙·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가 책임자를 정하였고, 군과 랴오닝성 각급 지도자들이 참여하였다.¹¹ 그리고 1993년 7월 정전 협정 체결 40주년에 맞추어 현재의 위치에 새롭게 확장 개관하였다. 기념관 설립 장소는 해발 64m의 사방이 보이는 단둥시 타오위안산(桃源山) 정상부다. 타오위안산은 인민 지원군 지휘소가 있었던 역사적 터로서,¹² 군사 시설을 재활용하는 공간이자 항미

9 1960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 겸 중국 인민항미원조총회 회장 귀모뤄(郭沫若)가 기념관 관명을 썼다. 1965년 안둥시가 단둥시로 바뀌면서 단둥 항미원조기념관이 되었다. 1966년 문혁 기간 폐관되었다가 1970년 단둥시 계급교육전람관이 되었고, 1972년 항미원조기념관으로 회복되었다. 石善福 主編(1998), 『歷史的較量-抗美援朝紀念館』, 中國大百科事典出版社, 7~8쪽.

10 홍쉐즈의 노력으로 중앙 정부에서 기념관 확장을 승인하는 공식 문건이 내려왔다.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홍쉐즈 부장이 군사위원회와 총정치부에 보내는 편지(1983. 11. 3)」, 『抗美援朝紀念館』, 臺海出版社, 113~114쪽.

11 1990년 10월 24일 거행된 기념관 확장 공사 정초식에 선양군구·랴오닝성군구·랴오닝성 정협 대표를 비롯, 단둥의 각계 대표 2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11쪽.

12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 해방군 제13병단이 동북 변방군으로 개편되고, 10월 8일 중국



〈그림 1〉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

원조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로서 장소성의 의미가 있다. 또한 압록강 철교와 가까운 위치로, 중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양국의 주요 통로인 압록강 철교 보호를 중시하였다.¹³ 기념관은 많은 관람객들이 참관하도록 공원식으로 조성되었으며, 실물·문헌·사진·모형·회화·조각·경관 등의 전시 수단을 운용하여 항미원조전쟁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준다. 주요 건축물은 크게 기념탑·파노라마관[全景畫館]·전시관으로 이루어졌고, 노천 광장에 대형 무기 설비가 전시되어 있다.¹⁴

인민 지원군으로 편입되었다. 단둥에 지원군 13병단 지휘소가 설립되었다. 평터화이는 10월 19일 지원군을 거느리고 북한에 들어가 이 지휘소를 사용한 적이 없지만, 항미원조전쟁 기간 압록강 철교를 지키던 포병 부대가 이 지휘소에 주둔한 적이 있다.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17쪽.

- 13 “조선전쟁 폭발 이후 우리는 곧바로 압록강 대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대교는 중·조 양국의 주요한 통로이므로, 이를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 양국에게 매우 중요하였다.” 聶榮臻(2002), 「在抗美援朝戰爭中」, 정부기록보존소 엮음, 『한국전쟁과 중국-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정부기록보존소, 203쪽; 鈴木千慧子(2004), 「南京大虐殺をめぐる動向と課題」, 『戰爭責任研究』 46, 36쪽.
- 14 노천 광장에 전시된 대형 폭격기 한 대는 공군항공박물관에 소장된 것을 전문가들이 해체한 후, 네 대의 대형 트럭으로 기념관으로 운반해 다시 조립하였다고 한다. 또한 해방군총참모부가 북한에서 수집해온 ‘카츄사’ 로켓포가 전시되어 있다. 이 로켓포는 중국이

기념관 건축의 상징인 기념탑은 기념관 남측에 위치하며, 높이 50m로 1950년 항미원조전쟁 개시 연도를, 탑기단 3m를 포함한 전체 높이 53m는 1953년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를, 탑기단의 넓이 10.25m는 10월 25일 참전 기념일을 의미한다.¹⁵ 탑신에는 덩샤오핑이 쓴 ‘항미원조기념탑’ 7자를 금박으로 부착했고, 기단에는 백옥으로 깃발·꽃·리본 조각을 만들어, 평화·승리·우의라는 주제를 표현하였다. 탑문에는 “1950년 한반도에 내전이 발발하였다. 미국은 즉각 무장 간섭과 동시에 제7함대를 파견하여 타이완을 침범하였다. 10월 19일 평터화이가 지원군을 이끌고 북한에 가서 북한 인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침략자에 저항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적군 109만 명을 소멸하였다. 지원군은 영웅적인 기개로 세인들의 존경을 받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불리웠다. 지원군 사상자와 실종자는 모두 36만 명이다.”라고 적혀 있다. 기념탑은 인민 지원군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정면이 압록강을 향하게 하여, 북한 신의주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¹⁶ 기념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014개의 화강암으로 조성된 것은 지원군이 조선에서 1,014일의 밤낮 동안 전투한 것을 상징하며, 계단 중간에 5번 꺾여지게 만든 것은 항미원조전쟁 개시 후 휴전 협상 개시까지 5차례의 승리한 전역을 상징한다.¹⁷

3층으로 된 전시관 건축 면적은 4,850m²이고 정문 위에 귀모뤄[郭沫若]가

1952년 소련에서 72대를 구매해 항미 원조 전장에서 맹위를 떨쳤다고 한다.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58~60쪽.

- 15 인민 지원군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넘었고,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북한 운산 일대에서 처음으로 미군·한국군과의 전투를 치러 승리하였다. 중국 정부는 10월 25일 첫 전투에서 승리한 날을 항미 원조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13·147쪽.
- 16 「홍쥬즈 등 지원군 전직 고위 장성들의 기념관 설계안에 대한 의견(1990. 9. 19.)」, 앞의 책, 135쪽.
- 17 石善福 主編(1998), 앞의 책, 10~11쪽.

1960년에 쓴 ‘항미원조기념관(抗美援朝紀念館)’ 글자가 붙어 있다. 입구 홀은 천군만마가 압록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배경으로, 상단에 마오쩌둥 친필의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다.¹⁸ 전시관은 육군·공군·병참 등을 담고 있는 항미원조전쟁관 6실, 항미원조운동관 2실, 중조 인민 우의관 1실, 영웅 열사관 1실 등 4개 관과 10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에서 파노라마관으로 향하는 통로에는 공군이 자체 설계하고 제작한 지원군 공군 전시관을 배치하였다.¹⁹ 파노라마관은 직경 44m, 높이 24m의 둥근 원주 건축으로, 그림·조각·조명·음향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청천강 전투에서의 승리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파노라마관은 인민지원군이 적을 저격하는 다양한 장면을 묘사하였다. 지원군에 의해 격추된 미군 비행기·탱크·대포·트럭 등과 무장 해제된 미군 포로 등 치열한 전투 모습과 지원군의 영웅적 기백을 부각시켰다.²⁰

2) 전시물 수집과 전시 원칙

단둥은 인민지원군이 중국으로 철수할 때 반드시 거쳤던 곳으로, 항미원조기념관은 철수하는 부대로부터 대량의 전쟁 유물을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다. 기

18 이 글씨는 마오쩌둥이 40년 전에 쓴 것으로, 군사과학원의 관계자가 마오쩌둥이 작성한 문건에서 발견하여, 처음으로 항미원조기념관 전시관에서 선을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48쪽.

19 공군 전시관은 참전 준비(1950. 7~1951. 9), 교대 참전(1951. 9~1952. 6), 치열한 참전(1952. 6~1953. 7), 빛나는 전적(1950. 10~1953. 7)으로 구성되어 있다.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57쪽.

20 石善福 主編(1998), 앞의 책, 13~14쪽; 청천강 전투에서 인민지원군이 미군 제2사와 미군 기병 제1사, 제25사를 타격하였고, 터키 여대 등 2만 3천여 적군을 사살하였으며, 화포 500여 문, 탱크 100여 냥, 각종 병기 5000여 기를 파괴하거나 획득하는 등 영웅적 쾌거를 이루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71쪽.

념관에는 12,000점의 항미원조전쟁 문물과 7,000점의 역사 문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전시물 수집 과정에 군부는 물론 문화계·조선족문화관·평안북도 신의주 화교연합회·지원군 출신의 개인 기부자 등 각계의 금전적·물질적 기부가 이어졌다. 인민 해방군 공군은 세계에서 단 두 대밖에 없는 폭격기 한 대를, 선양군구는 탱크·대포 등 무기를, 홍쉐즈 등 지원군 가족들은 훈장 등 소장 문물을 기증하였다. 지원군 부사령관 덩화(鄧華)가 김일성에게 받은 코트, 포로수용소 문물, 연합국사무국이 38선 부근에서 발굴한 지원군 유물 등도 기증받았다. 기념관의 문물 수집 전담반이 각지에서 항미 원조 시기 문물 자료 40여 톤을 수집하였으며, 영웅 열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범 인물 56명의 사진은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일부를 구해서 전부 전시할 수 있었다.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출병을 요청하는 친필 서한은 국가당안관에서 복제하여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다.²¹

파노라마관은 사람들이 당시 치열한 전장에 있는 듯한 현장성을 체험하게 위하여, 북한의 청천강 부근 전쟁 유적지를 고찰하였으며, 참전지들의 회고록·영상 자료·사진 자료를 참고하고 전투에 참가한 제38군 군인들에게서 입수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생생하게 구성하였다.²² 기념관 건립 예산은 라오닝성이 일정액을 배정하였으나, 부족분은 선양군구·난징군구·공군·해군을 비롯하여 정부 산하 기업, 철도 관계자들, 인민지원군 출신 개인들로부터 지원받았다. 특히 인민지원군 포로 출신 장대(張達)는 기금 모집 최다 액수인 6,674원을 기부하였다. 이는 지원군 포로 2만 명 중 타이완과 동남아 지역으로 간 1만 4천 포로를 제외하고, 대륙으로 돌아온 6,674명 포로들의 마음을

21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31~35쪽.

22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67~68쪽.



〈그림 2〉 마오쩌둥과 평터화이(왼쪽)와 상감령 모형(오른쪽)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²³

1993년 7월 기념관 개관식에서 당시 중공중앙정치국 상임위원, 중앙서기 처 서기 후진타오[胡錦濤]는 “항미원조전쟁은 반침략의 정의로운 전쟁이고 당 중앙과 마오쩌둥 주석이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영명한 결정을 내렸고, 평터 화이와 중국 인민 지원군이 북한 인민과 함께 승리를 거두었다.”²⁴고 밝혔다. 이같이 기념관 전시 원칙은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사상을 기반으로, 중공중앙과 마오쩌둥의 정책을 부각시키고, 평터화이와 인민 지원군의 업적과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중·조 양국민의 우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전시관 입구홀에는 마오쩌둥이 쓴 ‘항미원조 보가위국’ 글자를 새기고, 그 앞에 마오쩌둥 주석과 평터화이의 대형 조각이 ‘위기의

23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22~29쪽.

24 개관식은 정전 협정 40주년인 1993년 7월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후진타오가 북한에서 거행하는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를 앞당겨 7월 25일 열렸다. 개관식에는 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중앙군사위원,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북한 평안북도 우호대표단, 주중 북한대사관의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1993년 7월 25일 후진타오의 연설문.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160쪽.

상황에서 명을 받들다(臨危受命)’는 제목으로 세워져 있다.²⁵ 두 명의 조각상을 함께 배치한 것은 지원군 원로들의 ‘평터화이를 부각시키라’는 요구와 마오쩌둥 조각상만 세우면 ‘항미 원조’의 특징을 살릴 수 없다는 주장에 부응한 결과다.²⁶

전시관은 전당·전군·전국민의 단결을 위해 항미 원조에 참여한 모든 분야·성·시·부대가 각각 전시관 한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각 성·시·자치구별로 희생자 명단과 통계 숫자를 나열하고, 참전 부대와 주요 지휘관 모두 각 단계 전투 서열표에 열거하고, 영웅·모범·공신은 명단으로, 특급과 일급 영웅은 두상을 세워 전시하였다. 또한 상감령(上甘嶺) 등 중요 전투는 대형 모형을 입체적으로 전시하여 전쟁의 승리감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특히 마오쩌둥 주석이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성명 발표 사진, 마공군의 폭격 작전도 및 108차 변경 폭격 통계표, 김일성 친필 서한, 단동에 투하된 시한폭탄 실물 등을 유기적으로 조합해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의 결단에 충분한 증거와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관은 화살표를 따라 이어지는 관람 방식에 의해 각 전시실의 디오라마들을 연결시켜 봄으로써 한 편의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리 정해진 전시와 관람 방식은 관람객에게 전쟁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의 전쟁기념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전쟁기념관이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쟁 행위를 정

25 마오쩌둥이 쓴 글자는 홀 중앙에 금색으로 새겨 놓았으며, 3.5m의 마오쩌둥과 평터화이 동상 뒤 우측에는 평터화이가 중국 인민 지원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힘차게 건너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石善福 主編(1998), 앞의 책, 12쪽.

26 중국에서 두 명의 위인을 조각상 형태로 함께 배치한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고, 특히 기념관 입구에 배치하여 그 가치를 높였다.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42쪽.

당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선별된 한국전쟁 기억을 전달하고 있다면,²⁷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 전시가 전달하는 기억은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전시관이 강조하는 ‘항미 원조’ 필요성, ‘승리한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의미 그리고 ‘정전 협정’을 어떻게 기억하고 전시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공식 기억으로서의 항미원조전쟁 서술

1) 항미 원조 결정과 인민 지원군 출병

중국이 항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제7함대를 배치하여 중국 내전에 간섭했기 때문이다.²⁸ 트루먼은 타이완을 봉쇄하면 한국 문제를 국부적으로 국한시키고 미국의 힘을 드러내 공산당을 한국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반면, 마오쩌둥은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으로 이동시킨 미국의 행위가 중국 내정 간섭이라고 여겼다.²⁹ 마오쩌둥은 “미국은 우리 몸에 세 개의 칼을 꽂아 넣으려고 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에서 우리의 머리를 향해, 다른 하나는 대만에서 우리의 허리를 향해, 마지막으로는 베트남에서 우리의 발을 향해 찌르려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이 공세를 단호히 물리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수없이 많은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기념관의 항미원조전쟁관은 중국의 참전 이유와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 전쟁관 입구에 미군 제7함대 배치 그

27 김형곤(2007), 「한국전쟁의 공식 기억과 전쟁기념관」, 『한국언론정보학보』 40, 215~217쪽.
 28 미국이 간섭한 이후 한국전쟁은 내전에서 외래 간섭에 반대하는 반침략전쟁으로 변하였다. 姜廷玉(2010), 『解讀抗美援朝戰爭』, 解放軍出版社, 9쪽.
 29 왕수평 지음·나진희 황선영 옮김(2013), 『한국전쟁-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글항아리, 65쪽.

림을 전시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에 미국의 무장간섭이 불법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7월 8일 트루먼이 유엔군사령관으로 맥아더를 임명한 같은 날 동북 변방군을 창설하고 동북 지역에 배치하였다.³⁰ 8월 26일 미공군의 폭격이 동북 지역에 이르자, 중국국방회의는 타이완 공격을 연기하고 동북 변방군 준비 공작 회의를 소집하였고, 8월 27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미군의 중국 영공 침해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다.³¹ 전쟁관은 미공군의 압록강변 폭격에 대한 랴오닝성 관정의 항의 시위(1950년 8월 29일), 미군 공습으로 파괴된 도시와 실물 등 피해 사진의 전시를 통해 전쟁 개입의 정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맞수로 등장하리라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미군이 폭격한 중국의 동북 지역은 당시 ‘중국의 생명선’으로 지칭될 정도로 동북의 안전 문제는 중국인들에게 중요한 관심 사항이었다.³² 동북 지역은 특히 중국공산당의 권력 기반이자 신중국의 경제 기반이었다. 참전을 준비하던 제13병단의 대다수는 동북 지역 출신들이었다. 중국 인민 지원군의 출병은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한다면 모든 동북 변방군이 흡수될 것이고, 남만주의 전력을 빼앗길 것이므로 꼭 참전해야만 하며 참전하지 않으면 최대의 손실’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³³ 마오쩌둥, 펑더화이 등 지도자들은

30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 編(2000), 『周恩來軍事活動紀事(1918~1975) 下卷』, 中央文獻出版社, 128~129쪽; 대만 작전의 총사령관이 동북국경수비대 총사령관이 되었으며, 처음 3개 군단을 이동시켰다가 나중에 2개 군단을 추가하여 총 5개 군단을 압록강을 따라 배치하였다. 시메이 칭 지음·김기근 옮김(2012),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정치와 평론』 10, 179~180쪽.
 31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97), 『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中央文獻出版社, 70쪽;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전보를 보내 미국 공군의 침입 행위에 제재 조치를 요구하였다.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 編(2000), 앞의 책, 139쪽.
 32 박두복 엮음(2001), 앞의 책, 158쪽.
 33 毛澤東(1994), 「我軍應當和必須入朝參戰(1950.10.13)」, 中華人民共和國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著, 『毛澤東外交文選』, 中央文獻出版社·世界知識出版社, 144쪽.



〈그림 3〉 미국 제7함대 배치 그림과 항의 모습(왼쪽)과 미공군 폭격에 대한 항의 시위(오른쪽)

‘중국이 출병하지 않으면 적들은 압록강변을 억압하게 되어 국내외적으로 반동 기류가 더욱 고조될 것이고, 이는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저우언라이는 참전 보고에서 “미 제국주의는 동방에서 일본의 군사 기지를 이용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계승하여, 청·일전쟁 이래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미 제국주의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하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생산과 건설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하였다.³⁴ 중국 정부는 미국을 일본 제국주의와 동일시함으로써 반미 감정을 극대화하였고, 항미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³⁵ 저우언라이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머리를 강타할 수 있는 쇠망치’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34 1950년 10월 24일 중국 인민협상회의 제1차 전국위원회 제18차 상무위원회에서의 참전 보고, ‘미국을 막고 조선을 도우며 평화를 보위하자’. 周恩來(1984), 『抗美援朝, 保家衛國』, 『周恩來選集』 下卷, 人民出版社, 50~54쪽.
 35 傅焜(2012), 『항미원조운동기 중국공산당의 한국 이미지 만들기: 인민일보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38~39쪽.

이는 한반도가 어떤 세력에게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따라 중국의 심장부를 위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동북 지역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³⁶

동북 지역 연변(延邊) 조선족의 참전 역시 동북 지방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위기의식에 고무된 것이다. 조선족들에게 한국전쟁은 사회주의 정권 복환에 의한 통일 전쟁이라는 의미보다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중국 동북을 방위한다는 ‘보가자위(保家自衛)’의 전쟁이었다.³⁷ 중국의 항미 원조는 민족 전쟁이나 국가 전쟁의 의미를 넘는 정치적 함의가 있으며, ‘반드시 제국주의를 막아야 하는 사고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³⁸ 전시관의 침략자에 대한 호칭에도 유엔군보다도 미군이 더 많이 서술되어 있고 한국군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다.³⁹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1950년 8월 25일 미군의 중국 안동 지역 오폭 사건 발생으로 더욱 고조되었다. 전시관은 동북 지역에 대한 미공군의 세군탄 투하 사실 폭로와 항의⁴⁰ 등 세군전을 특히 크게 전시함으로써, 미군의 부도덕성과 전쟁 범죄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36 허동욱(2010),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전략에 대한 역사적 고찰』, 『軍史』 76, 175쪽.
 37 박정수(2009), 『《동북조선인민보》를 통해서 본 연변조선족의 6·25전쟁』, 『한국사학보』 37, 365쪽.
 38 汪暉(2013), 『중국 조선출병의 이중시야-마오쩌둥과 신중국의 ‘항미원조’전쟁』, 한국전쟁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국제포럼 발표집, 『동아시아에서 한국전쟁: 정전체제에서 지역평화체제로』, 103쪽.
 39 전시관의 침략자에 대한 호칭은 ‘미군·유엔군·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등 혼재되어 있지만, 주로 미군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군을 언급하는 경우는 패널의 설명 속에 ‘남조선(군)’이 종종 등장하나, 전쟁의 경과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정도다. 유일하게 한국 국기가 등장하는 곳은 유엔과 한국군의 요새를 공략하는 장면을 디오라마로 재현한 코너로 한국 국기와 유엔기가 함께 등장한다. 한국군이 기념관의 전시에서 가려진 것은, 중국이 전쟁의 당사자로 한국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를 보여준다. 하세봉(2013), 앞의 글, 240쪽.
 40 저우언라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세군전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각급 단위 인민 단체도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정부기록보존소(2002), 『한국전쟁과 중국』 I, 정부기록보존소, 213~214쪽.

중국 지도부가 인민 지원군 출병을 결정할 때 핵심 고려 사항은 미군이 과연 38선을 넘을 것인가였다.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는 미군의 38선 이북 침공이 중국의 한국전 참전의 결정적 변수임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⁴¹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한국전 개입 가능성을 과소 평가하였고, 1950년 10월 7일 유엔군이 38선을 넘었다. 마오쩌둥은 10월 8일 중국 인민 지원군 편성을 명령하고,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였다. 10월 19일 유엔군이 평양을 함락한 날, 중국 인민 지원군은 북·중 국경 경계선인 압록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마오쩌둥은 인민 지원군 출병을 명령하는 문건에서 ‘支援軍’으로 되어 있던 표기를 ‘志願軍’으로 고쳤다.⁴² 이는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인민이 자원해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다.⁴³ 당시 유엔군은 중국이 정규군이 아닌 지원군(志願軍)을 파견하였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고 제한적인 개입이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그와 달랐다. 마오쩌둥은 평터 화이에게 미군을 압박하여 한반도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⁴ 마오

41 저우언라이는 10월 3일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Panikar)에게 미군이 38선을 넘을 때 중국이 반드시 전쟁에 참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저우언라이(1997), 「미군이 만약 38선을 넘는다면, 우리는 관여해야 한다」, 『周恩來軍事文選』, 人民出版社, 66~68쪽;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1989), 『周恩來年譜』, 中央文獻出版社, 83쪽; 마오쩌둥은 1956년 소련중앙위원회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중국 참전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은 ‘미군의 38선 돌파여부’였다고 밝혔다.

42 당 중앙군사위원회 작전부장 리타오(李燾)가 작성했던 원래 문건에는 ‘支援軍’이었다. 徐焰(2003), 『毛澤東與抗美援朝戰爭』, 解放軍出版社, 102쪽.

43 병사들도 처음에는 志願軍으로 불릴 줄 몰랐다. 참전하면서 모두 인민 해방군 모표·홍장을 떼어냈고, 간부들은 조선 인민군의 군복으로 갈아입고 선서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비밀 유지의 필요성과 함께 중국의 참전으로 미국에게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라는 선전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홍첸즈 지음·홍인표 옮김(2008), 앞의 책, 46쪽.

44 마오쩌둥은 중국이 유리하게 전쟁을 이끈 후에 미국과 외교 담판을 하려는 전략을 세웠으며, 중국의 UN 가입과 타이완에서의 미군 철수 등 군사 전략이 있었다. 데이빗 쉰이

쩌둥은 참전 결정시 미국과 대치하는 경색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을 우려하였지만, 결국 전쟁이 승리로 마치게 되리라고 확신하였다.⁴⁵ 지원군 지휘관들은 마오쩌둥의 전술대로 미국이 북진하면 중국에까지 전쟁의 불똥이 튀리라는 점을 주지시켰고, 특히 항일 투쟁이나 국민당과의 전투에서 경험했듯 강한 정신력은 충분히 열세를 메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병사들에게 수긍시켰다.⁴⁶

전쟁관 제2실은 ‘미국 침략자가 중국 정부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38선을 넘어 침략전쟁을 확대하였지만 격퇴’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적을 38선으로 돌려보내다’라는 제목의 제3실은 “1950년 10월에서 1951년 6월까지 연속적인 5차 대규모 전역(戰役)을 진행하였고, 23만 적군을 사살하여 침략군을 압록강에서 38선으로 몰아내고, 미국 침략자가 정전 협상에 동의하도록 압박하여, 전쟁 승리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⁴⁷

2) 승리한 정의로운 전쟁
기념관 전시는 ‘반침략전쟁이자 중국이 승리한 정의로운 전쟁’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인민 지원군 사령관 평터화이의 ‘인민 지원군 활동 보고(1953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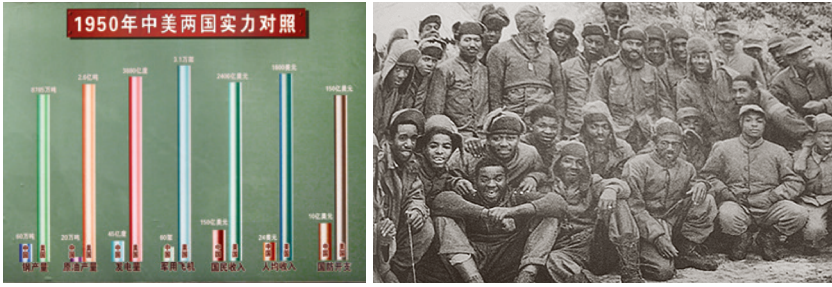
〈그림 4〉 인민 지원군을 두려워하는 미군을 묘사한 그림

(David Tsui)(2008),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VIII)」, 『전략연구』 42.

45 마오쩌둥은 “동북 변방군을 중국 인민 지원군으로 개편하고 즉각 북한 변경으로 출동하여 북한 동지들과 협력하면서 침략군과 전투를 벌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라.”고 지시하였다. 毛澤東(2000), 「關於組成中國人民志願軍的命令」, 逢先知 李捷 著, 『毛澤東與抗美援朝』, 中央文獻出版社, 140쪽.

46 逢先知 李捷 著(2000), 앞의 책, 25쪽.

47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166~171쪽.



〈그림 5〉 중국과 미국의 1950년 실력 대조(왼쪽)와 투항한 미국 흑인 병사 포로 우대(오른쪽)

48)와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항미원조전쟁 서술과도 일치하는 중국의 공식 기억이다. 인민 지원군이 승리한 모습을 가장 부각시킨 파노라마관이 청천강 전투를 소재로 선택한 이유도, 이 전투가 미국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신화를 타파하고, 지원군이 열악한 장비로 최첨단의 무기와 온 국력을 투입한 미국과 싸워 이긴 전쟁이라는 특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념관은 인민 지원군 전술의 우수함을 서술하고, 지원군이 모든 전역에서 성공하여 미국이 종이 호랑이임을 밝혀냈다는 전시를 보여준다. 무장하지 않은 인민 지원군에도 놀라고 두려워하는 미군 모습을 그려 놓았고, 각종 생산량에서 중·미의 현격한 차이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쟁이란 의미에는 정의롭지 못한 적의 군사적 질적 우세를 양적 우세로 압도할 수 있다는 마오쩌둥의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평터화이가 인민 지원군 사령관에 임명된 것 역시 전쟁에서 열세한 병력을 가지고 우세한 병력을 수차례

48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24차회의(1994), 「중국 인민지원군의 미국을 막고 조선을 도운 활동에 관한 보고」, 劉金質·楊淮生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I(1949~195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535~550쪽.



〈그림 6〉 중·조 인민 우의관

이긴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정의로운 전쟁의 이미지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 중국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군 참가에 서명하는 모습’으로도 표상된다. 또한 미국에서 인종 차별을 받던 흑인 병사들이 포로수용소에서 인간적 대우를 받는 ‘투항한 흑인 중대 사진’을 비롯, 포로들의 반전 평화 운동, 포로수용소의 인도주의 정신을 과대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이 연합군 포로들을 우대하는 정의로움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공산 중국의 체제 우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조 인민 우의관에 전시된 중국과 북한의 군인이 함께 어깨동무한 조각상, 북한 주민들이 중국군을 환영하고 협력하는 모습의 사진이나 그림 역시 전쟁개입의 정당성과 정의로움을 시각화하는 효과가 있다. 중·조 인민 우의관은 침략자에 대항하는 약자인 조선 인민의 ‘풍속 습관 존중’, ‘조선의 산수초목(山水草木) 애호’를 강조하고⁴⁹⁾,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영예와 우정을 가득 싣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지원군, 북한의 재건 공사에 참여하는 지원군 등 정의로운 모습의 사진과 그림을 전시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받은 각종 표창과 휘장·배

49 마오쩌둥(1994), 앞의 책, 146~147쪽.



〈그림 7〉 동굴 속 전우애를 연출한 사진(왼쪽)과 전쟁을 지휘한 중국 지도부(오른쪽)

지 등을 전시하여 양국 우호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⁵⁰

갱도 사진과 도구들 전시는 미군 폭격을 지원군의 우수한 방어 체계로 잘 버티어내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시물 중에는 연출된 기념사진도 있다. ‘지원군 전시들 휴식 시간에 참호 안이 손풍금과 웃음소리로 가득하다’는 사진과 갱도에서 사용한 악기 전시 등은 동굴 속에서 전우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전쟁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지 지휘관 평터화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책 결정자인 마오쩌둥이 미군과 정면 승부를 명령하여 4, 5차 전역이 실패한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⁵¹

50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174쪽; 중국해방군화보사 지음·노동환 옮김(2005), 『그들이 본 한국전쟁 1- 항미원조-중국 인민지원군』, 눈빛출판사, 161~165쪽.

51 마오쩌둥은 4차(1951.1.27~4.21), 5차(1951.4.22~6.10) 전역의 개시를 연속적으로 명령하였다. 하지만 4차 공세 개시 후 평터화이는 김일성에게 2월 4일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적을 경시하는 풍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작전에 무리가 있음을 토로하였다.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II』, 328쪽; 미군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제4차 전역에서 지원군 부대는 5만여 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 제4, 5차 전역의 실패는 인민지원군이 미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양쿠이쑹[楊奎松](2001), 『중국군의 정전 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535쪽.

정의로운 전쟁을 강조하는 전시는 ‘침략에 대한 방어’, 미군의 ‘폭력에 대한 평화 세력’, 미군 폭격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첨단 무기 미군의 ‘강자에 대한 약자’ 등 이항 대립 구도다.⁵² 이항 대립 구도는 중국과 북한의 우호 협력만 기억할 뿐, 실제로 중국과 북한 지도부 사이에 있었던 작전 통수권과 철도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은 서술하지 않는다. 1951년 4월 저우언라이는 김일성에게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 철도를 군사 관리 제도 아래 통일적으로 통제해야 하며, 연합 사령부의 지도 아래 중국과 북한 연합의 군사 운수 사령부를 즉각 조직하고, 북한 철도에 대한 관리와 보호 등의 작업을 통일적으로 집행할 것’을 제의하였다.⁵³ 북한은 철도 관할권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중국과 논쟁을 벌였지만, 조·중 연합 사령부가 설치되면서 북한은 중국군의 지휘를 받는 위치가 되었다.⁵⁴ 중국은 전쟁 승패의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기에, 현실 이익 측면에서 지휘권이 지원군인 중국군 손에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 결과였다.

제5차 전역 이후 전쟁이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중국과 미국은 정전 협상을 모색하게 되었다. 전쟁관은 정전 협상 개시 이전과 이후를 ‘운동전’과 ‘진지전’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진지전은 ‘싸우면서 답판하다’라는 제목

52 이항 대립은 우리의 6·25전쟁 전시도 마찬가지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미군의 모습과 폭력적 이미지로 묘사되는 중공군 포로의 모습’을 평화와 폭력의 이항 대립으로, ‘끊어진 철교 넘어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 피난민의 모습과 대비되는 북으로 진격하는 국군을 환영하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평화를 옹호하는 이미지’로 묘사하고, 구식 군대인 중국군의 ‘육박전과 인해 전술, 땅굴 생활’ 등을 통해 ‘문명-야만’이라는 대립항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형곤(2004), 앞의 글, 74쪽.

53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 編(2000), 앞의 책, 204쪽.

54 중국은 정전 협정에 서명한 이후, 북한 철도와 관계된 모든 지휘권을 되돌려주었다. 梁鎮三(2002), 『전쟁기 중국 지도부와 북한 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612쪽.



〈그림 8〉 개성 봉래장(왼쪽)과 봉래장의 중국 인민 지원군과 북한군(오른쪽)

으로 교살전과 세군전 분쇄, 후방 근무 부대, 지원군 공군, 지하장성 건축, 상감령 방어 작전, 적 포로 부대 내의 투쟁, 정전 실현, 위대한 승리와 인민 지원군 철병 등을 전시한다. 정전 협상에 대해서는 “열세의 장비로 현대 기술 장비를 갖춘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을 물리치고, 정전 협정을 맺도록 만들었다.”고 서술하였다. 사실 정전 협정은 중국과 유엔 양측 모두 전쟁 조기 종결의 기회를 여러 번 놓치면서 2년 이상 지연된 것이다.⁵⁵ 중국도 인민 지원군 병사의 감소와 피로, 병참선 연장으로 인해 군량 공급 등이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미군의 반격 능력과 자신들의 전쟁 수행 능력을 분명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정전

55 중국이 먼저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개입할 것을 경고하고, 미국 제7함대의 타이완 해협 철수와 장제스(蔣介石) 정부의 지원이 철회된다면 압록강 남쪽의 비무장 완충지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이 이를 무시하여 조기 종결의 기회가 사라졌다. 이후 중국·북한군이 제3차 전역(1950.12.31~1951.1.8)의 성공으로 37도선에 이르자 유엔이 ‘先정전, 後대화’라는 휴전 협상을 제의하였지만 중국이 ‘외국 군대 철수, 중국의 유엔 참가’ 등을 주장하면서 유엔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중국은 ‘선정전 후협상’은 미국이 호흡을 가다듬은 후 다시 전쟁을 치르려는 음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中央文獻研究室 編(1997), 앞의 책, 118~119쪽.

을 유리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⁵⁶ 중국은 제4, 5차 전역에서의 막대한 피해와 후퇴, 1951년 5월 유엔의 경제 봉쇄 조치로 인한 타격으로 인해 결국 미국과 7월 10일 정전 대화를 시작하였지만, 타이완 문제와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적 지위 문제 등을 포기해야 하였다.⁵⁷

정전 협정 전시에는 협상 장소였던 개성의 봉래장(來鳳莊)이라는 한옥 건물 사진을 크게 확대해 걸어놓았다. 봉래장 사진 속의 중국 지원군은 평범한 군복을 입는데 반해, 북한군은 칼라를 세운 정장 군복에 휘장을 달고 긴 가죽 장화를 신고 있어서 비교된다. 복장만으로는 북한군이 중국의 지원군보다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 정전 협상은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가 지휘하였고, 중국 지도부는 협상을 지도하기 위해 별도의 국제 외교 문제 전문가도 배치하였다.⁵⁸

7월 26일 양측은 5개의 협상 의제를 확정하여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군사 분계선과 외국군 철군 문제에서 충돌하였다.⁵⁹ 협상

56 중국이 유엔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군사 분계선 설정 역시 중국과 북한에 유리할 것이었지만, 중국이 유엔의 제의를 거부해 미군이 반격을 개시한 이후 병력 손실도 커졌다. 선즈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박두복 편저(2001), 앞의 책, 268쪽; 중국의 정전 기회 상실에 대해서는 양쿠이쑹(2001), 앞의 글, 528~529쪽; 선즈화 지음·최만원 옮김(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등 참조.

57 양쿠이쑹(2001), 「중국의 한국전쟁 출병 시말」, 박두복 편저, 앞의 책, 백산서당, 324~325쪽; 미국이 포괄적 평화 협상이 아닌 순전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정전 협상으로 한정했기에, 중국도 군사 문제가 아닌 유엔 대표나 대만 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다. 김학재(2013), 앞의 글, 423쪽.

58 김보영(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사학연구』 90, 338쪽; 저우언라이는 협상을 이끄는 등화(鄧華)와 해방(解方), 북한의 남일의 막후에 협상을 지도할 이극농(李克農)과 교관화(喬冠華) 등 국제 외교 문제 전문가를 배치하였다. 羅銀勝(2012), 『喬冠華傳-紅色外交家的悲喜人生』, 文化藝術出版社, 102쪽.

59 李金明(2003), 「爭与和平的理性抉擇-試析周恩來在朝鮮停戰談判中堅持原則性与灵活性的統一」, 『軍事歷史研究』, 제4기, 60쪽.



(그림 9) 정전 협정 연합군

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승리를 위한 전쟁의 연장이었다. 미군은 협상 과정 중 계속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격하였다. 전시관은 동북 지역과 북한의 폭격 피해 상황을 그림으로 전시하고, 중국도 공군을 출동해 미군 전투기를 격추시킨 전과를 올린

사진과 통계표 등을 전시하였다. 정전 협상이 진행된 기간이 전쟁 기간의 2/3 이상이라는 점에 비하면 관련 전시물은 많지 않은 편이지만, 유엔군 포로 사진과 지원군 포로 출신 장다(張達)가 수집한 전쟁 포로 유물이 ‘포로수용소에서의 투쟁’이란 제목으로 전시되어 있다.⁶⁰ 1953년 6월 8일 포로 송환 문제가 해결되어 정전 회담이 재개되었지만, 지원군은 군사 분계선을 유리하게 확정 짓기 위해 7월 13일 금성 전투를 시작했고 7월 27일 정전 협정 체결일에야 전투를 멈췄다. 전시관은 금성 전투 작전도와 백호단기 전시, 백호단을 기습하는 장면을 모형으로 만드는 등 전투 성과를 자세하게 전시하고 있다.⁶¹

평터화이는 한국전쟁을 회고하면서, “3년의 격전을 치른 후 세계 일류 군대는 원래 침략을 시작한 곳에서 발이 묶였다. 거기서 한걸음도 넘지 못했을

60 장다는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는데 석방되어 귀국한 후 ‘투적반국(投敵反國)’ 분자가 되었고 문혁 중에는 ‘추악한 요괴(牛鬼蛇神)’가 되었다. 기념관은 인민 지원군 포로들에 대한 잘못된 오명을 바로잡기(正名) 위해 이를 전시하였다고 한다.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27·32쪽.

61 금성 전투는 적군 7, 8만여 명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혔고, 192,6만m²를 점령하여 마오쩌둥이 전투 결과에 만족하였다. 마오쩌둥은 후에 소련대사에게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1년 정도만 미국을 계속 공격한다면, 한강 주변 점령에 유리한 지역을 점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즈화 지음·최만원 옮김(2010), 앞의 책, 494쪽.

뿐 아니라 도리어 갈수록 곤경에 빠져들었다. 이는 중대한 국제적 의의를 지닌 교훈이다. 수백 년에 걸쳐 서방의 침략자가 동방의 어느 해안에 대포 몇문을 놓기만 하면 한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웅변으로 증명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⁶² 항미원조전쟁이 승리로 서술되듯이, 전시된 ‘정전 협정’ 서명 장면의 사진 역시 평터화이는 승자의 모습, 연합군은 패자의 모습처럼 보인다. 중국은 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가 회고록에서 “내가 미국 역사상 승리하지 못한 정전 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육군 사령관이었다.”라고 한 언급을 미국이 패전을 인정한 것으로 서술한다.

중국의 승리 주장에는 소련으로부터 대규모 군사·경제 원조를 받아 경제 회복과 군 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과, 중국군의 전투 능력·후방 지원 등 각 방면에서 이룩한 성과가 포함된다. 하지만 정전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은 원래 의도한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적 지위 문제’와 ‘타이완 문제’를 포기하고 군사적인 문제로만 국한하게 되었다. 정전 협정은 한시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로 정해졌기에, 전쟁 당사자 모두에게 ‘승리’나 ‘종식’이라고 보기 어렵다.⁶³ 미·중 간 ‘싸우면서 협상하는 원칙’은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포로 문제를 비롯한 참혹한 결과와 갈등을 초래하

62 왕수평 지음·나진희 황선영 옮김(2013), 앞의 책, 979쪽.

63 정전 협상은 개시가 늦었고, 군사 분계선 합의 후에도 전투가 중단되지 않았으며, 포로 송환 문제로 협상이 오래 지연되었고, 협상 수단으로 과도한 공중 폭격이 있었다는 점 등에서 ‘정의’가 아닌 ‘부정의’로 점철된 전쟁이었다. 2백만에서 3백만에 이르는 남북 민간인과 40만 국군, 5만 4천여 명의 미군, 백만에서 2백만에 이르는 공산군이 사망하였고, 희생의 45%가 휴전 협상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특히 포로 송환 원칙으로 논란을 벌인 15개월 동안 연합군 측 12만 5천 명, 공산군 측 25만 명이 희생되었으며, 미군 폭격으로 야기된 민간인 희생도 극심하였다. 정태욱(2010),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한국전쟁 종결의 부정의」, 『민주법학』 43, 142~143쪽.

였다.⁶⁴ 하지만 전시관에는 전쟁 포로와 희생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서술이나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호소하는 주장은 보이지 않는다. 애국주의와 혁명적 영웅주의만이 부각되고 있다.

Ⅲ. 항미원조운동과 기념 활동

1. 항미원조운동과 애국주의

항미원조운동의 ‘항미’는 외부의 적으로서 미국보다 그들 내부에 잔재하는 미 제국주의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크고, ‘원조’는 애국적인 국민 감정에 호소하여 생산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한다는 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⁶⁵ 항미원조운동관의 전시는 항미 원조 선전 활동과 ‘미제국주의를 멸시(蔑視)·구시(仇視)·비시(鄙視)하는 교육’을 통해 ‘친미(親美)·숭미(崇美)·공미(恐美) 사상을 깨부수고’ 중국 인민이 모두 노력하여 항미원조전쟁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비행기·대포 모금 운동과 무기 헌납, 애국 공약 제창’, ‘증산 절약 운동과 전쟁 물자 공급’, ‘군인 가족 위문과 3차의 조선 위문단 파견’, ‘동북 인민의 공헌-모금 운동과 위문 활동’ 등을 비롯한

64 김보영(2011), 「한국전쟁 휴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역사와 현실』 80호, 352쪽; 정전 회담이 2년여 지속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대립도 발생하였다. 미군 폭격으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북한은 정전 협정이 빨리 체결되기를 기대하였지만, 마오쩌둥은 군사 행동을 계속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전 조건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박영실(2011), 「정전회담을 둘러싼 북한·중국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14-3, 73~74쪽.

65 傅焜(2012), 앞의 글, 9쪽.



〈그림 10〉 솜 군복(왼쪽)과 볶음가루를 만드는 모습(오른쪽)

국민 경제 회복을 촉진한 기록들을 전시하고 있다.⁶⁶ 대표적인 사례로 제2차 전역 시기인 1950년 11월부터 인민 지원군이 전투하는 데 필요한 솜을 넣은 군복과 엄청난 양의 볶음가루(炒麵) 등을 만들어 보냈다. 볶음가루는 운송에도 변질되지 않고 휴대하기도 간편하며 먹기도 편할 뿐 아니라 대량 공급도 가능했으므로, 중국군이 전쟁 기간 발명한 야전 식량이 되었다.⁶⁷ 전시관은 이 ‘솜 군복’과 ‘볶음가루 제조 열풍’을 사진과 실물로 전시하고, 저우언라이 총리 등 지도자들이 직접 베이징 각 기관의 간부 및 군중들과 함께 볶음가루를 만드는 사진을 크게 확대하여 부각시켰다.

중국 정부는 항미원조운동을 통해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66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172~173쪽.

67 당시 긴급한 볶음가루 공급을 위해 동북 인민 정부는 ‘볶음가루 생산을 위한 규정’을 만들었고, 선양시는 당정군 각 기관이 매일 최소한 볶음가루 13만 8천 근을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했다. 동북군구는 12월 8일 ‘볶음가루, 고기 포 생산 회의’를 열어 한 달 내로 볶음가루 650만 근, 고기 포 512만 근을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볶음가루 제조 열풍’은 동북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홍웨이 지음·홍인표 옮김(2008), 앞의 책, 148쪽.



〈그림 11〉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비석

는 애국주의 생산 경쟁을, 농민에게는 지원병으로서의 참전을 호소하였다.⁶⁸ 항미원조운동 기간 중국 정부는 전쟁 영웅 기사를 통해 지원군의 희생을 미화함으로써 국민적 애국심과 자긍심을 제고시켰다. 항미원조기념관 입구 앞에는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큰 비석이 있다.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인민 지원군을 지칭한다. 이 글을 쓴 웨이웨이[魏巍]는 종군 작가로 참전하여 지원군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투에도 참가하였다.⁶⁹ 마오쩌둥이 그의 글을 읽은 후 전군에 배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지원군에 대한 친근함과 존경을 표현하는 대중적 호칭이 되었다. 이러한 인민 지원군 묘사는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인민 지원군으로 상징화되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적 헌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68 항미 원조는 혁명 시대의 군중 노선을 신중국 조건하의 전면 사회 동원으로 바꾸었다. 汪暉(2013), 앞의 글, 17쪽.

69 웨이웨이가 인민 지원군이 겪고 있는 고난 가득한 상황과 미군을 저지한 전투를 “가장 사랑스러운 이는 누구인가(誰是最可愛的人)”라고 작성한 보도 기사가 1951년 4월 11일 『인민일보』 1면에 게재되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 교육⁷⁰을 시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박물관 단체 관람을 적극 권장하고 무료로 개방하였다.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은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 ‘랴오닝성 국방 교육 시범 기지’, ‘전국 문화 공작 선진 기관’으로 명명되어, 전국 규모의 애국주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베이징의 중국국가박물관이 개장을 기념하여 2011년부터 특별 전시하고 있는 〈부흥의 길〉⁷¹ 안에 항미원조전쟁 관련 전시는 상감령 전투와 특급 영웅 두 가지며, 드라마틱한 그림과 실물을 곁들여 항미원조전쟁에서의 ‘승리’와 영웅적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인민 지원군의 혁명적 영웅주의는 영웅열사관과 열사능원을 통해 기념되고 있다.

2. 열사능원과 영웅주의

항미원조전쟁 기간 중국의 군사적 손실은 항일전쟁과 내전에서 사망자 수를 초과했을 정도로 컸다. 미국보다 전쟁 무기와 물자가 열악한 중국이 미국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요소는 정전 협정 체결 때까지 계속 싸운 중국 인민 지원군이며,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영웅과 열사가 만들어

70 애국주의 교육은 1991년 중국 국가교육위원회 판공청이 ‘초중고학생들의 진일보한 애국주의 교육 활동’ 제안으로 시작되어, 1994년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애국주의 교육 실시 요강’을 발표하였고 이듬해 민정국이 100개 애국주의 교육 기지를 선정하였다. 박충환(2011), 「홍색관광과 기억의 정치학: 개방개혁 후 중국, 가까운 과거와 관계 맺기」, 『현대중국연구』 13-1, 133쪽.

71 베이징 톈안먼 광장 옆의 중국국가박물관은 중국역사박물관과 중국혁명박물관 두 개의 건물을 합쳐 2011년 3월 1일 문을 열었다. 개장을 기념한 〈부흥의 길〉 특별 전시회는 ‘국치를 잊지 말고, 중화를 진흥하자’를 주제로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고무시키기 위한 것으로, 1840년 아편전쟁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역사를 국지에서 벗어나 부흥을 이루기 위해 중국인들이 겪었던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12〉 영웅 열사관

졌다. 기념관 내 영웅열사관은 2명의 특급 영웅, 50명의 1급 전투 영웅과 4명의 1급 모범 등 모두 56명의 모범 인물이 희생된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그린 대형 그림과 조각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적의 흉탄을 가슴으로 막은 황지광[黃繼光]과 폭탄을 품고 적군에 뛰어든 양건쓰[楊根思] 등 특급 영웅 2명, 몸에 불이 붙었는데도 적에게 잠복 위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희생된 치우샤오윈[丘少雲] 등 1급 영웅 50명, 1급 모범 4명, 2급 영웅, 2급 모범과 특등공 이상자 362명, 각종 유공자 302,714명이 전시·기록되어 있다.⁷²

단동의 항미원조기념관이 승리의 기억을 기리는 시설인 모뉴먼트(monument)라면⁷³, 전사자들을 잊지 않기 위한 애도 시설인 메모리얼(memorial)은 단동 항미원조열사능원·위안바오구[元寶區] 항미원조열사능원·화원혁명열사능원, 선양 항미원조열사능원이 대표적이다.

72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175쪽.

73 안경화(2010), 「전쟁의 재구성: 기념관 속의 한국전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 167쪽; 전쟁에 관한 기념물은 애도를 위한 시설과 사건 자체를 기념하기 위한 시설 두 가지로 성격이 구분된다. 항미원조기념관은 전쟁의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전쟁 자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어서 후자에 해당된다. 하세봉(2013), 앞의 글, 220쪽.



〈그림 13〉 북한의 마오안잉 묘(왼쪽)와 저우언라이의 참배사진(오른쪽)

1) 단동 항미원조열사능원

중국 지도부들이 인민 지원군 열사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이 1950년 11월 25일 미군 공습으로 북한 회창군에서 희생되면서부터 제기되었다.⁷⁴ 단동의 항미원조열사능원은 전시 사망자가 생기면 바로 안장해야 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소규모로 분산되어 조성되었다. 단동 시내에만 단동시 항미원조열사능원, 위안바오구 항미원조열사능원, 화원혁명열사능원, 전안구[振安區] 공군열사능원 등이 조성되어 있고, 작은 규모의 열사묘와 파악되지 않은 다수의 무명 열사 묘지들이 단동 교외에 흩어져 있다.

단동시 항미원조열사능원은 1951년에 만들어진 후 1984년 증건되었다. 능원 안에는 1951년 중국 인민 지원군 제50군이 건립한 ‘중국인민지원군열사

74 저우언라이는 당시 마오쩌둥에 보낸 편지에 “마오안잉의 희생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대유동과 다른 전쟁터에 중국 인민 지원군을 기리는 열사비를 세워야 한다.”고 썼다.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 編(2000), 앞의 책, 178쪽; 북한 회창군에 있는 마오안잉의 묘 비석에는 “마오안잉 동지의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정신은 젊은 세대에게 영원한 기감으로 용기의 원천이 될 것이다. 마오안잉 열사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는 글이 적혀 있다.



〈그림 14〉 항미원조열사기념비

기념탑'과 1971년 단둥시가 세운 '항미원조 열사기념비'가 있다. 능원에 안장된 264명 중 인민 영웅·전투 영웅·특등 공신 등이 13명, 간부가 8명이다. 랴오닝성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로 지정된 이 능원에는 많은 추도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⁷⁵

단둥의 위안바오구 항미원조열사능원은 1952년 6월 조성되었고 단둥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능원 내에는 전쟁 중 부상당해 중국 인민 지원군 총후의원으로 옮겨와 사망한 688명이 묻혀 있고, 2000년 확대 조성되었다.⁷⁶ 화원혁명열사능원은 1950년 건립되기 시작하여 1994년 증건되었고, 2000년 항미원조전쟁 50주년에 묘지를 새로 조성하여 항미 원조 시기 열사 607명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 열사 21명이 안장되었다. 단둥시 애국주의 교육 기지, 랴오닝성·단둥시 국방 교육 기지로 명명되어 혁명 선열의 영령을 위문하는 장소이자 혁명 투지를 고무시키는 교육 기능, 국방 관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둥의 열사능원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공청단과 부녀 연합회 등 각급 기관 인원이 최근 3년 이래 10만여 명 이른다고 한다.⁷⁷

75 중공중앙 총서기 후진타오와 전지원군부사령 홍쉐즈 등이 방문하여 항미 원조 열사를 추도하였다. <http://baike.baidu.com/view/8287795.htm>.

76 이들의 고향은 중국 21개 성시(省市)에 달하며, 출신 부대는 지원군 제38군 등 28개 군, 중국 인민 지원군1군, 공4군, 안둥군분구, 랴오둥군구 등이 포함된다. 능원을 조성할 당시 자료 부족으로 묘지 설명에 성명과 부대 번호, 직무 등만 있고, 참가한 전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도 한다. http://www.360doc.com/content/10/0808/001817883_44434217.shtml.

77 <http://gfjy.jxnews.com.cn/system/2010/04/19/011361822.shtml>.



〈그림 15〉 단둥 항미원조열사능원(위쪽)과 선양 항미원조열사능원(아래쪽)

2) 선양 항미원조열사능원

1951년 동베이[東北]군구가 건설한 선양 항미원조열사능원은 항미원조열사기념비·지원군 조각·열사 묘군·열사 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⁷⁸ 입구 정문의 왼쪽과 오른쪽 벽에는 항미원조전쟁 기간을 의미하는 1950, 19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입구를 들어서면 정면에 '항미원조열사 영원하리(抗美援朝烈士永垂不朽)'란 글자가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기념비 상단에는 동으로 주조된 중·조 양국 국기가 양국의 우의를 상징하며, 국기 아래에는 총을 손에 쥐고 있는 지원군의 동상이 올려져 있다. 기념비 아래단 뒷면은 지원군 전투 장면이 동으로 새겨져 있다. 기념비 앞 광장 양측에 특급 영웅과 일급 영웅들

78 瀋陽抗美援朝烈士陵園 編(2010), 『抗美援朝烈士永垂不朽』, 8쪽.

이 희생된 장면, 지원군 전사가 깃발을 높이 들고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의 조각이 있다.⁷⁹

열사묘군에는 열사묘 봉분의 전체 표면을 시멘트로 마감한 123명의 지원군 열사가 안장되어 있다.⁸⁰ 열사기념관은 항미원조전쟁 60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 9월 확대 개관되어, 134명의 각급 영웅과 217명 간부의 영웅적 사적을 주로 전시하고 있다.⁸¹ 현재 전국 중점 열사 기념 건축물 보호 단위,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로 명명되어, 국경절 등 기념일에 주요 지도자와 각 계 군중들이 추도 활동을 거행하고 있다.⁸² 이 능원에는 1953년 10월 허룽[賀龍] 원수가 중국 인민 제3차 조선 파병 위문단을 이끌고 와 참배하였고, 1963년 6월 저우언라이 총리와 천이[陳毅] 부총리가 최용건 위원장이 이끈 조선 당 정 대표단과 함께 참배한 바 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부대와 청년학생들이 열사묘 앞에서 입단·입대 선서 의식을 거행하는 등 매년 참관 군중이 5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의 평안남도 회창군에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잉 묘와 함께 중국인민 지원군열사능원이 조성되어 있고, 운산·개성·상감령 등지에도 열사능원이 있다. 중국과 북한 지도자들은 매년 북한에 있는 중국 인민 지원군 묘지를 참

배하고 있다. 2013년 4월 청명절에 구안후아빙[關華兵] 주북한 중국대사 일행이 평양시 목단봉에 위치한 중국인민지원군열사기념비 ‘우의탑’과 평양시 형제산에 위치한 지원군 열사묘를 찾아 그들의 충혼을 기렸다.⁸³ 최근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민 지원군 묘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중국 측의 보도가 있었으나, 북한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 인민은 중국 인민 지원군 열사들이 이룬 업적과 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⁸⁴

IV. 맺음말

중국 베이징TV가 2014년 3월 방영한 한국전쟁 관련 역사 다큐멘터리 「위대한 항미 원조」는 항미원조전쟁이 인류 역사상 약자가 강자를 이긴 전형적인 전쟁의 사례이며, 지원군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과 비교해 무기 장비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어려움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전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 인민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하여 국민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이끌었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소련의 지원 아래 중국 공업화의 기초를 닦았고, 중국 군대는 소련 장비로 무장한 현대화된 군대로 탈바꿈하였으

79 瀋陽抗美援朝烈士陵園 編(2010), 앞의 책, 9쪽.

80 특급 영웅과 일급 영웅 등 28명, 지원군 50군 부군장, 지원군 39군 부군장, 지원군 23군 참모장 등 95명 단급 이상 간부들이다. 열사묘 봉분은 일반적인 묘의 형태와 다르고, 동일한 항미원조열사능원 구내에 있는 소련군 열사능원의 묘지 형태와도 다르다. 이곳의 소련군 묘지는 1945년 8월 선양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사망한 소련군을 기념하는 시설로서 선양역 광장에서 있던 것을 2006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하세봉(2013), 앞의 글, 223쪽.

81 열사기념관에는 특급과 일급 등 영웅들의 사진과 초상화가 절반 가량 차지하고, 무기·훈장·수첩 등의 실물과 사진이 조합을 이루며 전시되어 있다.

82 瀋陽抗美援朝烈士陵園 編(2010), 앞의 책, 10쪽.

83 『人民日報』(2013. 4. 5).

84 문성혁(文成革) 주중 북한대사관 공보 참사관은 “북한 정부와 인민은 평양의 모란봉 산기슭에 우정탑을 세우고, 회창·운산·개천·장진·개성 및 상감령·금성천 등지에 지원군 열사 묘역을 조성하여 성심성의껏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역시 2013년 7월 29일 마오안잉 묘와 중국 인민 지원군 열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였다. 「中 인민 지원군에 대한 北 인민의 숭고한 마음을 모욕하지 말아야」, 『環球時報』(2014. 1. 27).

며, 1951~1954년까지 중국 인민 해방군이 여러 가지 병종을 갖춘 합성군으로 발전하는 등,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중국은 60년 동안의 평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한다.⁸⁵ 단동의 항미원조기념관 역시 ‘항미원조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미원조의 승리와 항미원조 과정에서 이룩한 정치·군사·경제의 발전과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⁸⁶

기념관 내의 전쟁관과 운동관·우의관·영웅 열사관은 모두 중국이 미국과 싸워 ‘승리한 정의로운 전쟁’의 이미지를 전시하고 있다.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는 압록강까지 올라온 미군을 다시 38선 아래로 되돌린 군사적 승리와 더불어, 인민 해방군 재정비와 무기 현대화, 생산 증대와 경제 발전, 대중 동원과 애국주의 강화, 국가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을 지키고 높였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중국에서 항미원조기념관과 열사능원의 전시와 기념 활동은 애국주의와 혁명 영웅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민족주의·애국주의·사회주의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박물관·기념관을 활용하고 있다. 항미원조기념관의 전시는 선택적으로 이상화·미화된 역사 기억을 국가의 공식 기억 속으로 편입시키고 애국심을 북돋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쟁 승리와 영웅에 대한 입체적이고 스펙터클한 전시는 국가의 공식 기억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킴으로써 애국주의 교육의 유용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⁸⁷

열사능원에서의 기념 활동 역시 전사자를 추도하기보다는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들의 영웅적 행동을 본받는 역할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중국이 매년 항미원조전쟁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기념일은 인민 지원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개시한 10월 25일이다. 개전일을 기념하는 것은 전쟁 종결과 평화 지향이 아닌, 전쟁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⁸⁸ 이러한 항미원조전쟁의 기억과 기념은 냉전기 ‘항미’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하던 시대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중국의 달라진 국제 위상이나 정체성과 모순된다. 중국은 1979년 이후 미국을 비롯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 16개국 모두와 국교를 맺었고, 또한 연합군과 국가 간 전쟁이 아닌 북한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출병하였으므로, 과거의 대립 관계를 청산하기 쉬운 면도 있다. 특히 정전 협정 60주년인 2013년 한·중 관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인민 지원군 출신 생존자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의 중국군 묘지에 참배하고 파주시 참전 용사들과도 만난 것이다.⁸⁹ 한·중 참전 군인의 만남은 양국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중국군 유해의 송환을 추진하여, 2014년 3월 28일 중국 인민 지원군 열사의 유해 437구를 중국에 송환하였다.⁹⁰ 중국은 인민 지원군 열사 유해 송환 작업을 국방 교육과 국방 의식 고취라는 의미에 더하여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대국이라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85 또한 아시아·아프리카 민족 해방 운동을 촉진하여 베트남 등의 식민지 탈피와 독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BTV《檔案》抗美援朝特別節目:用影像感知歷史』, 『人民網』(2014. 3. 25).
86 石善福·宋群基·唐慶雄 編著(2000), 앞의 책, 42쪽.
87 박충환(2011), 앞의 글, 134·148쪽.

88 중국의 항미 원조 기념일은 인민 지원군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개시일이다. 항미원조전쟁 기념일이 6·25전쟁과 마찬가지로 개전일을 기념하는 것은, 아직도 남북의 대립적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 김형곤(2005), 『한국전쟁 사진과 집합기억』, 『韓國言論學報』 49-2, 80쪽.
89 『중앙일보』(2013. 7. 8); 『한겨레신문』(2013. 7. 9).
90 중국은 2014년 3월 28일 오전 선양[沈陽]에 도착한 인민 지원군 유해에 대한 공식 환영식을 개최하였다. 『人民網』(2014. 3. 28).

한·중 간 지원군 열사 유해 송환에서 보여준 협력 사실은 앞으로 단동의 항미원조기념관에도 소개 전시될 필요가 있다. 단동의 항미원조기념관이 확대 개관될 때 중국 정부의 원칙은 애국주의·국제주의와 중국·조선 간 우의 교육이었고, 외국인의 참관도 고려한 공원식 기념관을 지향하여 만들었다.⁹¹ 기념관 확대 개관 과정에 북한의 평양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자료 수집 등에 협조하였듯이, 한·중 간 교류 협력과 소통이 더욱 확대된다면, 양국의 한국전쟁기념관 사이에 전시 자료 협조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항미원조기념관이 중국의 변화된 국가 위상에 걸맞게 냉전기 이항 대립의 기억이 아닌 다양한 전쟁 기억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남한의 중공군 묘지 사진과 인민 지원군 유해 송환 협력 사실도 전시하며, 한국전쟁과 관련된 여러 나라의 박물관과 국제적으로 교류·소통하는 기념관이자 세계적인 평화 공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91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항미원조기념관의 확대를 허가하면서 중국 인민에게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중·조 우의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함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石善福 主編 (1998), 『歷史的較量-抗美援朝記念館』, 中國大百科事典出版社, 8쪽.

참고문헌

단행본

- 逢先知 李捷 著(2000), 『毛澤東與抗美援朝』, 中央文獻出版社.
 陳忠龍 等編著(2001), 『抗美援朝戰爭論』, 軍事議文出版社.
 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소 편저·한국전략문제연구소 옮김(1991), 『中共軍의 韓國 戰爭史: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세경사.
 김경일 지음·홍면기 옮김(2005),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논형.
 김학준(2010), 『한국전쟁-원인 과정 휴전 영향』, 박영사.
 박두복 편저(2001),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沈志華 지음·최만원 옮김(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왕수평 지음·나진희 황선영 옮김(2013), 『한국전쟁-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글항아리.
 이종석(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중국해방군화보사 지음·노동환 옮김(2005), 『그들이 본 한국전쟁 1-抗美援朝-중국인민지원군』, 눈빛출판사.
 洪學智 지음·홍인표 옮김(2008), 『중국이 본 한국전쟁』, 한국학술정보.
 服部隆行(2007), 『朝鮮戰爭と中國』, 廣島: 溪水社.
 石善福 主編(1998), 『歷史的較量-抗美援朝記念館』, 中國大百科事典出版社.
 石善福 宋群基 唐慶雄 編著(2000), 『抗美援朝記念館』, 臺海出版社.
 瀋陽抗美援朝烈士陵園編(2010), 『抗美援朝烈士永垂不朽』.

논문

- 김계동(2012), 「한국전쟁은 더빨리 끝날 수 없었는가?-평화중재의 시도와 좌절-」, 『軍史』 83.
 김보영(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史學研究』 90.
 김보영(2011), 「한국전쟁 휴전협정과 전쟁의 유산」,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80.

김옥준(2002),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국내정치」, 『국제정치논총』 제42집 1호.

김학재(2013),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탄생」, 백원담·임우경 엮음,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화과학사.

김형근(2004), 「전쟁기념관의 한국전쟁 상징물에 대한 연구」, 『언론학연구』 8-1.

김형근(2005), 「한국전쟁 사진과 집합기억」, 『韓國 言論學報』 49-2.

김형근(2007),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기념관」, 『한국언론정보학보』 40.

김형근(2009), 「미국과 중국에서의 한국전쟁 사진과 기억」, 『한국언론정보학보』 48.

미육군전사편찬실(1994), 「정전협정이 조인되던 날」, 『한국논단』 59-1.

박영실(2011), 「정전회담을 둘러싼 북한·중국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14-3.

박정수(2009), 「《동북조선인민보》를 통해서 본 연변조선족의 6·25전쟁」, 『한국사학보』 37.

박종철(2012)저·이재석·조성훈 편,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과 북중관계」, 『한반도 분쟁과 중국의 개입』, 선인.

박충환(2011), 「홍색관광과 기억의 정치학」, 『현대중국연구』 13-1.

백진현(2001), 「6·25의 국제법적 성격과 휴전협정」, 『서울대학교 법학』 41-2.

傅焜(2012), 「抗美援朝運動期 중국공산당의 한국 이미지 만들기」,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徐勇(2007), 「20세기 중국의 지역전략과 항미원조 전쟁과의 관계」, 『민주연구』 6.

손해룡(2011), 「1950년대 ‘항미원조운동’ 중 나타난 한반도 인식」, 『중국현대문학』 59.

시메이 칭 지음·김기근 옮김(2012),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위기의 시대에 양국은 서로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정치와 평론』 10.

안경화(2010), 「전쟁의 재구성: 기념관 속의 한국전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

楊奎松(2001),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국사편찬연구소.

양영조(2005), 「6·25전쟁시 중국군의 지구전 전략과 군사개혁: 조중연합군사령원 彭德懷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 33.

梁鎭三(2002),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王元周(2011), 「한국전쟁기간 중국의 군비지출과 대북지원」, 『통일인문학논총』 52.

왕침(2012), 「“東方”에 투영된 抗美援朝 영웅의 이미지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李相冕(2007), 「한국전쟁과 휴전의 당사자 문제」, 『國際法學會論叢』 52-2.

이완범(2000), 「한국전쟁과 抗美援朝戰爭」, 『정신문화연구』 23-3, 한국학중앙연구원.

임우경(2011), 「한국전쟁시기 중국의 반미대중운동과 아시아냉전」, 『사이 間』 10.

장공자(2007), 「한국전쟁과 그 주역: 모택동」, 『社會科學研究』 24-2.

章百家·박두복 편저(2001), 「위기처리 시각에서 본 항미원조 출병결정」,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정태욱(2010),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한국전쟁 종결의 부정의」, 『민주법학』 43.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지음·오규열 옮김(2002),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하세봉(2013), 「중국의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抗美援朝紀念館의 경우」,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홍년기(2002),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변화」, 『戰史』 4, 국방부국사편찬연구소.

David Tsui(2010), 「중국의 6·25전쟁 참전(XVI)」, 『전략연구』 17-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抗美援朝烈士陵園(瀋陽) <http://baike.baidu.com/view/81058.htm#1>.

박물관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전시

규슈국립박물관의 경우

I. 국립박물관과 분석의 시각

II. 국가사, 지방사, 지역사와 박물관

III. 문화 교류 전시실-‘바다의 길, 아시아의 통로’

IV. 부재와 결락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박물관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전시

규슈국립박물관의 경우

I. 국립박물관과 분석의 시각

역사 인식에서 민족주의에 갇히지 않을 대안으로 유력하게 주목되어 온 관점은 ‘동아시아’였다. ‘동아시아’라는 시각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중·일에서 서로 영향을 받으며 그러면서도 각기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가 새롭게 작동하면서 일어나는 해양 영토분쟁은 최근 동아시아 각국에서 신경권이 성립되면서 앞으로 더욱 갈등이 심각해질 소지가 있다. 갈등의 폭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족주의를 대신할 시각의 하나는 ‘동아시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동아시아’를 말할 때, 국내외 학계에서는 안중근, 쑨원[孫文]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등 소수 지식인의 주장이나 사상이 검토 대상이었다. 이때 소수 지식인의 동아시아 논의가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전파력을 가졌고 대중이 거기에 공명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런 만큼 동아시아 논의와 대중과의 접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적절한 소재는 박물관의 역사 전시다.



하세봉(河世鳳)

동아시아근대사 /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대표논저: 『인류에게 박물관이 왜 필요했을까』(공저, 2013, 민속원),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평화의 환상을 넘어서』(공저, 2013, 선인), 『동아시아역사학의 생산과 유통』(2001, 아세아문화사) 등.

일본은 ‘동아시아’ 논의가 가장 활발한 국가의 하나다. 학계 혹은 소수 지식인의 ‘동아시아’ 논의는 대중의 민족주의와 어떻게 접합하거나 혹은 이탈할까? 일본에 박물관은 현재 6,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많고 그만큼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 일본 이외의 타자의 문물을 전시하는 박물관, 그리고 다수 대중이 관람하는 박물관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것은 규슈(九州) 국립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2005년에 개관한 국립박물관인데, 전시의 기본 방향은 ‘일본 문화의 형성을 아시아사적 시점에서 본다’로 설정되었다. 박물관의 전시는 소수 지식인의 발상과는 다르다. 다수의 큐레이터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다수의 역사학자, 일반시민의 발상과 의견이 종합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996년 일본 정부가 규슈국립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후, 2002년 3월에 건설 공사에 착공하여 2004년 3월에 완공하고 3년에 걸쳐 전시 공사를 마친 후 2005년에 개관하였다. 본고에서는 규슈국립박물관의 전시에서 역사적 지식이 어떻게 조형(shaping)되었는가를 검토하겠다. 역사학자들은 사료를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 지식을 창조해낸다.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해내거나, 선행의 연구가 만들어낸 역사상을 다른 각도에서 사료에 접근하여 기존의 역사상을 대신하는 새로운 역사상을 제시하는 작업들은 역사적 지식을 창조해내는 행위다. 그러나 박물관의 역사 전시는 역사적 지식의 창조와는 다르다. 학예사들은 역사학자들이 작업해낸 연구를 염두에 두면서 특정한 기획 의도를 세우고 그 의도에 따라 실물이나 모조품 혹은 사진을 선후 좌후에 배치하여 관람자들에게 특정한 주제나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관람자들이 역사적 지식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을 환기 혹은 확인하도록 한다. 역사적 지식의 창조는 역사학자들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여 학계의 연



〈그림 1〉 보는 이에 따라서는 바다를 연상하게 되는 규슈국립박물관의 외관

구자나 대중이 자신의 견해에 공감하기를 바라나, 역사적 지식의 조형은 전문가로서의 학예사들이 자신의 관점과 관람자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마주치고 만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다르다. 학예사들의 관점은 전공하는 분야의 유물을 전시하는 경우, 역사학 전문가로서 자신의 고유한 주장을 담고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역사학을 비롯한 학계의 선행 연구 성과를 수렴하여 그것을 독자적인 컨셉이나 개념의 전시 기획이라는 지적 회로를 통하여 표현한다. 따라서 학예사 개인의 지적 안목과 학계의 통설이나 인식이 조합된 것이 전시고, 그것은 역사적 지형의 조형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여기서 규슈국립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분석의 논리적 틀은 지방사(local history)와 국가사(national history), 그리고 지역사(regional history)의 배치와 조합이다. 규슈라는 지방의 역사가 일본이라는 국가의 성립 및 전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국가로서의 일본이 대외적으로 교류하면서 하나의 지역권을 이루게 된다. 지방사, 국가사, 지역사는 동일한 사실이 동시에

3가지 다른 성격의 얼굴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사실이 어떤 프로세스 속에서 각각 지방사로 포착되고, 국가사의 일부로 포섭되고, 지역사로 확장되는가, 이 점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일본 학계에서 연구된 국가사, 지방사, 지역사의 흐름과 논리를 극히 개략적으로 훑어보면서 그것과 박물관의 역사를 결부시켜 보겠다. 이로써 박물관의 역사가 일본 역사학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규슈국립박물관의 전시를 분석하는 디딤돌로 삼겠다.

둘째로는 박물관의 전시와 학계의 연구 동향 그리고 역사 교과서 간의 상호 관계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물관의 전시는 학계의 연구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일치할 수도 없다. 박물관의 전시는 실물의 전시를 기본으로 하여 컨셉과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때문에, 학계에서의 연구 성과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학계의 연구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줄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연구 성과에 상응하는 전시를 하기 어렵다. 학계의 연구와 박물관의 전시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연구와 전시 간의 접합과 괴리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박물관의 전시는 기본적으로 사회 교육적 성격을 지니는데, 규슈국립박물관은 역사계 박물관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물관에 전시되는 역사는 사회 교육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역사 교육과 긴밀한 연관은 피할 수 없다. 관람객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기초로 박물관의 전시를 감상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박물관의 전시를 전부는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대조시켜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미리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한 개인이 다 파악할 수 없는 노릇이고, 박물관의 전시물도 고고학 발굴품에서 시작하여 회화, 도자기, 불상, 지도 등 다양하기 이를데 없는데, 개개 전시품의 성격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학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박물관의 전시 전반에 대한 논고

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의 하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¹ 학계의 연구 성과도 박물관의 전시품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더욱이 전시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주 교체된다.-그 거리를 짚어보겠다는 시도는 무모하지만, 개관 후 1천만 명을 기록한 관람객들에게 이미지화되는 동아시아 역사상은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대상이다.

궁극적으로는 탈아(脫亞)와 흥아(興亞)의 관점을 염두에 둔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동아시아 논의가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논의 수준도 깊다. 그러나 일본의 동아시아론은 탈아와 흥아의 모순적 복합체이기도 하다. 문명적으로 아시아를 벗어나 서양과 동등하다는 탈아론과 서양에 대하여 저항하며 연대하고자 하는 흥아론은 일본 중심주의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예컨대 도쿠가와 막부 시대 대외 무역은 탈아와, 고대의 대외 무역은 흥아와 근접시킬 수도 있는데, 전시의 실태는 어떤가. ‘동북아 공동의 집’같이 근래의 성찰적 논의를 상기한다면, 규슈국립박물관의 동아시아 전시는 탈아와 흥아를 넘어선 지점에 서 있는가. 이러한 의문으로 접근한다.

II. 국가사, 지방사, 지역사와 박물관

메이지유신에 의해 설립된 근대 일본 국가는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한 수단으로서 ‘국사’라는 것을 만들었다. 1869년 유신 정부는 ‘국사편찬국(國史編纂

1 선행 연구에 관하여 지면의 여유가 없어서 한두 가지만 언급한다. 규슈국립박물관의 전시에 관한 논고는 없고, 박물관 전시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내셔널리즘, 국가 정체성, 타자의 표상, 정치성, 식민주의 등의 관점이 분석의 포인트였는데, 박물관 전시를 학계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분석한 논고는 아직 보지 못했다.

局)을 설치했고, 1875년 ‘수사국(修史局)’으로 개편하여 국사 편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천황 정권이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보유함을 역사로써 명시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민간 사학에서는 『일본개화소사(日本開化小史)』(1877~1882)와 『이천오백년사(二千五百年史)』(1896)를, 아카데미즘의 실증 사학자들은 『고본 국사안(稿本 國史案)』(1890)을 간행했고, 1895년부터 일본사 자료 편찬 작업을 주도하여 『대일본사료(大日本史料)』를 간행하여 사학계의 주류를 차지하였다. 『일본개화소사』 등 국사의 출간은 국립박물관의 설치 시기와 유사하게 겹친다.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꼽히는 도쿄(東京)국립박물관은 1872년에 일본 최초의 박물관으로 탄생하여 이후 1886년에 궁내성(宮内省) 부속박물관, 1889년에 제국(帝國)박물관, 1900년에는 도쿄제실(東京帝室)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비슷한 시기인 1889년 도쿄제국(東京帝國)대학에 국사과가 개설되어, ‘제도로서의 역사학’이 성립되었다. 이후 국가가 역사 편찬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도 아래 제국대학의 사학과, 학회, 학술지 등이 거의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분과 학문으로서 역사학이 자리 잡게 되었고, 외국 사학은 사실상 국사학과를 서비스하는 정도로 국사학 중심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² 말하자면 제도로서의 역사학이 자리 잡을 무렵, ‘제도로서의 박물관’도 동시에 탄생했던 것이다.

‘국사’의 성립의 근거에 자리 잡았던 것은 천황제와 봉건제였다. 천황제는 일본 민족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근원으로 인식되고, 봉건제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특수성 즉 유럽과의 근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으로 새롭게 발견된 것이었고, 1900년부터 역사학계에서 ‘탈아(脫亞)가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

2 백영서(2005), 「‘동양사학’의 탄생과 쇠퇴-동아시아에서의 학술제도의 전파와 변형」, 『한국사학사학보』 11, 170~171쪽.

잡았다.³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 제국이 되자 구미형 진보의 가능성, 도시사 문화사, 민중과 민속의 발견 등 역사 연구의 외연이 확장되지만 천황제와 봉건제가 1945년 패전 이전까지 일본 국사의 근거를 이루는 시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유럽사와 유사한 일본사에 착목하는 반면 일본 문명의 모국으로서 중국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진출을 위한 역사적 지식은 결국 조선·중국의 경시, 자국 우월의 이해로 연장되었다.⁴ 패전 이후 일본학계는 서양 근대 시민 사회의 가치관을 목표로 하는 근대주의, 민중을 주체로 보고자 하는 민중사 외에도 일본 문화론, 사회사, 여성사 등으로 시각의 전환이 전개되었다.⁵ 그런데 국가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 ‘국민 국가’는 ‘근대’가 만들어낸 상상되고 구성된 것이라는 방법으로서의 ‘국민 국가’라는 논의가 촉발되면서, ‘국민 국가’는 상대화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와 상반되게 한편으로 자유주의 사관은 또 하나의 ‘국민 국가론’으로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제도로서의 역사학’이 전개한 역사학은 자학 사관이자 암흑 사관이라 비판하고 건전한 내셔널리즘이 필요하다는 자유주의 사관의 논리는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자연재해로 의기소침해진 일본인에게 국가로의 귀속 의식 희구와 공명하여 호소력을 지녔다.⁶

제국박물관 이외에도 1889년 제국교토(帝國京都)박물관, 제국나라(帝國奈良)박물관을 설치하는 관계가 정해지고, 1895년에 제국나라박물관이, 1897년

3 미야지마 히로시(2000), 「일본 ‘국사’의 성립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한일공동연구총서』, 고려대학아시아문제연구소, 307~328쪽.
 4 永原慶二(2003), 『20世紀日本の歴史學』, 吉川弘文館, 43~138쪽.
 5 도베 히데아키(2009), 「‘민중사상사’연구의 출발-야스마루 요시오의 방법적 혁신」, 『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永原慶二(2003), 앞의 책.
 6 阿部安成(2002), 「‘國民國家’の歴史學と歴史意識」, 『歴史學における方法的轉回』, 青木書店.

제국교토박물관이 개관하였다. 이후 국립박물관의 설립은 없다가, 1977년 오사카[大阪]에 국립민족학박물관[國立民族學博物館]이, 1983년 치바현[千葉縣] 사쿠라시[佐倉市]에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개관하였다.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일본 민족학회의 요망에 더하여 1970년 열렸던 만국 박람회 이후 시설 활용의 일환으로 국립학교설치법에 근거하여 탄생한 것이다. 역사민속박물관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전시하는 국립 기관이기는 하나, 국립민족학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대학 공동 이용 기관’이고 문부과학성 소속으로 일종의 교육 연구 기관이다. 이 점은 국립박물관이 제국 박물관의 후신으로서 문화청(文化廳) 소속인 것과 다르다. ‘제도로서의 역사학’이 시대의 변화를 쫓아서 다양하게 연구의 영역과 시야를 넓혀갔지만, 국가는 ‘제도로서의 국립박물관’에 ‘보물’과 ‘예술품’의 소장·관리·전시라는 역할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립박물관을 대신하여 주로 관의 주도에 의한 박물관이나 기념관의 설립과 더불어 1920년대 이후에는 향토 박물관이 여러 지방 도시에 설립되었다. 향토 박물관의 대부분은 향토의 위인이나 고대 유물과 국보 등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을 통하여 애향심을 육성하고 그것으로 애국심을 유도하는 사회 교육 기관으로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점은 패전 전 국사와 흐름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 이후 고도 경제 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고 역사 민속 자료를 보관하는 지방⁷ 박물관의 설립이 유행처럼 번져, 1993년까지 전국에 역사민속자료관이 452개에 이르렀다. 한편 지방 정부 외에도 민간의 손에 의한 지방 박물관의 건립도 동시에 전개되었다.⁸ 1960년대 후반 이후

7 일본에서는 대부분 지역이라고 표기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권역으로서의 지역이라는 의미와 중첩 및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도도 하나의 지방으로 포함하여 지방으로 표기한다.

8 金山喜昭(2001), 『日本の博物館史』, 慶友社, 123~220쪽; 이것들은 지방 정부가 개발

연평균 100개가 넘는 박물관들이 새롭게 개관하여 ‘박물관 붐’ 시대를 맞이했는데, 1996년 현재 박물관으로 인정되는 시설이 4,100개를 넘었다. ‘박물관 붐’ 현상 속에서 지방 박물관의 설립이 특히 두드러진 사회적 이유는 고도 경제 성장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 감소, 지방의 위기의식 그리고 국가 주도에 의한 박물관 설립과 그 결과로 인한 박물관의 중앙 지향적 획일화 경향에 대한 대응으로 꼽기도 한다.⁹ 지방 박물관이 급증하는 속에 지방 박물관의 존재 의미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수반하였다. 한 박물관 학자는 중앙 지향형이나 관광 지향형의 박물관을 넘어서서 지역 박물관은 일정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여러 과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삼고, 지역 내에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라는 이상형을 제시했는데¹⁰, 이는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온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는 상당히 다르다.

1950년대 이래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등장한 ‘지방사’ 개념은 이러한 박물관 설립 붐과 무관하지 않다. 패전 전에 등장했던 향토주의적인 향토(사)나 지방(사)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제시된 지방사라는 관점이 등장하는 배경은 고도 경제 성장의 후유증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박물관에 비하여 역사학의 문제의식은 훨씬 정치하고 급진적이었다. 향토 사학자라 불리는 이들에 의한 향토사 연구가 보수적이고 애향 의식, 나아가 지방주의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

을 전제로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반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회유책 정도의 것으로 ‘はくもの’라 불릴 정도였다. 金山喜昭(2001), 앞의 책, 206쪽.

9 朴燦一·宮崎清(1997), 「Historical Background of Regional Museum in Japan(일본에 있어서 금일의 지역 박물관 지향의 역사적 배경)」, *Design Studies* 22, 585~590쪽.

10 伊藤壽郎(1990), 「地域博物館の思考」, 『歴史評論』 485; 일본의 지역 박물관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하여는 후쿠다 타마미(1998), 「지역과 박물관-지리학에서의 지역박물관론의 전개」, 『고문화』 52; 김현정(2007), 「향토의식의 형성과 지역 전문문화의 발전」, 『한국민속학』 45.

만 1960년대 이후 역사학계의 ‘지방사’는 60년대 민중사의 흐름 위에 서서 변혁지향성이 강하였다. ‘지방사’는 지방에 뿌리내리고 지방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민중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주체성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혀냄과 동시에, 지방 연구에 임하는 인간이 지방과 어떻게 주체적으로 관계 맺을 것인지, 지방에 뿌리내린 향토 의식의 존재 방식을 중시하면서도 지방이 야말로 근대사의 집중적인 모순 ‘안으로 차별과 밖으로의 침략’이 관철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안쪽에서 역사의식의 방법을 구성해가는 것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천황제 내셔널리즘으로 대표되는 국가사에 규정된 지역의 조건하에 지방의 변혁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중의 에너지나 경험을 찾아낸다는 것이다.¹¹

1970년대 이후의 ‘지역사’라는 관점은 국가사를 상대화하면서 수반되어 나타난 여러 논리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달리 말해 국가를 넘어서서 작동하는 공간을 찾아내는 또 다른 지역사 즉 아시아로서 보는 시각이다. 지방사라는 관점이 제기된 사회적 배경이 고도 경제 성장의 국내적 후유증에 기인한다면 지역사의 등장에는 고도성장의 국제적 파급 효과-일본 자본의 NICs, ASEAN 진출에 따른 자본과 인력 상품의 이동이 배경에 있었다. 지역사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리는 신호는 1992~1994년에 출간된 『아시아 속의 일본사

11 金原左門(1982), 「地域史の理論と實證をめぐって」, 『新編 日本史研究入門』, 東京大學出版會, 205~209쪽. 일본 학계에서 ‘지방사’는 ‘향토사’를 비판하며 등장했고, ‘지역사’라는 용어는 ‘지방사’라는 개념을 비판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방사’라는 용어는 대립 개념으로서 ‘중앙사’가 상정되어, ‘지방사’는 ‘중앙사’의 시각이나 문제를 지방에서 검증하거나 지방의 역사를 중앙의 역사가 파급되고 변용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앙사에 대한 지방사는 한계를 가진다고 하여, ‘중앙’, ‘지방’ 의식을 부정하고자 ‘지역사’라는 용어가 채택되었다. 塚本學(1976), 「地域史研究の課題」, 『岩波講座 日本歴史 25』 別卷2, 岩波書店, 334·348~350쪽. 그러나 이 글에서는 각주 6에서 언급했듯이 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지방사’로 지칭한다.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와 『아시아로부터의 고찰(アジアから考える)』 시리즈인데, 일정한 논리로 엮어진 대표적인 존재가 ‘동아시아 교역권’이다. ‘아시아 교역권’론에서는 국경을 넘어서는 규모에서 기능하는 경제적 역권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지역과 역권 상호 제 관계의 전체로서 하나의 이념과 원리하에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각국사·각 지역사의 전개도 그 아래에 자리 잡는다고 본다. 아시아 국제 시스템에서 역권으로서의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것이 네트워크이고,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동이다. 물자·사람·돈이 네트워크를 이루며 이동하여, 정보가 전달되고 언어가 접촉하고 문화가 이동하는 것이다. 국경에 의해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로 열린 세계에서는 중심부보다도 주변부(周縁部), 그리고 양자의 관계가 중시된다. 또한 지역도 고정화된 경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자가 유기적으로 상호 침투하는 형으로 횡으로 종으로 이어지는 홍콩·싱가포르·마카오같이 마디를 이룬다는 것이다.¹²

1980년대 이래로 유력해진 일본 학계의 아시아 교역권론 등 아시아적 시각에 대한 일본 박물관의 대응은 특별 전시의 기획으로 나타났다. 기획전에 아시아가 들어가는 경우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다만 아시아가 박물관의 이름에 올려진 경우는 1999년에 개관한 후쿠오카(福岡)아시아미술관(美術館)이 유일하다. 일시적인 기획전이 아니라 박물관 전체가 아시아를 전면적으로 대응한 것이 바로 규슈국립박물관이다. 전시의 기본 방향을 ‘일본 문화의 형성을 아시아사적 시점에서 본다’로 설정한 규슈국립박물관은 일본 학계의 시각의 전환과 확대에 조응하며 탄생한 것이다.

12 하세봉(2001), 『동아시아역사학의 생산과 유통』, 동아시아, 5장.

Ⅲ. 문화 교류 전시실 - ‘바다의 길, 아시아의 통로’



〈그림 2〉 문화 교류 전시실 입구



〈그림 3〉 전시실의 공간 배치

규슈국립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박물관 4층에 자리하고 있고 ‘바다의 길, 아시아의 통로’라는 대주제하에 5개 중주제(기본 전시실)와 11개의 부속 소주제(관련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2013년 현재). 규슈국립박물관은 통상 사용하는 상설 전시라는 용어를 피하고 ‘문화 교류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상설 전시라고 하면 당초의 전시 그대로 장기간 전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규슈국립박물관은 연간 300회 가량 전시를 교체하고 해마다 다르지만 한 해 평균 8회 가량 ‘토픽 전시’를 기획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전시실에 배치하고 있다. 그것은 부분적

이지만 자주 전시 내용을 교체하며 새로움을 더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전시품이나 전시 코너는 부분적으로 일정하게 교체된다. 전시되는 문화재나 전시실이 가변적인 만큼 전시품을 일괄하여 논하기는 다소 엄정성이 떨어지지만, 부분적인 교체이기 때문에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2013년 9월 현재 전시의 열개는 다음과 같다.

- 중주제 1: 조몬인, 바다로
 - 부속 소주제: 바다·숲·화산, 아시아의 민속 조형-가네코 가즈시게 기념실
- 중주제 2: 농경 사회부터 국가 형성까지
 - 부속 소주제: 왜인전의 세계, 화려한 고분의 제사, 장식 고분 가상 극장
- 중주제 3: 견당사(遣唐使)의 시대
 - 부속 소주제: 아시아인의 이상적인 모습, 종♪방울♪북, 견당사와 실크로드
- 중주제 4: 활발한 교역의 장, 아시아의 바다
 - 부속 소주제: 아시아의 공예, 규슈 도자기의 꽃-다나카 마루 컬렉션
- 중주제 5: 둥글어진 지구, 다가오는 서양
 - 부속 소주제: 다채로운 에도 문화

중주제는 자체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고 부속 소주제는 해당 시대의 특화된 주제다. 4층의 문화 교류 전시실에 올라 입구에서 20m 가량 걸어가면 처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미야지다케[宮地獄] 고분 출토품이었다. 이곳은 전시관의 한 중앙에 위치하여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개관 이후 7년 넘게 미야지다케 고분 출토품이 전시되고 있다가 2012년 말부터 ‘이 달의 명품’으로 새로 명명되어 매달 전시품이 교체되고 있는데, 2013년 8월 현재 금관과 금신발 그리고 금동관과 금동관모자가 전시되고 있다.¹³ 미야지다케 고분 출토품은 박물관 측이 ‘일본 문화의 형성을 아시아사적 시점에서 본다.’를 가장 상징적인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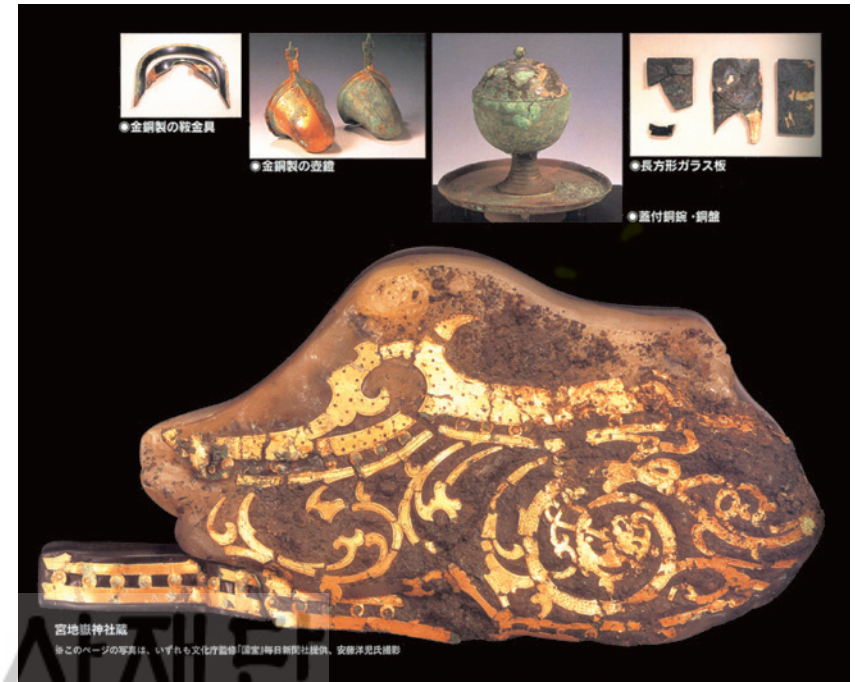
13 이것은 대구 출토라고 전해지고 삼국 시대인 5~6세기의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2013년 8월 현재 미야지다케 고분 출토품은 인근 코너로 옮겨 전시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시선의 집중도가 떨어져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 달의 명품’ 코너로 바꾸었다고 한다.

다. 미야지타케 고분은 규슈 최대의 횡혈식 석실(굴식돌방 무덤)인데 여기에서 한반도의 영향이 깊은 부장품이 나왔고, 부장품에는 식물을 본뜬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리스에서 신전 최상부의 기둥에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 즉 헬레니즘 문화와 규슈 북부의 고분 부장품이 교류를 통해 서로 이어졌음을 의미하는데, 한반도라는 동아시아, 나아가 헬레니즘 문화까지 연결되는 광역의 문화 교류가 규슈의 미야지타케 고분 출토품에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이다. 미야지타케 고분 출토품에는 지방사(local history)와 국가사(national history), 그리고 지역사(regional history)가 동시에 응축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야지타케 고분 출토품은 규슈국립박물관의 성격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유물로 꼽을 수 있겠다.

‘문화 교류’가 규슈국립박물관의 기본 방향인 만큼 대부분의 전시품은 이 세 가지 차원이 혼합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세 가지 차원의 다소나 경중으로 전시품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지방사로 간주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규슈에서 출토되거나 규슈인이 제작했거나 혹은 규슈를 통하여 반입되는 등 규슈와 관련 있는 유래를 가지고 있는가로 잡을 수 있다.

개관 전반기의 전시는 규슈국립박물관이 제작하여 관람객용 전시 안내서로 판매한 『Asiage: ‘海の道, アジアの路’ビジュアルガイド』¹⁴(2010, 이하 『Asiage』로 약칭한다.)와 『いにしへの旅: 九州国立博物館収蔵品精選圖録』(2009, 이하 『九州国立博物館収蔵品精選圖録』로 약칭한다.)에 실린 소장 및 전시품 소개를 참고할 수 있다. 『Asiage』에서 후쿠오카를 비롯한 규슈에서 출토되었다는 등 지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사진을 수록한 유물을 근거로 하여 전반기

14 현재 발행되고 있는 『Asiage: アジアージュ』는 규슈국립박물관 제간 정보지로 발행되고, 7쪽 정도 분량의 행사 홍보지다. 『Asiage: ‘海の道, アジアの路’ビジュアルガイド』는 이와 달리 2010년에 제작된 118쪽 분량의 판매용 가이드북이다. 전문적인 전시 해설보다는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소개와 사진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림 4〉 미야지타케 고분 출토품



〈그림 5〉 미야지타케 고분 출토품이 전시되었던 정중앙 공간



〈그림 7〉 귀와

의 지방사 관련 전시품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중주제 1: 조몬인, 바다로’에는 동의 화석이, ‘중주제 2: 농경 사회부터 국가 형성까지’에는 목제 삼과 팽이, 단도마연(丹塗磨研) 토기, 치부산 고분의 석인(石人), 토기(土器), 십금구(辻金具), 심엽형형행엽(心葉型形杏葉), 삼각연신수경(三角緣神獸鏡) 등이 있고 후쿠오카현의 오우즈카(王塚) 고분은 디지털 기술로 영상으로 재현하는 코너를 설정

하였다. 고대의 대표적인 전시품에서 지방사적 유물이 상당히 다수 존재했지만, 이후 시대로 가면 지방사적 유물은 현저히 감소하여 ‘중주제 3: 견당사(遣唐使)의 시대’에는 귀와(鬼瓦), 경통(經筒), 동인(銅印) 정도에 그쳤다. ‘중주제 4: 활발한 교역의 장, 아시아의 바다’에서는 차부(茶釜) 하나에 그치고 있다. ‘중주제 5: 둥글어진 지구, 다가오는 서양’에서는 다시 전시품이 대폭 증가하여 성모마리아상, 러시아 선장 나가사키(長崎) 출항도(出航圖), VOC브랜드가 그려진 대접, 복원 모형인 고후쿠사(興福寺) 대웅보전(大雄寶殿), 쓰시마종가(對馬宗家)의 위조목인(偽造木印), 주인선(朱印船) 무역의 회권(繪卷), 경장정은(慶長丁銀, 에도 시대 은화의 하나), 화조시회나전성감(花鳥蒔繪螺鈿聖龕, 나전으로 꽃과 새 무늬를 장식한 성가족 감실장) 등 다수가 전시되었다. 물론 『Asiage』에 실린 사진이나 설명이 전시의 전반적인 실태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편집과 관련하여 발문에 “각 주제와의 관계와 볼 만한 것에 대하여 짚막하게 해설하였다. 그것은 전시의 취지가 이해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 특정의 역사관을 서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언급으로 미루어, 박물관 측이 보여주고 강조하고 싶은 전시의



〈그림 6〉 구리거울



〈그림 7〉 나전으로 꽃과 새 무늬를 장식한 성가족 감실장

주요한 부분은 다루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당초 상대적으로 규슈 출토품이나 제작품의 전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관련 문화재를 이미 후쿠오카시립박물관 등 지역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는 현실 이외에도 왜 국립박물관이 규슈에 설립되어야 하는가 하는 비판적 경고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국립박물관 유치 운동의 초기에 교토의 철학자 우메하라 다카시(梅原猛)는 박물관 추진에 찬동하지만 “규슈에 설치하는 필연성이 약하다 …… 왜 규슈인가 하는 의미 부여가 약하다 …… 이 박물관이 일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해낼 일이다.”¹⁵라고 하여 일본이라는 국가적 시각에서 박물관 창립의 필요성을 고민하길 요구하였다. 박물관의 설립이 가시화된 무렵 중간 보고가 진행된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은 ‘왜 이와테(岩手)나 홋카이도(北海道)가 아닌 규슈인가?’ 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유치 운동이 ‘규슈에 전시되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가 아

15 「梅原猛氏に聞く: ‘なぜ九か’を明確に」, 『Museum Kyushu』 21호(1986. 10), 55쪽.

나라 ‘먼저 규슈에’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전국적인 시야의 박물관’이 되어야 함이 재삼 강조되면서, 규슈와 아시아가 아니라 일본과 아시아의 문명 교류에 시점을 두지 않으면 굳이 ‘국립’이 되어야 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국가적 발상에서 박물관이 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였다.¹⁶ 이러한 목소리를 염두에 둔다면 지나치게 규슈라는 지역성을 강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개관 기념 특별전이 ‘아름다움의 나라 일본(美の國 日本)’이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이러한 전시의 지방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접근하는 한 가지 길은 『규슈국립박물관수장품정선도록[九州國立博物館收藏品精選圖錄]』에 수록된 관련 유물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규슈국립박물관수장품정선도록』은 개관 당초 규슈국립박물관이 수집 전시한 대표적인 문화재로서 일본 작품 41점, 외국 작품 14점을 선별하여 수록 해설하고 있다. 일본 작품 41점 가운데 규슈와 관련성이 있는 작품은 14점으로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삼각연신수경(三角縁神獸鏡)은 고분 시대 초기인 3~4세기에 긴키[近畿: 나라·교토·오사카]의 고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종류인데, 아마토[大和] 정권이 중국에서 입수한 귀중한 거울을 지방 지배의 승인으로서 하사한 것이라고 한다. 1885년 발굴되어 1893년 문화재로 등록된 이것은 청·일전쟁 직전 국운 융성을 상징하는 상서로운 영경(靈鏡)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우락부락한 인상의 귀와는 박물관의 설립지 부근에 있는 다자이후[大宰府] 유적에서 발굴된 기와로 다자이후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궁전이나 관청의 지붕을 판자로 이었던 전통적 양식을 위엄을 드러내는 중국 스타일의 기와지붕으로 바꾸어,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위한 위세와 권력을 과시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우락부락한 인

16 「新國立博物館九州設置正式に特定」, 『Museum Kyushu』 54호(1996. 8), 7~22쪽.



〈그림 9〉 러시아선 나가사키 출항도

상의 귀와는 한반도의 신라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신라의 것을 모델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써 다자이후가 대외 교섭의 유일한 창구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시에 외형은 신라의 것과 유사하나 조형에서는 독자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나라 시대에 규슈 지역의 유력자의 자제들이 관료로서 필요한 학식과 실무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다자이후가 중앙 정부에 중국 역사서의 지급을 요청했고, 그것이 필사되어 남겨진 것이 진서(晋書)다. 당대(唐代)에 완성된 진서가 얼마 지나지 않은 동시대에 일본에 전해졌다는 한적(漢籍) 수용의 실태를 보여준다. 당시 규슈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 최대의 관청 다자이후가 있어서 수도 다음으로 큰 대규모 거대 도시였는데, 진서는 수도와 지방 최대 도시 간의 지적 유통망을 보여준다.

「러시아선 나가사키 출항도(出航圖)」는 19세기 초 배를 타고 나가사키에 왔



〈그림 10〉 칼 보관함

던 러시아 사절 일행이 출항하는 선박과 후쿠오카번의 34척의 군선(軍船)이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쇄국의 일본에서 4가지 창구의 하나로써 기능하고 있는 나가사키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당시 러시아인 일행은 일본어를 배우기도 하고 배를 방문한 일본인에게 커피를 대접하거나 어민들에게 군화를 주며 교류하였다. 네덜란드가 미국 선박으로 나가사키에서 반출했다는 산수화조 나전 덮개의 칼 보관함은 검은 바탕 칠에 정교하게 자개로 장식된 공예품이다. 이것은 교토에서 제작되어 1801년 무렵 나가사키의 칠기상으로부터 네덜란드가 일본 공예품 구매의 일환으로 입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¹⁷ 이것은 역사 교과서적 상식으로서 구미에 대한 유일한 무역 창구로서 역할했던 근세 나가사키의 지방사적 위상을 실물로서 확인시켜 준다.

규슈국립박물관 전시과장(展示課長) 아카시 요시히코(赤司善彦)가 규슈의 역사적 특징으로서, ‘외래문화의 수용과 전개에서 선진성’을 첫째로 꼽았듯이¹⁸ 지방사의 전시에서는 이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규슈 지방사 전시

17 九州國立博物館(2009), 『いにしへの旅: 九州國立博物館收藏品精選圖錄』, 4~6·47~50·44~46·163~166쪽.

18 赤司善彦(2009), 「古代の九州-多様な文化, その先進性と邊境性の重なり」, 『古代九州の國寶』, 九州國立博物館, 8~12쪽; 이러한 관점은 일찍부터 정착되었고 『Museum Kyushu』에 자주 보이는데,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규슈는 역사의 시작부터 늘 해외 문화 섭취의 창구였다. 대륙 문화도, 남만(南蠻) 문화도, 기독교 문명도, 그리고 근대 과

에서 ‘외래문화의 수용과 전개에서 선진성’의 강조는 일본 역사학계의 지방사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과 거리가 있다. ‘외래문화의 수용과 전개에서 선진성’이란 일본 국가사 속에 규슈라는 지방사의 위치 설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60년대를 전후한 역사학계의 지방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근대사의 모순이 집중된 지방에서 지방 주민의 주체적인 역사 형성 과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 변혁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 운동 등 사회 운동적 의식이 투영되어 있었다. 후자는 지방사의 전시가 아니라 오히려 규슈국립박물관의 설립 과정에서 발현되었다.

규슈국립박물관은 1897년 세 번째 국립박물관이었던 제국교토박물관의 설립 이래 1세기 만에 건립되는 국립박물관일 정도로 이례적이었다. 중앙 정부가 극히 이례적으로 국립박물관의 신설을 인가한 중요한 이유는 시민 사회의 박물관 유치를 위한 열정이었다. 일찍이 1893년부터 시작된 규슈 주민들의 박물관 설립 염원은 1980년대에 다시 재연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청년회의소 소장이 지역 신문에 국립박물관 설치를 위한 의견 광고를 게재한 후, 다음 해에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규슈 아시아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는 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상공회, 각종 문화 단체, 학부모회 등 다양한 단체가 참가했고, 창립 이후 4달 만에 10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였다. 1인 100엔의 모금 운동을 펼쳐 모임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으로서 스티카, 심벌마크, 거리 광고판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한편, 도쿄의 국회 정부 자민당 본부 등에 청원단을 조직하여 매년 파견했고, 회원은 물론 학생 등의 국내외 박물관 시찰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1981년 창간된 『Museum Kyushu』는 매년 4

학 문명도 먼저 규슈에 전래하여 여기서 일본 전국으로 퍼져 갔다.” 龜井光(1981), 「世界に通じる博物館を」, 『Museum Kyushu』, 1~2쪽.



〈그림 11〉 유리상자 속에 안치된 화염형 토기

호를 발행하여 2006년 6월의 81호까지 2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여러 사람이 편집위원(쟁)을 이어받으며 집필자는 거의 900명에 이르렀고, 매호 특집을 기획해 좌담회, 일본 내외 박물관의 사례, 박물관의 구상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내용을 실었다. 그 과정 속에 ‘일본 문화의 형성을 아시아사적 시점에서 본다’라는 규슈국립박물관의 방향이 설정되었다. 박물관의 지향점이 제한된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의 집단적 지성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히 박물관 유치 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 운동이었다.”는 자평은 타당하다.

19 『Museum Kyushu』 80호(2006. 1)에 이와 관련된 기사 다수가 실려 있다. 규슈국립박물관이 역사학계만이 아니라 전 시민이 참여하고 개입하며 함께 만들어간 특징은 최근

개관 이후 세월이 가면서 지방사적 유물의 수집과 전시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1월 현재, 규슈국립박물관 사이트에는 2013년 10~11월 예정 전시품 총목록이 탑재되어 있다. 이 목록을 보면 1주제의 전시물 96점 가운데 규슈 지방에서 출토된 것이 81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고, 차이는 있으나 기타 주제에서도 규슈 지방 출토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국가사 전시품은 지방사 전시품에 비하여 전시 품목의 숫자는 적지만, 그것의 상당수가 개별 전시 공간을 가짐으로써 품목의 수에 비하여 그것이 갖는 위상은 훨씬 무겁게 인지됨을 간취할 수 있다. 니가타(新潟)의 산간 지대에서 발굴된 화염형 토기(火焰型土器)는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으로 주목받는 유물로 조몬(縄文)시대 토기의 대표적인 존재로 꼽힌다. 또한 동북 지방에서 출토된 차광기 토우(遮光器土偶)도 과대하게 표현된 눈과 널찍한 어깨, 귀여운 유방 등의 특이한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조몬 시대 후기의 유물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에서 사용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조몬 시대를 보여주는 주거지, 식문화, 장송 등이 전시되고 있지만, 화염형 토기와 차광기 토우는 벽면의 전시대가 아니라 ‘중주제 1: 조몬인, 바다로’의 가운데 공간에 별도의 유리상자에 넣어 전시되고 있다. 관람객들의 시선은 벽면의 전시에 앞서 유리상자의 전시에 눈길이 먼저 가게 마련이다. 중세나 근세의 일본을 말할 때 중심 개념은 무사다. 고려 후예의 장인이 만든 태도(太刀)로써 전형적인 일본도의 성립을, 아미타여래상은 ‘엄숙한’ 분위기의 일본 무사 문화의 창조를 표상한다.²⁰ 이러한 유물도 별도의 장식대에 설치되어 있다.

조몬 토기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니가타에서 출토된 화염형 토기(火焰型土

개관한 한국의 국립해양박물관이나 대한민국의 역사박물관이 시민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된 채 설립된 과정과는 현저한 차이다.



〈그림 12〉 국보 태도

器), 야요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판부식호형 토기(板付式壺形土器), 교토의 칼 제조가 라이쿠니미츠[來國光]가 베풀었다는 국보 태도, 가마쿠라[鎌倉] 무사의 기품을 보여준다는 아미타여래상, 단정한 중국화풍의 산수도(山水圖), 당삼채(唐三彩)의 색조가 완연하지만 기형은 일본 특유의 나라삼채호(奈良三彩壺), 서양화법을 배워 일본에서 동판 제작한 지구전도(地球全圖) 등은 주변국과의 문화 교류 속에서 일본적 양식-모방에서 독자적인 미의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화재들이다. 헤이안 시대인 12세기의 당식경(唐式鏡)이 당식경(唐式鏡)에서 화식경(和式鏡)으로의 이행을 보이는 귀중한 작품으로서 설정되는 것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국가사적 전시에 깔려 있는 문법은 이문화와의 접촉 → 일본의 모방 → 일본의 독창이다. 한반도나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일본 특유의 양식이나 내용을 갖게 된 토기 문화, 서화 문화, 불교문화, 지리 지식 등을 보여주고 있다. 문명화된 문화재들이 외국으로 수출되어 나간 것은 외래 문화의 수용에서 변전하여 일본 문화의 발산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네덜란드가 미국 배로 가져간 산수화조(山水花鳥) 나전 칠기가 일례다. 아리타 도자기의 유럽 수출도 그러하다.

20 규슈국립박물관(2010), 『Asiase: ‘海の道,アジアの路’ ビジュアルガイド』, 57쪽; 九州國立博物館(2009), 『いにしへの旅:九州國立博物館收藏品精選圖錄』, 139~142쪽.

이러한 국가사적 전시는 역사 교과서적 내지는 통사적 이해와 상통한다. 예컨대 630~894년까지 264년 동안 존속했던 견당사를 통하여 고도의 중국 문명을 적극적으로 섭취 수용하여 그 이식에 성공하였으며, 당의 고도한 문명을 그저 수입하는 데 힘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마침내 국풍(國風) 문화를 낳기에 이르자 당나라에 파견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견당사는 마침내 폐지되었다고 이해하는 식이다. 교과서에서는 “헤이안 시대 중반의 귀족들은 당풍(唐風)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본의 풍토와 생활, 일본인의 감정에 걸맞는 문화를 낳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국풍(國風) 문화라고 한다.”²¹, “9세기 말 견당사가 중지되었을 무렵부터 귀족은 당풍의 문화를 소화하여 일본의 풍토와 생활에 걸맞는 국풍의 문화를 낳아 문화의 양상은 크게 변화하였다.”²²고 서술되고 있다.

패전 후 일본학계에서 일본의 국가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유일한 시도는 1975년에 출간된 『대계 일본국가사(大系日本國家史)』라고 생각된다. 이 대계의 저자들은 고대 율령제 국가, 중세 봉건제(大名領國制) 국가, 근세 막번(幕藩)제 국가, 근대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이행 그리고 권력과 계급 구조를 분석하여 국가 권력의 시대적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대계에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계급 투쟁의 주체는 인민이고 그 인민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발간사에서 보듯이, 아시아 및 일본의 변혁의 과제와 관련된 국가론의 문제를 ‘인민 투쟁사’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²³ 각 시대의 사회 구성체에 초점을 맞춘 『대계 일본국가사』적인 국가사와 일본 문화의 형성에

21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2010), 東京書籍, 43쪽.

22 『中學生の社會科 歴史』(2003), 日本文教出版, 43쪽.

23 原秀三郎 外(1975), 『刊行にあたって』, 『大系 日本國家史1~5』, 東京大學出版會.



〈그림 13〉 당삼채 여인상

초점을 두고 문화재로서 국가사를 그려내려는 박물관의 전시는 거리가 있다. 『대계 일본국가사』의 국가사가 ‘인민’과 ‘변혁’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규슈국립박물관 전시 속의 국가사는 일본 문화의 ‘형성’에 무게 중심이 두어져 있다. 국립 기관, 거기다 사회 교육을 지향하는 박물관에 학계의 그러한 역사관은 적용이 불가능했고, 더욱이 1960~1970년대의 변혁론은 1990년대에 이미 사회 현실과 유리된 역사관이었다.

국가사는 시민보다 국가를 강조하는 보수 우익적 역사관에서 중요시된다. 천황 및 국가에 대한 충성, 일본의 민족적 전통과 문화의 보호 유지, 외래 사상과 문화에 대한 경계와 비판, 사회주의 반대 등이 일본 우익의 사상적 특징으로 거론된다. 다수의 역사 교과서와 달리 보수 우익의 역사 교과서가 전근대사 서술에서 천황이라는 호칭, 일본이라는 국명의 등장에 유별난 관심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듯이,²⁴ 역사 교육상 보수주의적 시각에는 강렬한 자민족 우월주의와 국가·천황 중심주의가 깔려 있다.²⁵ 그런데 규슈국립박물관의 전시에서는 천황(제)에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우익적 역사관과도 거리가 멀다.

지역사적 전시물은 일본이 아닌 인접국 등 외국에서 반입되거나 왕래한 유물로 상정할 수 있다. 외국의 유물은 일본의 유물과 나란히 전시되어 직접 대

24 『新しい歴史教科書(改訂版)』(2010), 扶桑社, 36~37·40~41쪽.

25 박수철(2008), 「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의 중·근세상」, 『일본역사연구』 27, 125쪽.

비되거나 따로 개별 전시대가 마련되어 전시되었다. 후자의 경우도 일본의 유물이 대부분인 전체 박물관 전시장 속에서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므로 관람객들에게는 비교의 시각 속에 놓여지게 됨은 당연하다. 중주제 1전 시설에는 규슈 출토의 창축을 전시하고 있는데, 좌우에 일본의 다른 지방에서의 출토된 창축과 내몽골에서 출토된 창축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다. 중주제 2전시실에서는 유리벽은 후쿠오카 출품과 한(漢)나라 출토품을 대비하고, 전한(前漢)의 채화인마경(彩畵仁馬鏡)과 후쿠오카 출토의 채문경(彩文鏡)을 함께 전시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중주제 3전시실에서는 비교 전시가 더욱 풍부해져 한자를 새긴 중국경(中國鏡)과 중국경을 모델로 한 일본 국산경, 고대 중국의 인장과 이라크의 인장, ‘한왜노국왕(漢倭奴國王)’의 인장을 비교 전시하고, 나라삼채(奈良三彩)의 호(壺)와 중국제 당삼채(唐三彩)의 호도 비교 관찰될 수 있도록 놓였다. 비교가 가장 다양한 전시는 불상의 전시다. 중주제 3 견당사의 시대 부속 소주제인 ‘아시아인의 이상적인 모습’에는 헤이안 시대의 여래좌상, 고려 시대의 금동불, 북위의 미륵불 입상, 베트남의 사자상반신상, 당대 중국의 불상 부조가 나란히 줄 서 있고, 전시실에 들어가는 입구인 줄의 맨 앞에 후쿠오카 소재의 10세기 헤이안 시대 아미타여래입상을 위치시키고 있다. 불상이 가장 풍부하게 보유한 유물인 만큼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것을 비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 전시에서 비교는 관람자의 자유로운 상상과 해석에 맡길 뿐 박물관 측에서 특별한 설명을 부가하지는 않고 있다. 과도한 정보의 제공과 특정한 해석을 삼가려는 박물관의 전시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그림 14〉 남송대의 찻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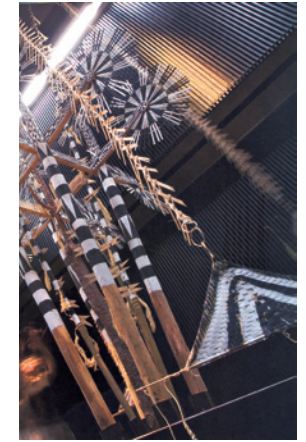


〈그림 15〉 몽골선 모형과 닻

비교라는 전시 방법은 중주제 1, 2부터 중주제 3 견당사(遣唐使)의 시대까지만 적용되고, 이후 중주제 4 ‘활발한 교역의 장, 아시아의 바다’, 중주제 5 ‘둥글어진 지구, 다가오는 서양’의 부속 주제에서는 보기 어렵고 개별 전시품이 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시관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로 높이 5.4m, 3.5톤 무게의 다보천불석당(多寶千佛石幢)은 11세기 요나라의 것으로 팔각형의 각면에 많은 불상과 범자의 다라니와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눈길을 끈다. 몽골선정 모형[蒙古船碇模型]도 당시 닻으로 사용된 돌[碇石]을 끼워 커다란 모형으로 복원하여 단독으로 넓은 전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남송대의 유적천목차완(油滴天目茶碗), 고려의 최충헌(崔忠獻) 묘지(墓誌), 중국의 해양신 마조상(媽祖像)이나 관우상(關羽像), VOC동화(銅貨) 등도 전후 혹은 좌우와 비교하는 위치에 놓여진 것은 아니다.

중주제 3의 부속 소주제 ‘종♪방울♪북’ 전시실 중앙에는 베트남 사람들의 기동 세우기 축제를 재현하고 주위에는 전국(戰國) 시대의 중국 종, 타이의 청

동 종, 후쿠오카 출토의 동탁 3개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의 동탁 2개,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산간부에서 사용한 동고(銅鼓) 등을 배치하였다. 불상이 아시아 불교권의 상사와 상이를 보여준다면, 북과 종은 ‘동고(銅鼓) 문화권’이 존재했고 그것을 아시아 각지의 동고(銅鼓) 문화와 일본 범종(梵鐘)문화 사이의 ‘공명’을 소리로서 표상하고자 한 전시다. 『Asiage』는 이와 관련한 서술에서 ‘아시아의 동고(銅鼓)와 일본 최고(最古) 범종과의 공명’이라고 소제목을 붙이고, “동고에 생생하



〈그림 16〉 ‘종♪방울♪북’ 코너의 베트남 기동 세우기 축제

게 남아 있는 환청. 그와 함께 이 뜨거운 연쇄음이 시대를 넘고 지역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고동이 되어 있음을 실감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Asiage』의 필자가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나 ‘연쇄음의 공명’이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하게 읽을 수 있다. 지역사적 갈래의 전시에서는, 특히 전시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일본의 앞선 기술을 가르쳐주었다”는 태도는 절대 금물.”²⁶이라는 충고가 잘 준수되어, 일본 문화의 우월 의식을 드러내는 전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리의 ‘공명’은 실물만으로는 그 전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는 듯하나 ‘연쇄음의 공명’이라는 개념은 한쪽의 문화가 어느 한쪽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고방식을 넘어서자고 하는 대안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대외 관계사 연구에서 견당사가 ‘대등’이었던지 아닌지를 집요하게 묻고 있는데, 원래 ‘대등’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전근대의 왕조 국가 간의 관계

26 「新國立博物館九州設置」正式に特定, 『Museum Kyushu』, 54호(1996. 8), 22쪽.

에 대응이라는 개념을 제기하는 배경은 개국 이후의 대외관계를 염두에 둔 발상이라고 한다면²⁷, 규슈국립박물관의 전시에서 착안한 ‘연쇄음의 공명’은 일부 학자들의 ‘대응’, ‘일방적 영향’이라는 관점을 뛰어넘은 발상이라 할 수 있다.

IV. 부재와 결락

문화 교류는 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규슈국립박물관의 사이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길은 문화 교류의 동맥이고 생명이다. 사람, 물건, 정보가 오가는 교통로이고, 중계 기지로서의 도시와 무역항을 키워내는 세계 문명의 신경이다.”²⁸ 전근대 일본의 대외 교류는 바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길은 바다였다. 그런데 바다의 속성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가 극심하고, 불안정하고 동적이다. 언제 태풍을 만나 난파될지 모르고 항로를 잘못 잡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육지의 길과 달리 바닷길을 나서는 심리에는 불안과 공포가 기대 및 동경과 표리를 이룬다. 바다나 항구에서 만나게 될 상대방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정보와 상호 인지가 이러한 심리를 더욱 강화하게 마련이다. 바다를 통한 문화의 교류는 바다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건너뛰고서는 전근대 교류의 본질을 온전히 체감하기 어렵다. 기선을 비롯한 동력선과 첨단 장비를 장착한 오늘날의 선박을 이용한 항해와 달리, 전근대에는 바다라는 거대한 불가항력이기도 한 자연과 맞서며 항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표해록의 전시가 없는 점이 눈에 띈다. 조

선 시대의 표해록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조우하는 타자에 대한 불안을 잘 보여준다. 뜻밖에도 일본에 남겨진 표류기는 적은 듯하나, 류큐(琉球)·여송표해록(呂宋漂海錄) 혹은 언세표류기(彦歲漂流記), 남해기문(南海奇聞) 등 수종이 남아 있다. 한 글에 의하면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표류기의 전파 보급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⁹

전해오는 해난 관련 기사로 매년 수백 척의 배가 조난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대형 선박도 매월같이 조난한 기록도 있다. 표해록 전시의 부재는 기대와 동경이 불안과 공포를 능가하게 만들어 출항에 나서게 만드는 유인들을 상상하게 만들지 못한다. 문화 교류와 관련된 종교의 전시도 왜 종교에 해민(海民)들이 절실하게 매달렸는지는 예측 불가능한 바다를 실감하게 하는 전시가 전제될 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 표해록이 문서 자료여서 구체적인 실물이나 이미지를 우선하는 전시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항해를 앞두고 무사를 기원하고 혹은 항해를 무사히 마쳤을 때 그 기쁨에 감사하여 배를 에마(繪馬)에 그려 신사(社寺)에 바쳤는데, 그 풍습이 퍼져 선회마(船繪馬)의 봉납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한다.³⁰ 그림으로 그려진 선회마, 해난회마(海難繪馬)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하므로, 충분한 전시 거리가 될 수 있으나, 전시의 대상에 올려지지 않는 점은 아쉽다.

항해나 해난에 대한 전시의 부재는 일본 학계에서 무성하게 논의되고 축적되어 온 해역사적 연구 성과가 별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의를 끈다. 해역사라는 관점의 제기와 해역 아시아에 관한 연구의 방대한 축적은 일본 학계의 개성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편집된 해역아

27 이성시(2001), 『만들어진 고대』, 삼인, 29~30쪽.

28 <http://www.kyuhaku.com>.

29 堀内雅文(1984), 「漂流記雜考」, 『Museum Kyushu』 14호(1984. 10), 18~19쪽.

30 楠本正(1984), 「繪馬にみる漂流」, 『Museum Kyushu』 14호(1984. 10), 22~23쪽.

시아사를 위한 입문서에서, 해역 아시아사는 ‘일본 대외 관계사’라는 틀과는 다르다며, “‘대외 관계사’는 결국 ‘일본사라고 하는 일국사’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보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해역 아시아사’ 연구에 있어서는 그 역사 관찰의 관점은 쌍방향적인 것이다. …… 일본사 이해를 위한 세계사, 아시아사를 배운다고 하는 방향만이 아니라 보다 좋은 세계사, 아시아사의 이해를 위하여 일본사를 거기에 위치 지운다고 하는 방향성 또한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해역사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³¹ 이러한 전망에 규슈국립박물관의 전시를 비추어 본다면, 규슈국립박물관의 전시는 전자, 즉 일본사의 이해를 위한 아시아 혹은 세계-이 책의 표현을 빌리면 “일본의 안쪽에 발판을 고정시킨 채 열도 바깥의 세계를 관찰하는 일방통행적 관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사적 갈래의 전시가 그러하다.

왜구의 전시가 보이지 않는 점도 동일한 선상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왜구의 활동 공간이었던 해역(海域)은 육지와 같이 인간이 영속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하나의 완충 지대라고 할 수 있다. 바다는 원래 그 자체가 열린 체계로서 타자와의 교섭·교류로 성립하는 존재이고, 광역의 지역을 구성하는 다문화, 다민족, 다권력의 상호 관계를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² 왜구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명은 대륙 연안을 습격하는 왜구의 단속을 일본에 요구하였다. 이 무렵 서국의 무사와 상인·어민 가운데 떼 지어 무역을 강요하고 해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어서, 왜구라고 불렸다.”라고 본문에 적고, 왜구의 그림(왜구도권)과 왜구의 피해 지역과 해상 교역로와 왜구의 진로를 표시한 지도도 제시하는 등 적지 않은 지면을

31 모모키 시로 지음·최연식 옮김(2012),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13~14쪽.
32 濱下武志(2000), 『沖繩入門-アジアをつなぐる海域構想』, ちくま新書, 70~73쪽.

할애하고 있다.³³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규슈국립박물관의 전시에 교과서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왜구에 관한 그림 자료는 상당수가 남겨져 있고, 이러한 자료를 규슈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외 특별전이나 토티 전시가 어렵지는 않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특별전과 30여 차례가 넘는 토티 전에서 왜구가 다루어진 적은 없다.

‘규슈는 하나다’라고 할 때,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규슈가 하나의 섬이지만, 일반적으로 규슈라고 하면 가고시마[鹿児島]와 후쿠오카, 구마모토, 나가사키, 사가[佐賀]가 범주에 들어가고 히가시규슈[東九州, 분고(豊後)·니코우(日向)]는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북으로 뻗은 규슈 산지는 규슈를 동서로 나누고 해류도 서쪽의 쓰시마[對馬] 해류와 동쪽의 쿠로시오[黒潮] 해류로 나누어진다. 고대 국가의 성립기에도 히가시규슈에는 각기 소국이 존재했고, 고분 문화도 지역적 특징이 있고 방언도 그러하다.³⁴ 히가시규슈의 히메시마[姫島]는 흑요석의 생산지로 흑요석과 조몬 토기 등의 교류가 있었으나 전시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흑요석으로 만든 창이 전시되어 있으나 그것은 훗카이도의 것이다.

2009년 규슈국립박물관은 특별전 ‘고대 규슈의 국보(國寶)’를 개최하였다. 이 특별전의 도록 총설에서 규슈의 역사적 특징으로서, ① 외래문화의 수용과 전개에서 선진성을 지녔다. ② 규슈의 동서남북 각 지역이 주체가 되어 대외 교류의 역사를 전개하였다. ③ 일본 열도의 서단(西端)에 위치하여 중앙에

33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2010), 東京書籍, 54~65쪽. 대부분의 교과서도 왜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지도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新中學校 歴史 日本の歴史と世界』(2005), 清水書院, 72~73쪽.
34 博物館等建設推進九州會議(1993), 「特集 東九州の特性」, 『Museum Kyushu』 47호.

대하여 변경의 땅이었다. 즉 외래문화 수용상의 선진성, 대외 교류의 다방향성, 중앙에 대한 변경성을 규슈의 역사적 특질이라고 꼽았다. 규슈국립박물관의 문화 교류 전시실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인지될 수 있는 것은 규슈가 일본사에서 갖는 외래문화 수용상의 선진성임은 앞서 언급한 바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대한 변경성으로 구체적 사실로서 거론하는 유사시 방위의 거점으로서 규슈란 몽골습래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특별전에서 초점을 둔 것은 대외 교류의 다방향성이었다. 규슈의 남쪽은 다채로운 조개[貝] 문화와 접촉하며 독자성이 강했고, 수도경작(水稻耕作) 문화는 규슈의 북부로 들어왔으며, 중국, 이어서 한반도와의 창구도 북부 지역이었다. 동부쪽으로는 수도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이 전해졌다.³⁵ 이러한 대외 교류의 지역별 다양성을 제기하는 전시는 규슈를 하나의 단일체 혹은 균질적으로 간주하려는 ‘규슈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전 이후 여기에 전시된 유물들은 각 전시실로 산개되어 규슈 대외 교류의 다방향성을 감지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향토사 연구는 규슈나 후쿠오카 지방에서 활발했지만 향토 사학자들의 규슈국립박물관에 대한 개입도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963년에 발족된 후쿠오카지방사간담회[福岡地方史懇談會]를 토대로, 1964년에 창간된 후쿠오카지방사간담회[福岡地方史懇談會]의 『후쿠오카지방사간담회[福岡地方史懇談會]』의 29호(1991. 5)~51호(2013. 9)³⁶를 살펴보면 거의 전부가 지역의 사료나, 후쿠오카나 규슈의 지역에 국한된 역사적 사실만을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사

35 赤司善彦(2009), 「古代の九州-多様な文化, その先進性と邊境性の重なり」, 『古代九州の國寶』, 규슈국립박물관, 8~12쪽.

36 29호 이전은 ‘會報’라는 뉴스레터였다.

적 관점의 글이라고 간주할 만한 글은 48호(2010)에 실린 연구노트 “朝鮮通信使と益軒, 春庵, 南冥の唱和”, “シーボルトと問答をした黒田齊清の木草學” 정도다. 지방사 연구자들이 문화 교류사보다는 지방 고유의 역사에 치중했다면, ‘문화의 교류’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규슈국립박물관에 참여할 여지는 적다. 이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地方史ふくおか』에 규슈국립박물관에 관한 기사가 한두 건에 불과한 사실이다. 『九州王國』은 500엔의 대중적 뉴스레터 성격의 월간지로 ‘규슈발[九州發] 인간, 물건, 문화, 그리고 경제’를 잡지의 사이드 표제로 삼고 있고, 2011년 현재 45호까지 발간되었다. 이 잡지는 ‘Number 1 규슈’를 연재하고 있는데, 가령 사이후쿠사[最福寺]의 다이벤자이텐[大弁財天]은 전국 1위 목조 좌상, 후쿠오카현은 새 꼬치구이 상점수는 전국 1위 등이다. 이렇듯 『九州王國』은 규슈 문화의 자부심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잡지인데, 이 잡지에도 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쓴 글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규슈국립박물관의 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재는 중세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사건과 시대로서는 제국주의 시대다. 임진왜란은 일본 전국 시대의 통일과 도쿠가와 막부를 여는 데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국가사에서 결락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임진왜란의 출진지가 규슈였다는 점에서 규슈 지방사와 무관할 수 없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동아시아의 황제를 꿈꾸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선·명·일본 3국의 동아시아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전근대 동아시아를 조망하는 데 빼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당연히 이 사건을 수록하여 “히데요시는 국내 통일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 인도, 루손(필리핀), 고산국(高山國, 타이완) 등에 편지를 보내 복속을 요구하였다. 1592년에는 명을 정복하고자 조선에 대군을 파견하였다. …… 7년에 걸친 전쟁에서, 조선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일본에 연행되었다. 일본의 무사와 농민도 무거운 부담으로 고생하고, 다이묘 간의 불화가 표면화되어, 도요토미씨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³⁷고 서술하고 있다. 규슈국립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그것이 ‘대외 관계’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관점에 서고자 했기 때문에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은 제외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문화 교류’와 무관할 수 없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전쟁 과정에서, 전쟁 후의 사후 처리에서 전쟁은 극심한 문화적 갈등과 동시에 문화적 교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정치의 극단적인 형식이라면, 동일하게 전쟁은 문화의 극단적인 접촉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조선 도공의 강제 이주로 인한 일본 도자기 산업의 발전은 단적인 예다. ‘일본 문화의 형성을 아시아사적 시점에서 본다’는 명제에 충실하자면 문화의 극단적인 접촉 행위인 전쟁을 외면할 수 없다.³⁸

제국주의 시대의 결락도 마찬가지로의 차원에서 발언될 수 있다. 바다는 문화 교류의 동맥이고 교통로이지만, 힘의 불균형이 극심해질 때, 바다는 침략의 고속 도로가 되고 중계 기지로서의 무역항은 침략을 위한 발진지와 침략을 당하는 발판이 된다.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와 또 다른 주역의 한 인물인 소에지마 타네오미(副島種臣)도 규슈 출신이었다. 식민지 타이완이나 조선 그리고 만주로 이주한 일본인은 규슈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관부 연락선이 말하듯 시모노세키(下關)는 척식을 위한 일본인과 식민지인 노동력을, 그리고 모지코(門司港)는 타이완과 일본 사이의

무역품을 탄도(呑吐)하는 중계 기지였다. 인간과 물자가 오가면 문화도 따라서 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³⁹

박물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개관 전 근현대사에 관한 전시를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격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거기서 제기된 구체적인 논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여 알 수는 없는데, 정치뿐 아니라 문화 교류에서도 일어난 갈등과 대립 그리고 폭력으로 얼룩진 근현대사 전시에서 제외된 것은 일본 학계의 문화 교류에 대한 시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05년 봄부터 2009년 봄까지 4년간 일본학술진흥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도쿄대학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 ‘17·18세기 아시아 항구 도시에서의 이문화 간 접촉에 대한 비교 연구’는 동인도 회사 문서를 중심으로 4년간 연구한 성과의 일부를 『17~18세기 아시아 해항 도시의 문화 교섭』으로 출간하였다. 이 비교 연구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의 동인도 회사가 상관(商館)을 설치한 아시아 지역 6개의 해항 도시에 대하여, 6개의 포인트-상관의 건물·상거래·언어·법-을 설정해 이문화 교류의 제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각 해항 도시와 그 배경에 있는 사회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⁴⁰ 2005년부터 일본 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고베(神戸)대학의 해항 도시연구센터가 동아시아의 해항 도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센터 소장 사사키 마모루 교수는 항구 도시가 갖는 역사성, 초국가적 영역성, 이문화 혼합의 경험을 들고, ‘공명 공간으로서 지역’을 발견하기 위한 틀로서 ‘크로스

37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2010), 東京書籍, 87쪽; 『新中學校 歴史 日本の歴史と世界』(2005), 清水書院, 99쪽에서는 유학자 도공 등 2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연행되어도 자기의 기법이 일본에 전해졌고, 일부 일본 무장은 조선군 편이 되었다는 사실도 적고 있다.

38 전쟁과 관련해서는 ‘蒙古襲來繪詞’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39 이러한 전시의 결락은 임진왜란은 나고야성(名護屋城)박물관에, 현대사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國立歴史民俗博物館)이 집중 전시하고 있어서 박물관 간의 역할 분담도 고려되었을 법하다.

40 하네다 마사시 지음·현재열 외 옮김(2012), 『17~18세기 아시아 해항도시의 문화교섭』, 선인, 서문.

보더형 도시론'을 제기하였다.⁴¹ 이와 유사하게 '문화 교섭학'이라는 용어가 2007년 일본의 COE프로그램에서 간사이[關西]대학의 '동아시아 문화 교섭학의 교육 연구'로 채택되어 선을 보인 바가 있다. '문화 교섭학'이란 "국가와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서, 동아시아라는 일정한 윤곽을 갖는 문화 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의 문화 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면서, 문화 교섭 통째를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고자하는 새로운 학문 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⁴²

17~18세기에 유럽이 아시아에 진출한 동인은 상업적 이익의 추구에 있었고, 영토적 목적은 없었다. 따라서 문화 교류라는 관점이 유용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근대는 다르다. 근대는 문화의 교류가 근세 이상으로 크게 진행되지만, 그것은 권력관계의 엄청난 비대칭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화의 상호관계에는 상호 작용뿐 아니라 일방적 전파나 문화적 전이가 있을 수 있다. 상호 소통에서도 어느 쪽이 더 소통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권력의 문제가 있다. 상이한 두 문화가 만나면 충돌, 격투를 거치며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혹은 우월하고 열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제국주의의 시대인 근대에 그것은 극단적으로 현현했음은 주지하는 바다. 일본 학계의 문화 교류사 연구에서 그것이 근대보다 전근대에 치중하는 것은 권력의 문제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이 규슈국립박물관의 전시에도 의식하지 못하는 채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41 사사키 마모루(2005), 「해항도시문화학의 창성-새로운 동아시아론의 구축을 위하여」, 『2005년 한국해양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바다와 문류, 그리고 해항도시의 문화』.

42 대학원에 동아시아 문화 교섭학 전공을 신설하여 석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http://www.kansai-u.ac.jp/>.

V. 맺음말

앞서 언급했듯이 박물관이 개관하기 이전에 『Museum Kyushu』는 수많은 학자 시민들의 기고로 발행되었고 80회에 이르는 특집이 기획과 박물관에 기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었다. 여기에는 실현 여부에 상관 없이 상상해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생각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지의 편집위원회는 “도쿄·교토·나라 박물관은 우선 건물을 만들어 ‘보물’을 넣고, 거기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물(物)이 있는 법’이었다. 그런데 규슈 국립박물관의 경우는 『Museum Kyushu』를 무대로 거듭된 ‘특집’과 논문으로, 종이에 쓰인 ‘문자의 박물관’이고, ‘이상의 박물관’이었다. 이런 ‘처음에 연구가 있는 법’에서 출발한 박물관 만들기는 일본 처음의 시도다.”⁴³라는 자평은 기존의 국립박물관과의 차별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국립박물관은 4개로, 도쿄박물관은 종합적 박물관으로서 일본을 중심으로 널리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걸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교토박물관은 헤이안 시대에서도 시대에 걸친 교토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를 대상하며, 나라박물관은 불교 미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속에 규슈국립박물관은 일본과 아시아 여러나라의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규슈라는 지역이 갖는 지리적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로컬리티를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박물관의 핵심 대주제를 고안해낸 결과다. 규슈국립박물관은 규슈라는 지역에 입각점을 두고 일본이라는 국가의 단위를 버리지 않으면서 동아시아라는 광역을 지향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전문가와 더불어 광범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이루어

43 『Museum Kyushu』 54호(1996, 8), 10쪽.

어졌다는 점에서 20세기의 박물관과는 다른 21세기 박물관의 특징을 체현하고 있다. 흥아와 탈아 사이를 넘어선 아시아의 '공명'이라는 시점은 21세기 아시아의 전망에서 흥미할 가치가 있다. 문제는 규슈국립박물관이 근래 일본의 보수화와 일반적으로 지방민이 보수적인 내셔널리즘에 매몰되는 퇴행 현상에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에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 모모키 시로 지음·최연식 옮김(2012),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이성시(2001), 『만들어진 고대』, 삼인.
 하세봉(2001), 『동아시아역사학의 생산과 유통』, 동아시아.
 하네다 마사시 지음·현재열 외 옮김(2012), 『17~18세기 아시아 해양도시의 문화교섭』, 선인.
 永原慶二(2003), 『20世紀日本の歴史學』, 吉川弘文館.
 濱下武志(2000), 『沖繩入門-アジアをつなぐる海域構想』, ちくま新書.
 金山喜昭(2001), 『日本の博物館史』, 慶友社.

논문

- 原秀三郎 外(1975), 「刊行にあたって」, 『大系 日本國家史1~5』, 東京大學出版會.
 阿部安成(2002), 「'國民國家'의 歷史學と 歷史意識」, 『歷史學における方法的轉回』, 青木書店.
 伊藤壽郎(1990), 「地域博物館の思考」, 『歷史評論』 485.
 金原左門(1982), 「地域史の理論と實證をめぐって」, 『新編 日本史研究入門』, 東京大學出版會.
 塚本學(1976), 「地域史研究の課題」, 『岩波講座 日本歴史 25』 別卷2, 岩波書店.
 赤司善彦(2009), 「古代の九州-多様な文化, その先進性と邊境性の重なり」, 『古代九州の國寶』, 규슈국립박물관.
 도베 히데아키(2009), 「'민중사상사' 연구의 출발-야스마루 요시오의 방법적 혁신」, 『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미야지마 히로시(2000), 「일본 '국사'의 성립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고려대학아세아문제연구소, 『한일공동연구총서』 3.
 박수철(2008), 「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의 중·근세상」, 『일본역사연구』 27.

朴燦一·宮崎清(1997), 「Historical Background of Regional Museum in Japan」, *Design Studies* 22.

백영서(2005), 「‘동양사학’의 탄생과 쇠퇴-동아시아에서의 학술제도의 전파와 변형」, 『한국사학사학보』 11.

사사키 마모루(2005), 「해항도시문화학의 창성-새로운 동아시아론의 구축을 위하여」, 『2005년 한국해양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바다와 문류, 그리고 해항도시의 문화』.

후쿠다 타마미(1998), 「지역과 박물관-지리학에서의 지역박물관론의 전개」, 『고문화』 52.

김현정(2007), 「향토의식의 형성과 지역 전통문화의 발전」, 『한국민속학』 45.

기타

博物館等建設推進九州會議(1981~2006), 『Museum Kyushu』 1-80.

荒野泰典 外(1992~1993),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東京大學出版會.

濱下武志 外(1993~1994), 『アジアから考える』, 東京大學出版會.

규슈국립박물관(2010), 『Asiage: 아시아ージュ』.

규슈국립박물관(2009), 『いにしへの旅: 九州國立博物館收藏品精選圖錄』.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2010), 東京書籍.

『中學生の社會科 歴史』(2003), 日本文教出版.

『新しい歴史教科書(改訂版)』(2010), 扶桑社.

『新中學校 歴史 日本の歴史と世界』(2005), 清水書院.

<http://www.kansai-u.ac.jp>.

<http://www.kyuhaku.com>.

찾아보기

<ㄱ>

가고시마[鹿兒島] 235

경통(經筒) 218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 90

고창물 149

공명 231

교살전 180

구마모토 235

9·18역사박물관 78, 131

국가사 205, 206

국립민족학박물관 210

국립역사박물관 준비처 28

국사편찬국(國史編纂局) 207

국자감(國子監) 28

국풍(國風) 문화 227

귀와(鬼瓦) 218, 220

규슈국립박물관 206, 213, 214, 222, 228, 232

국동국제군사법정 81, 87, 99

금동불 229

김성서 149

김일성 159

<ㄴ>

나가사키[長崎] 108, 218, 221, 222, 235

나라삼채(奈良三彩) 229

나라삼채호(奈良三彩壺) 226

난징대학살 77, 79, 81, 82, 84, 85, 90, 91, 102, 109

난징대학살 부정론 83, 89, 90, 93

난징대학살 사료집 93

난징국제평화연구소 106

난징대학살기념관[南京大屠殺紀念館] 77~79, 85, 89, 91, 100~103, 105, 106, 109, 131

난징대학살연구회 93

난징대학살편사공작소 93

니가타[新潟] 225

닝보카이밍제 페스트 재난진열관[寧波開明街鼠疫災難陳列館] 126

<ㄷ>

다보천불석당(多寶千佛石幢) 230

다자이후 221

다자이후[大宰府] 220

단지상[單霽翔] 127

단창칭[單長淸] 129

당삼채(唐三彩) 226, 228, 229

당식경(唐式鏡) 226

당풍(唐風)의 문화 227

『대계 일본국가사(大系日本國家史)』 227

대의 교류의 다방향성 236

덩샤오핑[鄧小平] 86, 165
 독가스 실험 138
 동고(銅鼓) 문화권 231
 동아시아 203
 동인(銅印) 218

 <ㄹ>
 러시아선 나가사키 출항도 221
 루쉰[魯迅] 28
 리장춘[李長春] 127

 <ㄴ>
 마루타 138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81
 마오안잉 묘 189, 192
 마오쩌둥 167, 168, 170, 171, 174, 178, 181, 189
 맥아더 171
 명자툰[孟家屯] 세군전 공장 124
 몽골선정 모형[蒙古船碇模型] 230
 무토 아키라[武藤章] 81
 문예춘추(文藝春秋) 83
 문화유산선진집체(文化遺產保護工作先進集體) 130
 문화흥구(文化興區) 131
 미륵불 입상 229
 미야기현[宮城縣] 119
 미야지다케[宮地獄] 고분 출토품 215

<ㄷ>
 박물관 붐 211
 베이투안[北曠] 146
 봉래장 181
 비교 전시 229

 <ㄸ>
 사가[佐賀] 235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 238
 사자상반신상 229
 삼각연신수경(三角緣神獸鏡) 220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 90
 생물학전 137
 사수친[夏淑琴] 92
 선회마(船繪馬) 233
 세균 실험 138
 세균전 119, 121, 150, 151, 153, 173, 180
 소에지마 타네오비[副島種臣] 238
 수사국(修史局) 208
 시카고 데일리 신문 82
 신화사(新華社) 126
 심득룡 149
 송후[淞滬] 전투 145

 <ㅇ>
 아미타여래상 225
 아미타여래입상 229
 아베 신조[安倍晋三] 110, 119
 '아시아 교역권론 213
 아이리스 장(Iris Chang) 90, 91

안다[安達] 특별 실험장 124
 애국주의 77, 109, 111, 184
 애국주의 교육 101, 119, 185, 187
 야마토[大和] 정권 220
 야요이 시대 226
 여래좌상 229
 역사민속박물관 210
 열사능원 187
 영웅 열사관 188
 연안[延安]혁명기념관 101
 오키노시마[大久野島] 145
 왜구의 전시 234
 외래문화의 수용 223
 요한 라베 98, 99
 우한[武漢] 전투 145
 유적천목차완(油滴天目茶碗) 230
 육군나라시노학교[陸軍習志野學校] 145
 이기수 149
 이시이 부대 137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137
 이청천 149
 인민 지원군 170
 일본세균공장죄증전람관(日本細菌工場罪證展覽館) 125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109
 임진왜란 237

 <ㅈ>
 자유주의 사관 209
 장쩌민[江澤民] 102, 134

저우언라이[周恩來] 86, 172, 174, 179, 181
 전쟁론 90
 정전 협정 183
 정전 협정 60주년 160
 정전 협정 연합군 182
 정한론(征韓論) 238
 제국교토[帝國京都]박물관 209
 제국교토박물관 223
 제국나라[帝國奈良]박물관 209
 제국박물관 209
 제국주의 시대 237
 제군(諸君) 83
 제도로서의 박물관 208
 제도로서의 역사학 208, 209
 제실박물관(帝室博覽館) 28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167
 조몬 토기 225
 중국 인민항일전쟁기념관(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 78
 중국경(中國鏡) 229
 중국국가박물관 26
 중국인민지원군열사기념탑 189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 192
 중점홍색여행정품선로(重點紅色旅游精品線路) 130
 중점홍색여행지구[重點紅色旅游景區] 126
 지바현[千葉縣] 나라시노시[習志野市] 145
 지방사 205, 206, 211
 지역사 205, 206, 212
 진지전 179

진청민[金成民] 126, 127, 136

<ㄷ>

차광기 토우[遮光器土偶] 225

창사[長沙] 전투 146

채문경[彩文鏡] 229

채화인마경[彩畫仁馬鏡] 229

천즈리[陳至立] 127

천황(제) 228

최충헌(崔忠獻) 묘지(墓誌) 230

731부대 121

731부대진열관 121, 122, 124, 127, 130, 132, 133, 151, 153

침화일군 제731부대 죄증진열관 121, 125, 126

침화일군남경대도살우난동포기념관(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 86

침화일군세균전 이우전람관[侵華日軍細菌戰義烏展覽館] 126

<ㅋ>

강유웨이[康有爲] 28

클라크 183

<ㄹ>

태도(太刀) 225

텐안먼 사태 102

트루먼 170

<ㅍ>

판부식호형 토기(板付式壺形土器) 226

펑더화이[彭德懷] 159, 168, 171, 182

표해록 232

표해록 전시의 부재 233

핑팡 특별 군사 지역 138

핑팡구 기구편제위원회(機構編制委員會) 126

핑팡구 문물관리소(文物管理所) 125

<ㅎ>

하얼빈 핑팡구[平房區] 731부대 124

하얼빈시25중학교 136

한샤오[韓曉] 128

한성진 149

한웨이노국왕(漢倭奴國王) 229

항미원조기념관(抗美援朝紀念館) 161, 164, 166, 186, 188, 194

항미원조기념탑 165

항미원조열사기념비 190

항미원조열사능원 189, 191

항미원조운동 184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159, 170, 183

해난회마(海難繪馬) 233

해양신 마조상(媽祖像) 230

해역 아시아사 234

『해행(偕行)』 83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인민 정부 125

헬레니즘 문화 216

홍색여행 표준지구[紅色旅遊經典景區] 126

화식경(和式鏡) 226

화염형 토기(火焰型土器) 225

화원혁명열사능원 190

황혈식 석실 216

후위진[胡玉縉] 29

후진타오[胡錦濤] 168

후차오무[胡喬木] 124

후쿠오카[福岡]아시아미술관 213

후쿠오카시립박물관 219

후쿠오카현[福岡縣] 145, 235

홍쉐즈[洪學智] 163

히가시 마쓰시마시[東松島市] 119

히가시나가노 슈도[東中野修道] 92

히로시마[廣島] 145

히로시마평화박물관 109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61

기억의 정치공간

박물관을 통해 본 동아시아의 역사 교육과 민족주의

초판 1쇄 인쇄 2014년 7월 16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7월 25일

지은이 김정현 · 김지훈 · 신규환 · 하세봉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4

ISBN 978-89-6187-333-8 9391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4021160)
-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